

韓國服飾

第 36 號

단국대학교 石岫善紀念博物館



目 次

□ 논 문

재래종 가래 외피를 이용한 건직물의 염색성	5
이제남 · 이은진	
규장각소장 어람용 의례의 장정직물 분석	19
유효선 · 이보영 · 허현주	
천의(褙衣 · 薦衣) 용도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55
이명은	

□ 조사보고

남이흥장군 답호(중요민속문화재 제21호)의 소재분석	77
채정민	

□ 「한국복식」 간행규정

□ 연구윤리 규정



재래종 가래 외피를 이용한 견직물의 염색성

이제남 · 이은진*

경상대학교 의류학과

논문요약

가래나무(*Juglans mandshurica* Maxim, var. *mandshurica* for. *mandshurica*)는 우리나라에서 군락을 이룬 재래종으로 구전에 의하면 녹색 열매의 껍질이 염재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국토의 약 65%가 산지로 구성되어 재래종의 식물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이러한 식물에 의존한 염색이 구전을 통해 명맥을 이어왔다. 그러나 선조들로부터 내려온 전통 염색은 값이 저렴하고 수급이 용이한 수입 한약재에 의한 염색과 관련 지식 보유자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점차적으로 소실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구전되는 재래종 가래 외피를 이용하여 견직물에 대한 최적의 염색 조건과 색상발현에 대한 실험을 실시하여 유물 보존처리와 재현에 있어 실질적 활용과 전통 염재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실험결과 염액의 농도 100g/L, 염색 온도 90℃, 염색 시간 40분이 최적의 염색 조건으로 확인되었다. 선매염법보다는 후매염법에서 다양한 색상이 발현되었고, 특히 Fe(철)과 Cu(구리) 매염제는 후매염법에서 짙은 khaki(카키)와 brown(브라운)색이 발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가래외피, 흑색, 천연염색, 전통나무, 실크

* Corresponding author : Eunjin, Lee, E-mail : imjeann@hanmail.net

투고일 : 2016.11.05 심사개시일 : 2016.11.09. 심사완료일 : 2016.11.25 게재확정일 : 2016.11.30

I. 서 론

우리나라의 염색문화는 동물성 및 광물성 염재에 비해 수급이 용이한 식물성 염재를 기저로 하여 발전되어 왔다. 사용된 식물 염재는 소목과 같이 가격이 저렴하고 국내에서 생장이 불가능한 재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한반도에서 자생하는 나무의 수피, 잎, 종자, 전초, 목부, 꽃, 뿌리 등이었다.¹⁾

식물 염재를 이용한 염색의 시작은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현존하는 문헌의 기록과 복식 유물에 나타난 복색을 통해 그 역사를 추측할 수 있다.²⁾ 백영미, 권영숙(2012)의 연구에서 16~17세기 출토 염직품을 통해 꼭두서니, 쪽, 석류 등의 식물 색소가 사용되었음을 입증하였고,³⁾ 채정민, 유효선(2015)의 연구에서는 충남 천안시 출토 16세기 분홍 단령에 사용된 염재는 홍화인 것으로 확인되었다.⁴⁾

출토 복식에서 뿐만 아니라 식물 염재의 사용에 대한 문헌 연구를 조사해보면, 1459년경에 쓰인 것으로 염색법이 기록된 문헌 중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산가요록」에서 복숭아나무껍질, 개나리나무껍질, 철쭉꽃 등 9종의 식물 염재를 확인하였고, 「규합총서」에서는 18종, 「임원경제지」는 30종으로 홍화, 지초, 쪽, 괴화, 황련, 울금, 뽕나무, 밤나무, 감나무, 신나무, 호장근, 물푸레나무, 갈매나무, 개나리나무, 철쭉 등을 밝혀내었다.⁵⁾ 이 중 감나무, 신나무, 호장근, 물푸레나무, 갈매나무, 개나리나무, 철쭉 등은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식물로 감나무를 제외하고는 수급이 용이하고 값이 저렴한 수입 한약재에 밀려 현재 재래의 전통 염재는 대부분 잊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수한 염색성을 가진 가래나무, 고욤나무 등 구전의 전통 식물 염재 또한 학문적인 연구 및 실험은 고사하고 외래종으로 인식되어 구별조차 힘든 상황이다.

1) 이종남(2006). 천연염색에 이용되는 국내 식물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서울, 대한민국. p.77.

2) 유송옥, 류정민(2001). 전통 식물 염재에 의한 직물 염색. 생활과학, 4권, p.112.

3) 백영미, 권영숙(2012). 16~17세기 출토염직품의 염료와 매염제 분석. 보존과학회지, 28권 2호, pp.119-129.

4) 채정민, 유효선(2015). 충남 천안시 출토 16세기 분홍 단령에 사용된 염재 동정. 보존과학회지, 31권 3호, pp.299-308.

5) 이종남(2006). *op. cit.*, pp.27-30.

우리나라의 국토는 약 65%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서 풍부한 전통 식물들이 자생하고 있고, 우리의 선조들은 대체로 이들 식물자원에 의존하여 염색해왔다.⁶⁾⁷⁾ 그러나 대부분의 염재와 염색법 등은 구전을 통해 명맥을 이어왔기 때문에 고문헌의 기록은 매우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견뢰도가 높고, 값이 저렴한 합성염료의 개발과 천연염색 관련 지식 보유자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식물들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염색의 전통지식이 점차적으로 소실되고 있다.⁸⁾ 이러한 추세라면 근세 이전 유물의 염색 직물에 대한 보존처리 및 모사품 제작에 당시 사용했던 염재의 이용에 있어서 염재의 분석 규명의 불가능은 물론 본래의 색에 대한 고증의 한계는 불가피해 보인다. 최근에는 전통 염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초 자료 구축과 재현성을 확인하는 시도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⁹⁾¹⁰⁾¹¹⁾ 고문헌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구전의 식물 염재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특히 추자(楸子)라고 불리던 가래(楸子)는 염색견뢰도가 비교적 우수하다고 알려진 가래나무(*Juglans mandshurica* Maxim. var. *mandshurica* for. *mandshurica*)로 우리나라에서 균락을 이룬 자생종이며 가래나무과에 속하는 낙엽교목이다.¹²⁾ 삼국시대에 중국에서 도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래나무과의 호두는 당추자(唐楸子, 당쥬즈)라고 불리며 가래와 혼동되는데 <Fig. 1>과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뭇잎과 과실의 생김새가 다르다. <Fig. 3>과 <Fig. 4>의 녹색의 외과피를 벗기면 속에 들어있는 핵과의 주름 깊이도 호두에 비해 가래는 깊고 매우 단단하다. 껍질이 두껍고 떼은맛이 있으며 육(肉)이 분리되지 않는 것은 가래이고, 껍질이 얇고 감미(甘味)가 있으며 육이 분리되는 것은 호두이다.¹³⁾ 한방에서는 봄에서 가을 사이에 수피를 채취해 말린 추목피(楸木皮)가 수렴과 해열, 눈을 맑게 하는 등의 효능이 있어 장염, 이질, 설사, 맥립종, 눈의 충혈과 붓는 통증 등에 약효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6) 산림청 http://www.forest.go.kr/newkfsweb/kfi/kfs/mwd/selectMtstWordDictionary.do?&pageIndex=1&searchWord=&searchType=&wrdType=&searchWrd=&mn=KFS_02_08_06_05_01&wrdSn=4493

7) 정혜란(2014). 한국 약용식물의 전통지식에 대한 민속식물학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경상남도, 대한민국. pp.2-3.

8) *Ibid*, 경상남도, 대한민국. p.3.

9) 김상률(2014). 신나무, 오리나무 및 자초를 이용한 라미직물의 천연염색. 패션 비즈니스, 18권 4호, pp.15-27.

10) 김미숙, 최석철(2001). 호장근 추출액에 의한 염색성 I. 한국염색가공학회, 13권 1호, pp.45-54.

11) 한미란, 이정숙(2008). 물푸레나무껍질에 의한 견직물의 염색성 및 세탁견뢰도 향상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8권, p.187.

12) 김종덕(2015). 호도의 품성과 효능에 대한 고문헌고찰. 한국농업사학회, 14권 1호, p.31.

13) *Ibid*, p.42.

있으며, 주성분은 naphthoquinones, naphthalenyl glucosides, α -tertalonyl glucopyranosides, diarylheptanoyl glucopyranosides, flavonoids 등의 페놀성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다.¹⁴⁾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점차 그 자취를 감추며 잊혀져가는 우리나라 토종 나무과실인 가래 외피를 이용하여 염색성을 살펴보고 수확 후 버려지는 부산물의 활용도를 높이며 구전으로 전해지는 식물 염재를 발굴함으로써 염색의 비용을 절감하고, 나아가 유물 보존처리와 재현에 있어 실질적 활용과 전통 염재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Fig. 1〉 가래 과실

From. 산림청 <http://www.forest.go.kr>



〈Fig. 2〉 호두 과실

From. 산림청 <http://www.forest.go.kr>



〈Fig. 3〉 청피를 벗긴 가래 과실



〈Fig. 4〉 청피를 벗긴 호두 과실

14) 이계원, 이주연, 조영호(2010). 가래나무 추출물의 미백효과. 한국생물공학회, 25권 1호, p.18.

II. 실험

1. 시료 및 시약

1) 시료

본 염색실험에 사용된 시료는 건직물 100%(숨베사에서 구입 : 카리스소프트 제조)이며, 시료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시료의 특성

Fabric content		Silk 100%
Weave		plain
Thickness(mm)		0.12
Fabric count	warp	51
	weft	41
Weight(g/m ²)		53 ± 2

2) 시약

본 실험에 사용한 금속 매염제는 모두 1급의 시약으로 염화제1주석(SnCl_2), 알미늄명반($\text{Alk}(\text{SO}_4)_2 \cdot 12\text{H}_2\text{O}$), 황산구리($\text{CuSO}_4 \cdot 5\text{H}_2\text{O}$), 황산제1철($\text{FeSO}_4 \cdot 7\text{H}_2\text{O}$) 등을 사용하였다.

2. 염액의 제조

2016년 10월 진주시 미천면에서 자생하고 있는 가래나무의 벗겨놓은 과실 외피 15kg을

구입하여 잘게 으갠 후 물 150L를 넣어 100℃에서 12시간 추출한 후, 조밀한 거름망으로 굽은 입자와 불순물을 제거하여 얻은 46L를 임의의 염액농도 100% 원액으로 정하여 사용하였다.

3. 염색 및 매염

1) 염색 조건에 따른 염색성

가래 외피를 이용한 최적의 염색 조건을 알아보기 위해 IR염색기(KSL-24 Perfect, 고려화학)를 사용하여 염액의 욕비를 1:100으로 고정한 후 염색의 농도, 온도, 시간을 변화시켜 염색성을 검토하였다.

① 염색 농도

염색 농도에 따른 염색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20%에서 100%까지 20% 간격으로 변화를 주었고, 온도 90℃, 시간 40분으로 염색하였다.

② 염색 온도

염색 온도에 따른 염색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20℃에서 100℃까지 10℃ 간격으로 변화를 주었으며 이때의 염색시간은 30분으로 고정하였다.

③ 염색 시간

염색 시간에 따른 염색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10분에서 100분까지 10분 간격으로 변화를 주었으며 이때의 염색온도는 90℃로 고정하였다.

2) 매염

매염제는 금속매염제인 Al, Cu, Fe, Sn을 사용하여 선매염과 후매염을 실시하였다. 매염제의 농도는 5%(o.w.f.)로 고정하였고, 온도 60℃, 시간 20분으로 처리하였다.

4. 표면색 및 견뢰도 측정

1) 표면색 측정

Computer Color Matching System(UltraScan PRO, Hunter Lab, USA)을 사용하여 표면 염착량은 최대 흡수 파장인 400nm에서 염색한 시료의 표면반사율을 측정한 후 Kubelka-Munk 식에 의해 K/S값을 구하였다. 그 식은 다음의 식(1)과 같다.

$$K/S = (1-R)^2 / 2R \quad \dots\dots\dots (1)$$

where, K : absorbance coefficient of dyed material

S : scattering coefficient of dyed material

R : reflectance

염색한 시료의 표면색 측정은 Computer Color Matching System(UltraScan PRO, Hunter Lab, USA)으로 x, y, z값을 측정하고, Munsell 표색계 변환법으로 H, V/C, CIE Lab 색차에 의한 L^* , a^* , b^* , ΔE_{ab}^* , K/S를 측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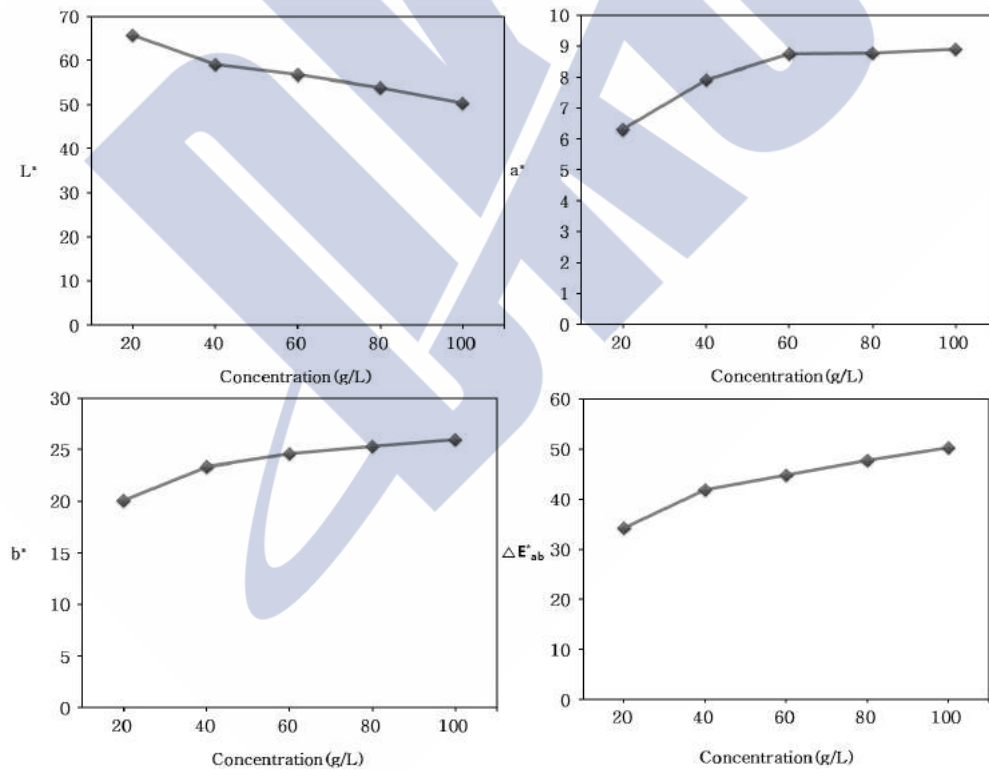
III. 결과 및 고찰

1. 염색 조건에 따른 염색성

각 염색 조건에 따라 시료의 염색성은 처리 하지 않은 시료를 기준으로 색차로 판별하였다.

1) 염액 농도에 따른 염색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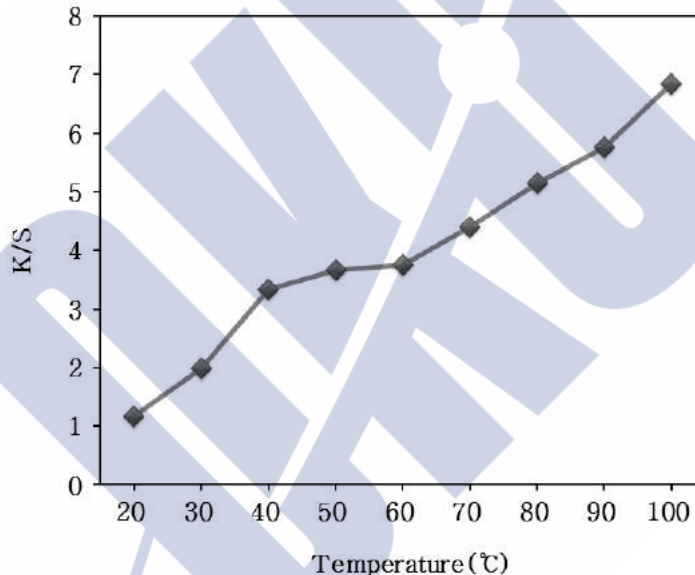
염액의 농도에 따른 염색성을 알아보기 위해 증류수를 이용하여 농도를 조절한 후 염색 온도 90℃, 시간 40분의 조건으로 염색한 시료의 표면색을 측정하였다. <Fig. 5>의 색도 공간에서 나타난 명도를 나타내는 L^* 값은 염액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낮아져 어두워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 값은 red, $-a^*$ 값은 green, b^* 값은 yellow, $-b^*$ 값은 blue 방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염액 농도의 증가에 따라 a^* , b^* 값도 증가하였다. a^* 값은 염액 농도가 20g/L에서 60g/L까지는 급격한 상승을 보였으나 이후의 농도에서는 변화의 폭이 크지 않았다. b^* 값은 염액 농도 20g/L에서 40g/L까지의 상승폭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이후의 농도에서는 서서히 증가하였다. 색차를 나타내는 ΔE_{ab}^* 은 b^* 값의 변화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염액 농도의 증가에 따라 색차도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염액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짙은 reddish yellow 계열의 색상이 발현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Fig. 5> 염액 농도에 따른 L^* , a^* , b^* , ΔE_{ab}^*

2) 염색 온도에 따른 염색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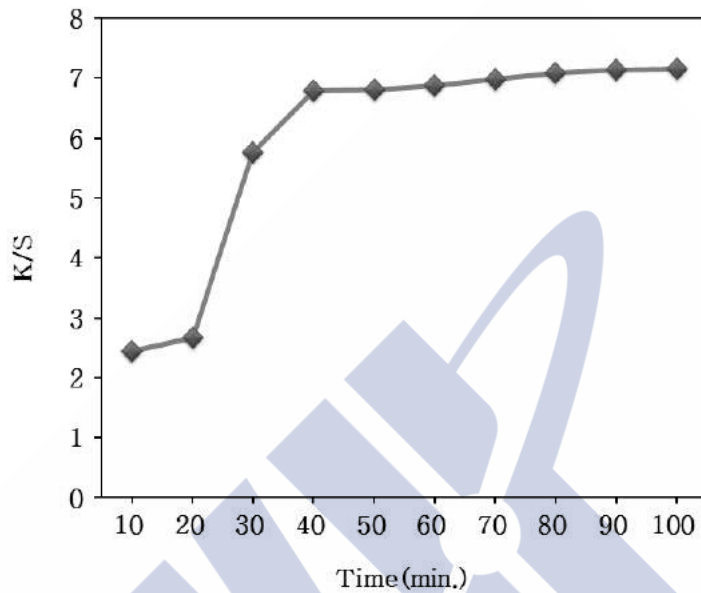
〈Fig. 6〉은 염색 온도에 따른 염착량 K/S값을 나타낸 것으로 온도 증가에 따라 염착량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도 상승과 함께 색소 분자운동이 활발해지고 섬유와의 분자 간격이 점차 넓어지게 되면서 섬유와의 결합을 증가한 것이다. 특히 염색 온도 20℃에서 40℃까지의 K/S값이 급격한 상승폭을 나타내었고, 40℃에서 60℃까지는 상승폭이 둔화되었으며, 60℃ 이후의 온도에서는 다시 염착량이 증가하여 100℃에서 최대값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건직물은 100℃의 염색에서는 광택과 강도의 저하 등 물성의 변화가 나타남으로 최적의 염색 온도는 90℃로 사료된다.



〈Fig. 6〉 염색 온도에 따른 K/S value

3) 염색 시간에 따른 염색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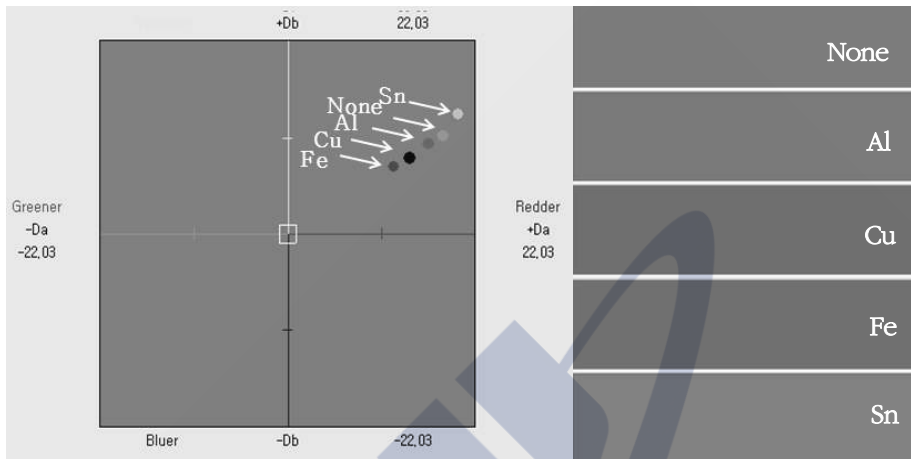
〈Fig. 7〉은 염색 시간에 따른 염착량 K/S값을 나타낸 것이다. 염색 시간이 늘어날수록 K/S값도 증가하였으나 특히 20분에서 30분까지의 구간에서 가장 급격한 증가가 나타났고, 다음으로 30분에서 40분까지, 10분에서 20분까지의 순으로 염착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분 이상의 시간부터는 염착평형을 나타나 최적의 염색 시간은 40분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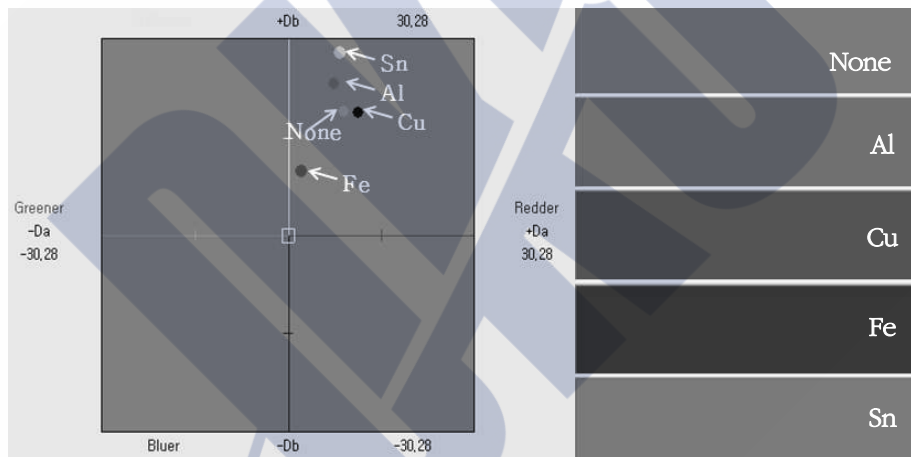
〈Fig. 7〉 염색 시간에 따른 K/S value

2. 매염에 따른 염색성

매염제와 매염방법에 따른 시료의 색상변화 결과를 〈Fig. 8〉, 〈Fig. 9〉에 나타내었다. 염색된 시료의 CIE L^* , a^* , b^* 값을 색도 공간에 나타내었는데, 우선 〈Fig. 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선매염법에 따른 색상변화는 대체로 a^* , b^* 의 정비례 선상에 무매염을 포함한 4종의 매염처리포가 좁은 공간에서 나타났으며 변화의 폭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색상 또한 육안으로 보아도 변화가 적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9〉의 결과는 후매염법에 의한 색도 공간과 매염처리포의 색상으로 〈Fig. 8〉의 선매염처리포와 비교해 b^* 축을 중심으로 길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b^* 값이 a^* 값에 비해 매염 방법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사료된다. 색상 역시 후매염법에서ダイナ믹하게 발현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Fe과 Cu 매염제의 경우 매염방법에 따라 짙은 khaki과 brown색이 발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8〉 선매염법에 따른 색상변화



〈Fig. 9〉 후매염법에 따른 색상변화

IV. 결 론

우리나라에서 군락을 이루며 자생하는 토종 나무과실인 가래 외피를 이용하여 견직물에 대한 최적의 염색 조건을 도출하고자 염액의 농도, 염색 온도, 염색 시간을 변화시켜 실험하였다. 또한 매염의 종류와 방법에 따라 발현되는 색상을 확인하기 위해 4종의 1급 금속매염제와 선매염법과 후매염법을 실시하여 측색하였다. 그 결과 염액의 농도 100g/L, 염색 온도 90℃, 염색 시간 40분이 최적의 염색 조건으로 확인되었고, 선매염법보다는 후매염법에서 다양한 색상이 발현되었으며, 특히 Fe과 Cu 매염제는 후매염법에서 짙은 khaki과 brown색이 발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래 외피를 이용한 천연염색은 수확 후 버려지는 부산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염재 구입에 대한 비용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으며 나아가 유물 보존 처리와 재현에 있어 실질적 활용과 전통 염재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반복 염색, 염욕의 pH에 대한 염색성과 선조들이 가래염색에 함께 사용했던 당시의 천연 매염제에 대한 실험 등은 후속 연구에서 진행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미숙, 최석철(2001). 호장근 추출액에 의한 염색성 I. 한국염색가공학회, 13권 1호, 45-54.
- 김상률(2014). 신나무, 오리나무 및 자초를 이용한 라미직물의 천연염색. 패션 비즈니스, 18권 4호, 15-27.
- 김종덕(2015). 호도의 품성과 효능에 대한 고문헌고찰. 한국농업사학회, 14권 1호, 37-67.
- 백영미, 권영숙(2012). 16~17세기 출토염직품의 염료와 매염제 분석. 보존과학회지, 28권 2호, 119-129.
- 유송옥, 류정민(2001). 전통 식물 염재에 의한 직물 염색. 생활과학, 4권, 109-130.
- 이계원, 이주연, 조영호(2010). 가래나무 추출물의 미백효과. 한국생물공학회, 25권 1호, 18-24.
- 이종남(2006). 천연염색에 이용되는 국내 식물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서울, 대한민국.
- 정혜란(2014). 한국 약용식물의 전통지식에 대한 민속식물학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경상남도, 대한민국.
- 채정민, 유효선(2015). 충남 천안시 출토 16세기 분홍 단령에 사용된 염재 동정. 보존과학회지, 31권 3호, 299-308.
- 한미란, 이정숙(2008). 물푸레나무껍질에 의한 견직물의 염색성 및 세탁견뢰도 향상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8권, 187.
- 산림청, 분야별 산림정보. 연구. 교육. 알기쉬운 산림지식. 산림용어사전. 산림임업용어사전. Retrieved 2016. 11. 20, from http://www.forest.go.kr/newkfsweb/kfi/kfs/mwd/selectMtstWordDictionary.do?&pageIndex=1&searchWord=&searchType=&wrdType=&searchWrd=&mn=KFS_02_08_06_05_01&wrdSn=4493

Dyeing Properties of Silk Fabrics with Native *Juglans mandshurica* cortex

Lee, JeNam · Lee, EunJin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Juglans mandshurica cortex is our traditional tree and it is superb dyeing material. This research is figure out how to save purchase price for the *Juglans mandshurica* cortex and provide information for the relic preservation by using *Juglans mandshurica* cortex. The experiment find out various alteration by using extract of *Juglans mandshurica* cortex. The best dyeing condition is that for the dyeing liquid density is 100g/L and for the dyeing temperature is 90℃ and for the dyeing time is 40minute. And there is various color for the after chroming. Specially mordant dyes Fe and Cu is manifested dark khaki and dark brown at the after chroming. *Juglans mandshurica* cortex is cheap and pleochroism mordant dyes.

Key Words : *Juglans mandshurica* cortex, black color, natural dyeing, traditional tree, silk

규장각소장 어람용 의궤의 장정직물 분석

유효선 · 이보영* · 허현주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영국 옥스포드대학교 고고인류학과

논문요약

규장각 소장의 어람용 의궤 가운데 비단표지로 장정한 의궤에 한하여 현재 상태를 분석하고, 직물의 구성 및 특성을 측정하여 문화재의 보존처리, 모사작업의 소재 선택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차후 개장·보수·관리 등 일련의 과정에 필요한 자료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어람용 의궤의 직물 표지는 대부분 초록색 평직 비단(禾花紬)을 사용하고, 평직 또는 능직의 흰색 비단으로 제목을 하였으며, 이를 붉은색으로 염색한 홍협을 둘러 마감하는 구성을 취하고 있다. 무늬가 있는 견직물 표지를 사용한 종묘의궤와 경모궁의궤를 제외하면 19세기 후반 대한제국 이전까지의 어람용 의궤는 이러한 장황 형식을 취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자료목록의 어람용 의궤 가운데에는 자세한 제작경위가 수록되어 있는 경우가 드물어 각 책의 표지에 직물을 사용하게 된 정확한 제작 지침을 파악할 수는 없었다.

주제어 : 어람용, 의궤, 장정직물, 장황, 비단

* Corresponding author : Ryu, HyoSeon, E-mail : Hyoseon@snu.ac.kr

투고일 : 2016.11.15 심사개시일 : 2016.11.20 심사완료일 : 2016.12.08 게재확정일 : 2016.12.10

I. 머리말

책은 그 내용을 구성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표지를 꾸며 이를 열람할 수 있는 완성된 형태를 갖추기 위한 장정 과정을 거쳐 완성된다. 장정은 인쇄술 발명 이전부터 기록 매체의 변화에 따라 ‘책의 보호’와 ‘이용의 편리성’이라는 두 가지 요인으로 발전하였다. 따라서 장정은 책의 외관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뿐만 아니라 책의 내용을 잘 보존하고, 여기에 기록된 내용을 통하여 책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가 보유한 4건의 ‘세계기록유산’을 비롯하여 의례와 같은 귀중한 조선시대의 서책들이 현전할 수 있었던 것은 당대의 우수한 장황과 지속적인 보존 관리 때문이다.¹⁾

동양에서의 장정 형태는 권축장(卷軸裝)·절첩장(折帖裝)·호접장(蝴蝶裝)·포배장(包背裝)·선장(線裝)의 차례로 변천하였는데, 이는 앞 단계의 단점을 보완하여 점점 발전한 것이다(조계영, 2006). 가장 발전된 형태인 선장(線裝)은 고려 말기부터 조선시대의 대부분의 고서에 사용되었는데, 책장의 글자가 밖으로 나오도록 판심을 접어 중첩하고 종이못으로 묶는 포배장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지만 표지가 쉽게 떨어져 버리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풀로 붙이는 대신 두 장의 표지를 책장의 앞 뒷면에 대어 끈으로 꿰매어 묶는다. 따라서 실이 끊어지더라도 책장이 쉽게 흩어지지 않으며, 실로 튼튼하게 엮어 만들었기에 철장(綴裝)으로 부르기도 한다. 중국에서는 보통 구멍을 네 개를 뚫어 실로 엮어 매는 사침안장(四針眼裝)을 하였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다섯 개의 구멍을 뚫어 붉은 실로 꿰매는 오침안정법(五針眼裝)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겉 표지의 재료는 종이, 베, 비단으로 하는데 주로 종이가 많이 이용되었다. 식물염색을 한 종이에 봉밀, 기름, 또는 콩즙을 먹인 후 능화문(菱花紋)을 새긴 장지는 튼튼하고 벌레와 수분에 잘 견디어 오래 보존할 수 있다. 종이에 새겨진 각종 무늬는 능화문(菱花紋)이라 하며, 이는 각종 무늬가 새겨진 능화판이라는 판목으로 누른 것으로 표지를 두텁게 보강하고 속에 붙인 배접지를 밀착시키는 동시에 장식적인 효과를 내는 목적이 있었다. 표지를 베로 하는 경우에는 주로 삼베를 이용하였으며, 비단은 궁중이나 고관 혹은 부자들에 의하여 사

1) 조계영(2006). 조선왕실 불안서책의 장황과 보존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용되던 것으로 금력이나 금권을 상징하는 것이었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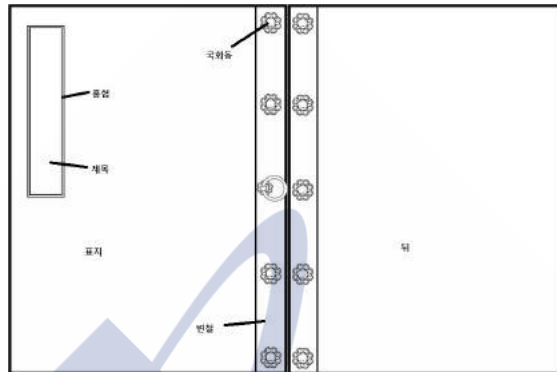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규장각 소장의 어람용 의궤 가운데 비단표지로 장정한 의궤만을 추려 현재 상태를 분석하고, 직물의 구성 및 특징을 측정하여 문화재의 보존처리, 모사작업의 소재 선택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차후 개장·보수·관리 등 일련의 과정에 필요한 자료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어람용 또는 예람용 의궤는 고급 직물을 사용하여 장정하는 것이 특징으로, 의궤의 제작에 있어서는 특정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그 표지 직물의 연구를 통해 당대의 직조 기술과 미적 기준을 가늠할 수 있다. 최근 프랑스로부터 반환된 외규장각 의궤 가운데 다수는 어람용 의궤로 사료적 가치는 물론이고 의궤의 장정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이다. 다만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는 1970년대에 외규장각도서 297권 중 11권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개장하였으나, 다행히 원본을 별도로 보관하였다고 하므로, 이와 더불어 규장각 또는 장서각에서 보관해 온 의궤의 장정을 조사하여 비교하면 어람용 의궤 장정의 변천과 그 경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II. 어람용 의궤의 장정

어람용 의궤의 표지 장황은 주로 두꺼운 종이로 하고 그 위에 초록색의 견직물로 씌운 다음, 철장한 부분에는 변철과 국화등을 대어 마감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표지 직물은 드물게 푸른색 또는 황색으로 된 것이 일부 있었으며, 평직물 대신 화려한 문단을 사용한 것도 있다. 문단은 장수와 칠복을 상징하는 구름과 칠보를 함께 배치한 운보문(雲寶紋)이었다. 제목은 각 의궤의 왼쪽 상단에서부터 세로로 길게 붙였으며, 흰 비단에 묵서로 쓰고, 그 네 변에는 붉은 비단으로 띠를 둘러 마감하였는데 이를 홍협(紅挾)이라 한다. 제목과 홍협의 직물은 모두 뒤에 종이로 배접을 하고 재단하였다. 홍협은 크게 한 장으로 재단하지 않고 약 0.5cm 너비의 좁은 띠로 잘라, 흰 비단 뒤에 양쪽의 긴 세로 변을 먼저 붙이고, 그

2) 홍종진(2006). 전통 책 장정. 청주기록유산보호훈련워크숍(편집자), "The 3rd Regional Training Workshop on Documentary Heritage", 261-274. 청주:UNESCO.

다음 위 아래의 짧은 변을 붙이는 구성을 사용하고 있어 이것이 일종의 규칙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전체에 직물을 대지 않고 네 변에만 얇은 띠로 두른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제목 부분의 두께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거나 또는 직물을 절약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사용한 직물은 대개 표지의 직물과 동일한 종류를 붉게 염색하여 사용하였다.



〈그림 1〉 어람용 의례의 장정 구성

이상은 자료를 직접 관찰하여 분석한 내용이며, 실제 의례의 장황에 사용되었던 물품에 관한 정보는 의례의 내용 가운데 「儀軌」 事目에서 알 수 있었다. 「영조 정순왕후가례도감 의례」의 의례 사목에는 표지(冊衣) 草綠輕光紬 2척 2촌, 제목(題目) 白輕光紬 길이 7촌 너비 1촌, 홍협(紅挾) 紅輕光紬 길이 7촌 너비 5푼, 면지(面紙) 초주지(草注紙) 2장, 후배(後背) 옥색지(玉色紙) 1장, 변철(邊鐵) 두석(豆錫 : 낫쇠)로 명시되어 있다.

〈표 1〉은 의례의 粧綴에 사용된 물품을 정리한 것인데, 각 시대별 의례의 사목을 살펴보면 19세기 이후로 장황에 변화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의례의 표지와 제목에 輕光紬 대신 禾花紬를 사용하였고, 제목에 白綾을 사용하는 경우가 나타나며, 어람용 의례를 묶을 때 사용했던 豆錫召伊邊鐵과 菊花童朴鐵은 재료를 표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또한 縛鐵을 만들 때 正朝國葬都監儀軌 이후의 의례에서는 熟銅, 汗音銀이 추가되었다. 또한, 1897년 대한제국의 성립을 기점으로 표지색은 초록색만 있던 것이 黃色(奎章閣), 紅色(侍講院, 義王, 英王), 草綠(慶善宮)으로 다양해졌고, 題籤은 백색과 홍색에 황색과 초록이 추가되었다. 의례의 표지와 제첩, 가함, 보자기에 황색이 공통적으로 추가 된 것은 國王에서 皇帝로 격상된 高宗을 위한 어람용 의례를 만들었기 때문이다.³⁾

3) Ibid.

〈표 1〉 「의례사목」에 나타난 의례 장황에 소요되는 물품(김문식, 2010)

	正祖健陵山陵 都監儀軌(1801)	純祖純元后嘉禮 都監儀軌(1802)	高宗大禮儀軌 (1897)	明成皇后殯殿魂殿 都監儀軌(1898)	義王英王冊封儀軌 (1900)
黃禾花紬			2尺4寸	8尺8寸(규장) 長8寸廣2寸*4	2尺4寸
紅禾花紬	長7寸廣1寸*2	長7寸廣1寸*1	2尺4寸/ 長7寸廣5分*2	8尺8寸(시강) 長8寸廣2寸*4	2尺4寸 長7寸廣5分*3
草綠禾花紬	4尺8寸	4尺8寸			4尺8寸 長7寸廣5分*1
白禾花紬				長8寸廣6寸*8	
白綾	長7寸廣1寸*2	長7寸廣1寸*2	長7寸廣1寸*2		長7寸廣5分*4
紅(染)布	19尺2寸	22尺	30尺8寸	44尺	26尺4寸
熟銅	2斤	2斤			
豆錫			4斤	8斤	8斤
含錫	1斤	1斤	8兩	1斤	1斤
汗音銀	1錢	1錢	2錢	4錢	4錢
三甫	半 타래(月乃)	半 타래	1 타래	2 타래	2 타래
礪砂 礪礪	各 6分	各 6分	各 1錢	各 2錢	各 2錢
邊鐵	編鐵 16箇	編鐵 20箇	14箇	冊編鐵 20部	12箇
圓環	圓環排目具 8部	中圓環排具 10箇	圓環 14箇	圓環排具 20部	圓環 12箇
釘具	三寸道乃頭釘16箇	三寸道乃頭釘20箇	釘具 14箇	釘具 20部	釘具 12箇
歸也				1介	
假函	2部	紅假函 1部	黃假函 1隻 紅假函 1隻	黃假函 4隻 紅假函 4隻	黃假函 1隻 紅假函 3隻
袂(件)	紅木四幅袂*2	紅木五幅袂*2	黃紬四幅袂*1 紅紬四幅袂*1 黃木四幅袂*1 紅木四幅袂*1	黃紬四幅單袂*4 紅紬四幅單袂*4 白木四幅袂*2	黃紬四幅袂*1 紅紬四幅袂*3 黃木四幅袂*1 紅木四幅袂*3

III. 조사 방법

1. 자료 선정

대상 자료의 선정은 규장각 발행의 의궤 목록 및 의궤 종합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검색한 뒤, 원본을 열람하여 비단표지를 갖춘 것에 한하였다. 목록의 순서는 간행연도 순으로, 가장 앞선 것은 1706년의 종묘의궤(宗廟儀軌)이고 가장 나중의 것은 1906년의 효정왕후 부묘도감의궤(孝定王后附廟都監儀軌)이다. 200년간 간행된 총 16종의 의궤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고에서 분석조사한 규장각 의궤와 현재의 상태는 <표 2>와 같다.

<표 2> 자료목록 및 표지장황의 현 상태 내역

번호	규장각 번호	제작 년도	서명	책 수	앞표지	보수	제목	홍협	뒤
1	14220	1706	종묘의궤(宗廟儀軌)	4	과랑, 윤보문	○	○	○	×
						○	○	○	×
						○	○	○	×
						○	○	○	×
2	14237	1772	진전중수도감의궤(眞殿重修都監都廳儀軌)	1	초록, 평직물	○	○	○	×
3	13296-1,2	1772	[현종추존호영조사존호]상존호도감의궤 (顯宗追尊號英祖四尊號上尊號都監儀軌)	2	초록, 평직물	○	○	○	○
						○	○	○	×
4	13632	1784	경모궁의궤(景慕宮儀軌)	3	초록, 윤보문	○	○	○	×
						○	○	○	×
						○	○	○	○
5	13968	1806	순조태실석난간조배의궤 (純祖胎室石欄干造排儀軌)	1	갈색, 평직물	○	종이		○
6	13964	1823	성종태실비석개수의궤 (成宗胎室碑石改整儀軌)	1	초록, 평직물	○	×	×	○
7	14316	1823	황단종향의궤(皇壇從享儀軌)	1	과랑, 평직물	○	○	×	○

번호	규장각 번호	제작 년도	서명	책 수	앞표지	보수	제목	홍협	뒤
8	14223-1,2	1842	종묘의궤속록(宗廟儀軌續錄)	2	주황, 평직물	○	×	×	적포
						○	×	×	적포
9	13796	1851	헌종효현왕후부묘도감의궤 (憲宗孝顯王后祔廟都監儀軌)	2	초록, 평직물	○	○	○	○
						○	○	○	○
						○	×	×	×
10	13359	1858	순조순원왕후추상존호도감의궤 (純祖純元王后追上尊號都監儀軌)	1	초록, 평직물	○	○	○	○
11	13703	1859	순원왕후부묘도감의궤 (純元王后祔廟都監儀軌)	1	초록, 평직물	○	○	○	×
12	13365	1861	순조순원왕후추상존호도감의궤 (純祖純元王后追上尊號都監儀軌)	1	초록, 평직물	○	○	○	×
13	13168-1,2	1875	순종왕세자수책시 책례도감의궤 (純宗王世子受冊時冊禮都監儀軌)	2	초록, 평직물	○	○	×	○
14	14217	1876	보인소의궤(寶印所儀軌)	1	초록, 평직물	○	○	○	○
15	13883	1898	명성황후국장도감의궤 (明成皇后國葬都監儀軌)	5	노랑, 평직물	○	○	○	×
						○	○	○	○
						○	○	○	○
						○	○	○	○
						○	○	○	×
16	13835	1906	효정왕후부묘도감의궤 (孝定王后祔廟都監儀軌)	1	노랑, 평직물	○	○	○	×

2. 조직구성 분석

Video Microscope(Sometech) 관찰은 ×60, ×160의 두 배율(자체 배율로 일반 현미경 배율과 차이 있음)에서 실시하였고 유물의 세로방향을 경사방향으로 하여 촬영하였다. 저배율에서는 직물의 조직구조를, 고배율에서는 사용된 실의 굵기 및 조직점 구성을 관찰하였다. 실물화상을 그래픽 이미지로 저장하여 직물의 밀도 및 실 굵기를 측정, 기록하였다.

3. 색상 분석

바탕소재의 색상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Spectrophotometer(Minolta, 2600-d)를 이용하여 유물의 가시광선 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 측정 광원 D65 10°(UV 100%), 측정 반경 -3mm로 가시광선 영역(400~700nm)에서 측정하였다. 가시광선 내의 반사율값으로 색상과 그 세기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CIE L*a*b* 색공간 좌표를 산출하여 그 명도와 색상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조사 결과 및 고찰

직물을 구성하고 있는 섬유는 측면의 형태에 따라 대부분 건 필라멘트로 판정할 수 있었으나, 일부 마섬유 또는 면섬유의 측면도 보였다. 이를 정확히 감별하기 위해서는 섬유의 단면도 측정해야하나 장정직물의 경우 탈락된 섬유를 구할 수 없어 비파괴적인 방법만으로는 확실한 감별을 할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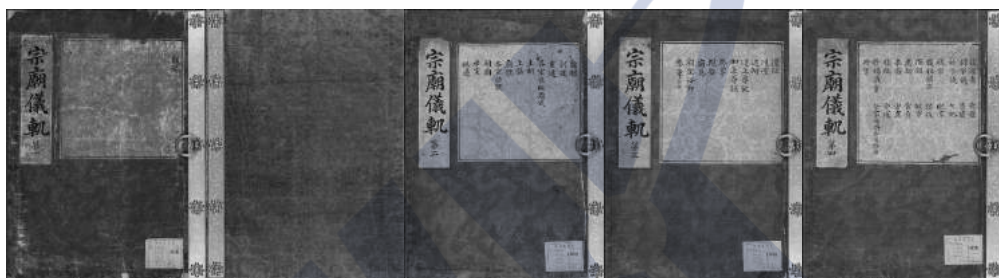
기록 내용은 직조 구성, 단위면적 1×1cm² 내의 경/위사 밀도, 그리고 이미지상에서의 경/위사 평면 너비를 측정한 수치(단위 : mm)이며 후자는 실 굵기를 비교하는 상대적인 값으로 간주하였다.

그림 번호는 각 의궤 제목에 속하며, 직물을 부분확대한 현미경 이미지 번호에 맞추어 설명하고 있다. 이미지 번호가 동일한 2개를 사용한 것은 60/160배율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다.

1) 종묘의궤(宗廟儀軌)

표지는 남색의 구름과 칠보를 배열한 운보문(雲寶紋) 비단으로 되어 있고, 뒤는 직물이 떨어져 남색의 장지만이 남아 있다(그림 2). 표지의 직물은 두 겹으로 되어 있는데, 손상

부위의 안쪽에 직물이 대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뒤표지를 떼어 앞에 대고 그 위에 손상된 원본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처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지 직물이 원본 또는 뒤 직물인가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나 본 조사에서 대상으로 한 모든 의례에서 아래쪽에 덧댄 직물이 색이 덜 바랜 점, 그리고 전면에 천을 대지 않고 손상부위에만 부분적으로 덧댄 것이 공통적으로 관찰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표지가 원본 직물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2〉 종묘의례 사진(왼쪽부터 1권 앞/뒤, 2권 앞/ 3권 앞/ 4권 앞)

각 권에 사용된 직물은 모두 같은 것으로, 표지는 5매 경수자(비수 3)로 지조직을, 1/2 능직으로 무늬를 나타낸 문단이다. 단위면적 $1 \times 1\text{cm}^2$ 내의 밀도는 지조직이 58/23, 무늬가 36/22로 능직으로 변하면서 경사의 올을 합쳐서 굵게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대략의 경사 굵기는 0.18mm, 위사 굵기는 0.4mm로 굵은 위사를 사용하여 무늬 부분의 대비가 두드러져 보이는 효과가 있다.

제목에는 모란과 연화로 추정되는 화문단을 사용하였고, 표지와 동일한 것으로 추정되는 운보문단으로 홍협을 들렀다. 제목 외에도 장 제목(2, 3, 4권 앞표지의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음)을 써 붙였는데 제목과 같은 흰색의 문직물을 사용하였으나 홍협은 따로 대지 않고 붉은 안료를 이용하여 선으로 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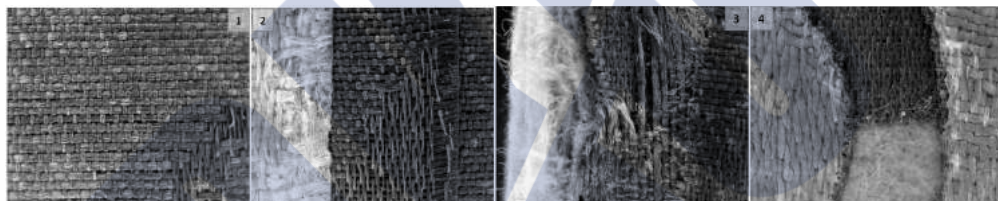
의례 내용 중에 장황 재료에 관한 사목이 따로 실려 있지 않아 원래의 장황 및 사용된 직물에 관한 정확한 정보는 알 수 없으나, 유사연대의 다른 의례와 비교하여 문단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1권]을 조사분석한 결과(그림 3) 보수 시에 사용한 다량의 풀로 인한 직물의 경화가 관찰되었다(1). 제목의 화문단은 마찰과 오염으로 인해 직물 표면이 심하게 손상되어 잘 알아보기 어려우나 홍협은 조직이 변화하는 부분이 제대로 남아 있어 표지와 같은 운보문 직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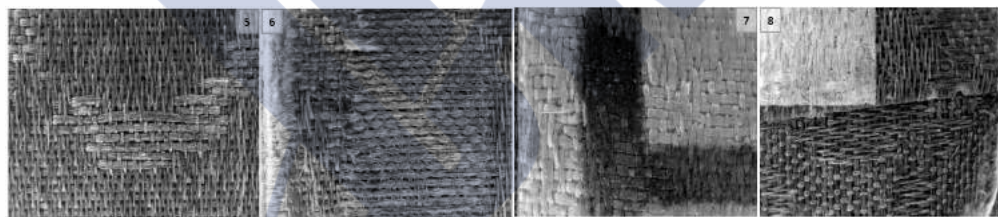
것을 알 수 있다(2). 표지의 모서리부분은 마찰로 인해 문직물의 표경사가 상당부분 닳아 없어지고 아래에 덧댄 직물 및 종이 배접이 드러났다(3). 장 제목의 경우에는 일부 충해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작은 손상부위가 있으며 그 아래 표지 직물 및 배접한 종이가 순차적으로 드러났다(4).

[2권]을 조사분석한 결과(그림 4) 남색의 운보문 비단 표지(5), 뒤는 종이만이 남아있다. 2권 역시 손상된 부분은 아래에 뒷장의 직물을 대고 위에 다시 원본을 덮는 방식으로 처리하였다(6). (7)의 홍협은 붉은 색 안료로 선을 그어 넣은 것이고, (8)의 홍협은 붉은 직물을 좁은 띠 형태로 잘라 붙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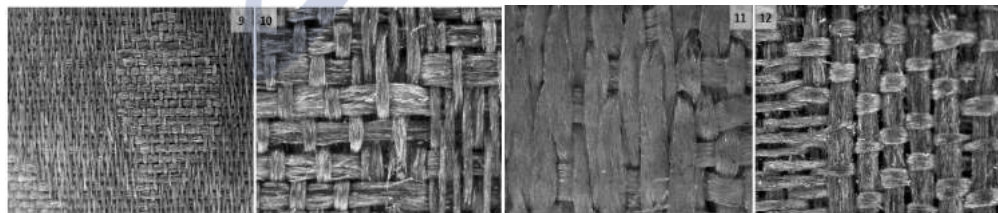
[3권]은(그림 5) 1, 2권과 마찬가지로 남색의 운보문 표지이고 뒷장을 벗겨 앞장의 보수에 사용하였다(9, 10). 앞의 두 권에 비해서 상태가 양호하여 직물의 문양을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제목(11)과 홍협(12)도 잘 보존되어 있었다.



〈그림 3〉 종묘의례 1권 부분확대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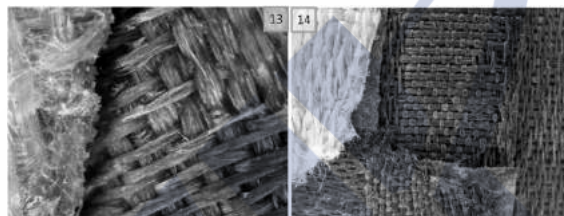


〈그림 4〉 종묘의례 2권 부분확대 이미지



〈그림 5〉 종묘의례 3권 부분 확대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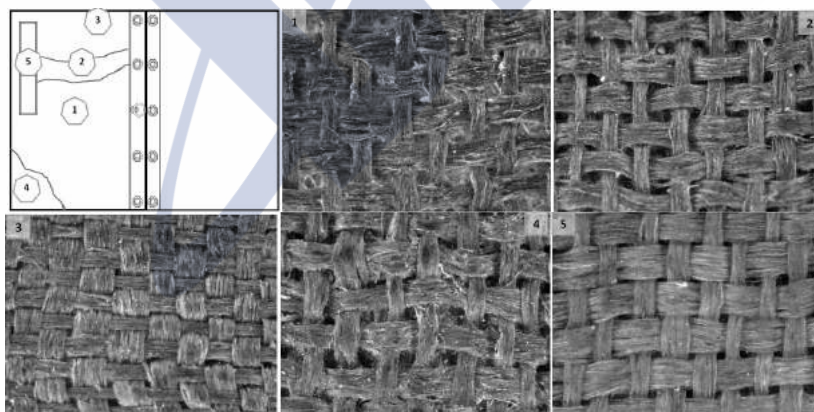
[4권]은(그림 6) 앞의 것과 같이 남색의 운보문 표지이고 뒷장은 보수에 사용되어 종이만 남아 있다. 전반적인 상태는 양호한 편이며, 손상부위 아래에는 천을 덧대고 보수하였다(13). 4권에서만 홍협을 붙이는 순서가 아래쪽 변에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자료목록의 다른 의케의 경우 모두 가로변을 모두 붙인 뒤 세로 변을 붙이는 순서에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작 당시의 실수 또는 추후 보수 시에 이러한 사항을 따르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14).



〈그림 6〉 종묘의케 4권 부분 확대 이미지

2) 현종추존영조사존호 상존호도감위케(顯宗追尊號英祖四尊號上尊號都監儀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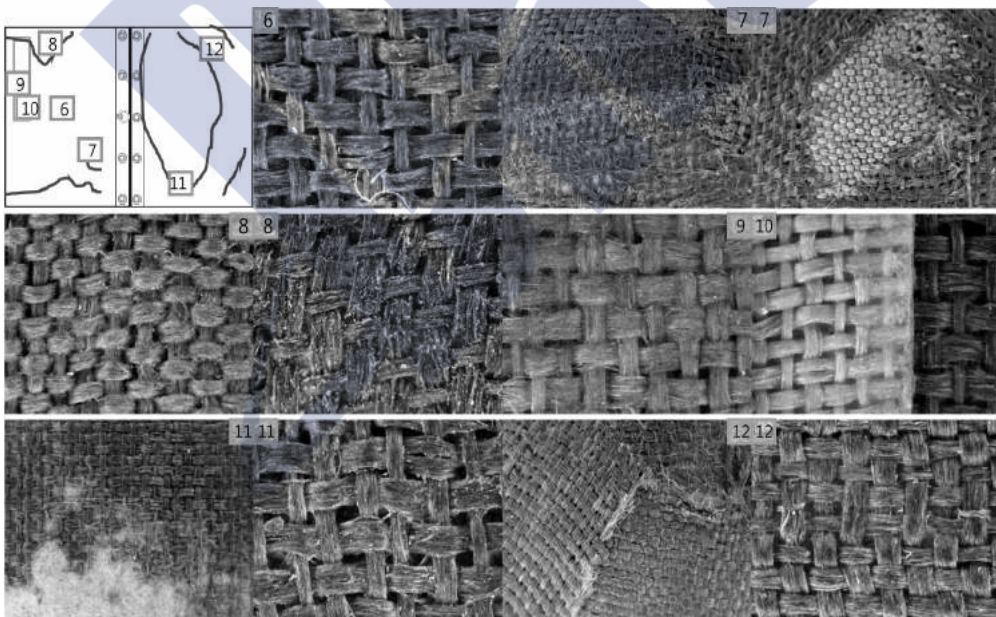
[1권]은(그림 7) 초록색 평직 견직물을 사용하였고, 여러 군데 보수한 흔적이 있다. 표지 직물은 색상차로 두 종류임을 알 수 있다. 색상의 차이는 일광 또는 산화에 의한 변색에 의해 일어나기도 하지만, 실의 굵기, 직조와 같이 구성 방식의 차이에서도 비롯되며, 특히 원본 직물과 보수용 직물의 올 방향을 같게 맞추지 않았을 경우에도 빛 반사각의 차이에 의해



〈그림 7〉 현종추존호영조사존호 상존호도감의케 1권 부분확대 이미지

색이 달라 보이는 효과가 나타난다. 뒷장은 직물이 남아있지 않다. 1, 2, 4권은 동일한 원본 직물로 추정되며 기준 단위면적($1 \times 1 \text{cm}^2$) 내 평균 밀도는 18/19이고 실 굵기는 0.3/0.4mm이다. 그러나 가장자리의 3 부분에는 위사가 훨씬 굵고 조직이 치밀한 직물이 보인다. 경위사의 굵기가 다를 경우 대개 위사에 더 굵은 실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직서 방향을 가로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밀도는 28/20, 실 굵기는 0.3/0.54mm이다. 제목에 사용한 직물은 3과 유사한 구조로 위사에 더 굵은 실을 사용하였고 밀도는 20/18, 실 굵기는 0.3/0.5mm이다(5).

[2권은(그림 8) 초록색 평직 견직물을 사용하였고 표지가 원본 직물이며 보수용 직물을 아래에 끼워 넣었다. 뒤 표지의 경우 원본 직물이 많이 남아 있지만 책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풀에 의해 경화 및 변색 된 부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그 아래 보수용 직물을 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목의 흰 직물은 일부 손실되었고 홍협은 색이 거의 바랜 상태이다. 1 권과 마찬가지로 직물 구성이 다른 직물을 보수에 사용하였는데, 6, 8, 11은 원본 직물로 평균 밀도 17/17, 실 굵기 0.25/0.42mm로 위사가 더 굵고 조직이 성근 평직물이다. 단, 8번 부 위에는 원직물 및 보수용 직물을 여러 겹으로 하여 기워놓았는데 접착제의 과도한 사용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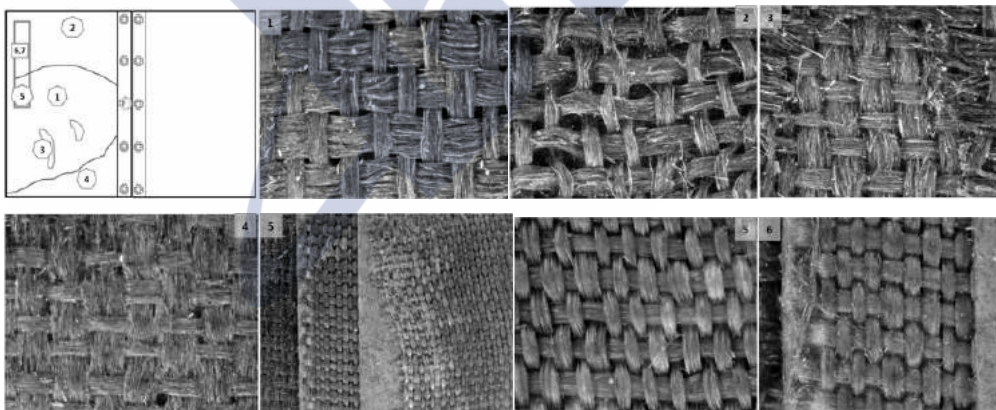


〈그림 8〉 현종추존호영조사존호 상존호도감의례 2권 부분확대 이미지(같은 번호는 각각 60/160 배율임)

로 표면에 많은 오염이 나타나며 이 부분은 식사방향을 가로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후에 보수한 것이며 숙련된 솜씨로 작업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7, 8번 부위에 사용된 보수용 직물은 밀도 23/32, 실 굵기 0.25/0.3mm의 연두색 직물로 경위사에 유사한 굵기의 실을 사용하였고 조직이 훨씬 치밀한 편이다. 표제(9)는 원직물과 유사하나 밀도 24/20, 실 굵기 0.24/0.6mm로 조직이 좀 더 치밀한 편이다. 홍협(1의 오른쪽 부분)은 밀도 24/20, 실 굵기 0.3/0.45mm로 표지 직물과 유사하지만 역시 조직이 더 치밀하여 제목의 것과 같은 직물로 추정된다. 뒷장은 밀도 17/15, 실 굵기 0.22/0.53mm로 표지와 같은 직물로 생각 되며(11), 보수에 사용된 다른 직물은 밀도 18/17, 실 굵기 0.21/0.54mm로 앞의 보수에 사용된 연두색과 동일한 직물인 것을 알 수 있다(12).

3) 진전중수도감의케(眞殿重修都監都廳儀軌)

평직의 초록 견직물 표지를 사용하였고 뒤는 푸른 종이 만이 남아있다(그림 9). 1은 표지 직물로 밀도 20/14, 실 굵기 0.31/0.68mm로 위사에 경사의 약 2배 굵기의 실을 사용하였다. 표지 전면 곳곳에 수선한 흔적이 있으며 2 부위에는 직물 조직이 고르지 못하고 변색이 일어나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이 부분의 밀도는 21/14로 1과 유사하나 경위사 사이의 공간이 많이 벌어져 있는 것으로 미루어 물리적 자극에 의해 조직이 느슨하게 풀렸던 것을 처리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3은 원본이 손상된 부분을 아래쪽에 직물을 대어 보수한 부분으로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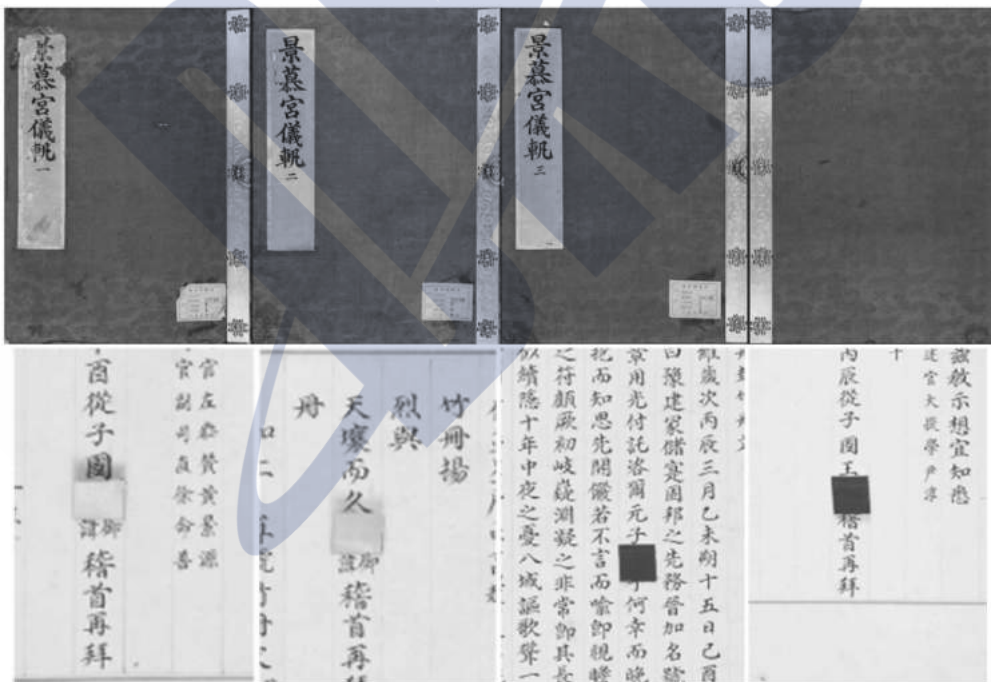


〈그림 9〉 진전중수도감의케 부분확대 이미지(5는 각각 60/160 배율임)

직과 실의 특성이 원본과 거의 유사한 점에서 뒷장의 직물을 일부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식서방향을 반대로 사용한 것은 직물소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음을 시사한다. 앞 표지의 오른쪽 아래로는 접착제를 과도하게 사용한 것에 따른 변색과 경화가 두드러진다(4). 제목(5)은 밀도 24/16, 실 굵기 0.27/0.38m의 직물을 사용하였고 상당히 오염되어 있으며 배 접이 분리되고 있어 보존처리를 요한다. 홍협(6)은 밀도 24/16, 실 굵기 0.26/0.3mm로 제목의 직물과 유사한 직물로 추정되며 황변(黃變)이 심하여 원래 색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4) 경모궁의궤(景慕宮儀軌)

초록색의 운보문 견직물로 장정하였다(그림 10). 문양도안은 종묘의궤의 장정에 사용된 푸른색 견직물 및 프랑스에서 반환된 외규장각 의궤에 속한 여러 어람용 의궤의 운보문과 동일하나 교직으로 직조하여 그 문양이 뚜렷하게 드러나 문양의 종류를 구별하고 도안을 뜨기에도 용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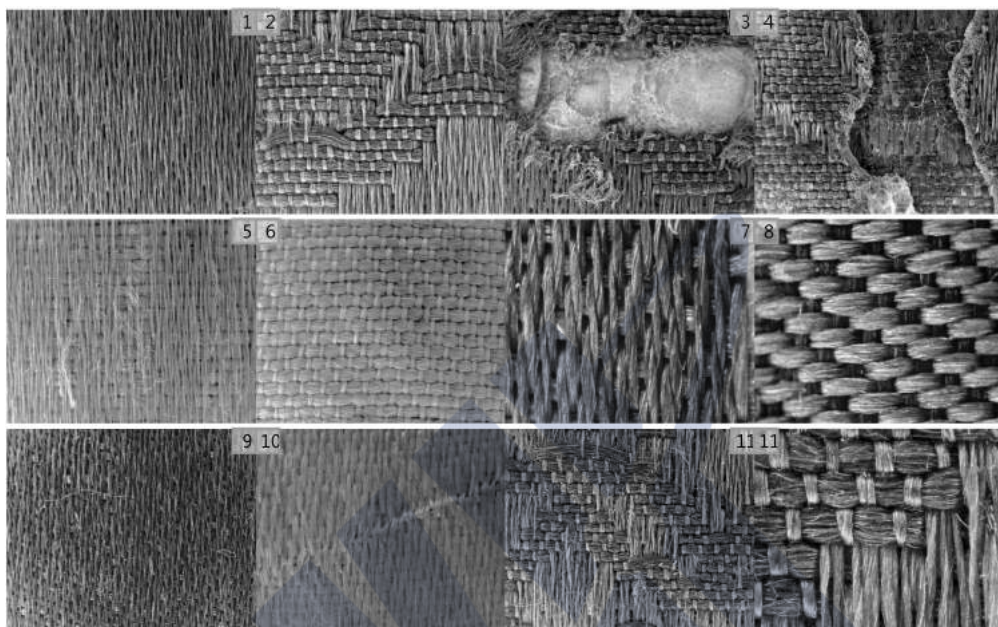
〈그림 10〉 경모궁의궤 사진(위 : 왼쪽부터 1, 2, 3권 앞과 뒤, 아래 : 휘어부분)

1·2권 표지 직물의 뒷장은 종이 만이 남아 있으며, 3권은 표지, 뒤 모두 원본 직물이 그대로 남아 있다(그림 11). 지조직(1)은 8매 경수자직(비수 3)이고, 무늬부분(2)은 1/2의 능직인 문직물이다. 밀도는 경수자 부분이 82/30, 능직 부분이 30/20으로 조직이 바뀌는 부분에서는 일부 경사를 합쳐 울수를 조절하였다. 실 굵기는 0.15/0.51mm로 위사가 굵은 만큼 무늬 부분의 색 대비가 더욱 두드러지는 효과가 나타났다. 실의 경우 꼬임이 거의 없는 편사를 사용하여 표면에 광택이 더욱 나타났다. 4의 부위에서는 손상부위에 원본과 동일한 직물을 아래쪽에 덧대어 보수한 흔적이 보이며, 1, 2권에서 소실된 뒤 표지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제목(5, 6)은 8매 경수자직(비수 3)의 흰색 비단을 쓰고 홍협(7, 8)은 5매 경수자직물(비수 3)을 사용하였다. 밀도는 각각 72/16, 72/32 그리고 실 굵기는 0.15/0.54m, 0.16/0.45mm로 양쪽 모두 위사가 훨씬 굵은 직물이다. 1권의 제목 상단이 배접종이와 분리되어 뒤를 관찰할 수 있었는데, 홍협의 경우 경사의 색이 훨씬 진하고 위사의 색은 연하여 이것 또한 실을 염색한 후 직조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 상태에서 먼저 염색하여 직조하는 것은 후염 보다 기술이 필요하므로 경모궁의궤의 표지 장정에 사용된 문직물은 염색과 직조 기술의 수준과 미적 가치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한편으로는 마섬유의 교직물에 1회의 염색을 한 결과일수도 있다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림 11〉의 2, 6, 7, 8, 12의 이미지에 나타난 경·위사 굵기의 차이와 실의 측면의 형태는 이들 직물이 교직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장정직물이라 이들 섬유를 감별하기 위한 한 울의 시료조차 취하지 못하였지만 측면의 형태만으로도 견과 마섬유이 교직물이라고 판정된다.

의궤 내부에도 직물이 사용되었는데 본문 가운데 왕과 원자의 이름 등 휘어(諱御)하는 부분(〈그림 10〉 아래)은 처음에는 흰 비단으로 가렸으며, 이후에는 붉은 비단으로 가렸다. 양쪽 모두 5매 경수자직(비수 3)의 견직물 뒤에 얇은 종이로 배접하여 사각형으로 잘라 붙였으며, 각각의 밀도는 72/30, 50/18, 실 굵기는 0.16/0.47mm, 0.26/0.56mm로 붉은 비단은 홍협과 동일한 것으로 생각되며, 흰 비단은 경위사가 더 굵은 다른 직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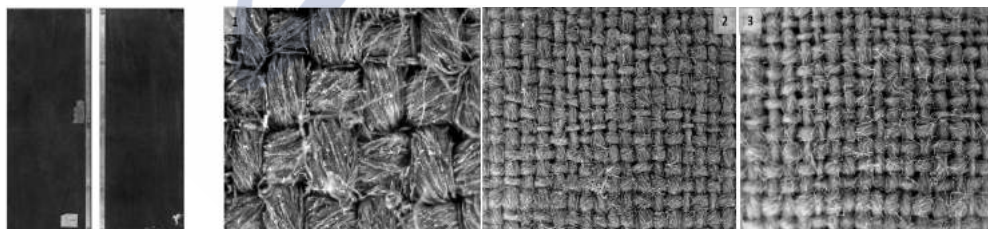
3권에 남아있는 뒤 표지의 직물은 역시 다른 권의 앞장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문직물(11)이며,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한 편이다. 지조직(11)의 밀도는 82/20, 문양(12)의 밀도는 33/21이고 실 굵기는 0.15/0.48mm이다.



〈그림 11〉 경모궁의례 부분확대 이미지

5) 순조태실 석난간조배의례 (純祖胎室石欄干造排儀軌)

성종태실비석개수의례와 마찬가지로 세로로 긴 형태의 의례로, 표지와 뒤에 면포로 추정되는 갈색 평직물을 사용하였다(그림 12). 굵고 꼬임이 많은 실로 직조하였으며 표면에 잔섬유가 가득 올라와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섬유일 가능성이 크다(1). 색은 붉은빛이 도는 진한 갈색으로 전체적으로 균일하지 못하게 색이 바래고 얼룩진 상태이다(2). 표지와 뒤 직물의 밀도는 각각 12/14, 12/12로 경위사에 같은 실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실 굵기는 각각 0.72/0.7mm, 0.72/0.65mm이다. 상당기간 뒷면이 바깥으로 접혀 빛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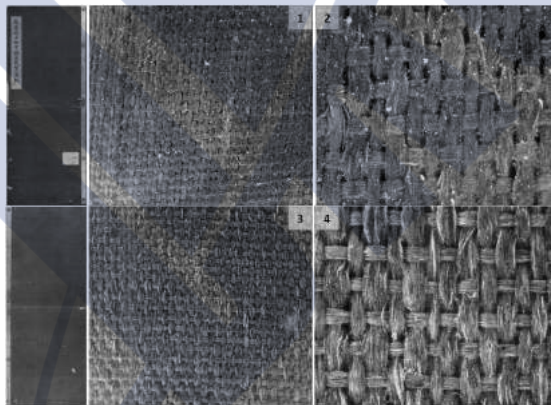


〈그림 12〉 순조태실 석난간조배의례 사진과 부분확대 이미지

되는데 안쪽(3)이 더 색이 바랜 밝은 노란빛 갈색인 것에서 이 직물의 염색에 사용한 갈색 염료의 붉은색 색소는 노란색 색소에 비해 견뢰도가 낮은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의궤사목이 따로 실려 있지 않아 원본의 장황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었다. 제목도 남아있지 않다.

6) 성종태실비석개수의궤(成宗胎室碑石改竪儀軌)

세로로 긴 형태의 얇은 의궤로 앞 뒤 모두 초록색의 평직물 평직 비단으로 되어 있다(그림 13). 제목은 종이 위에 묵서로 쓴 것이고 홍협은 없다. 육안으로 보면 표지의 직물(1)은 뒤 직물(3)에 비해 색이 더 진할 뿐 아니라 표면이 훨씬 편평하고 밀도 있는 느낌을 주는데,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같은 직물인 것을 알 수 있다. 표지 직물을 확대하여 보면 2와 같이 심하게 경화되고 뒤 직물은 표면 상태가 훨씬 양호하여 원본 직물의 색상 및 구조를 파악하기에 적합하다. 표지 직물의 밀도는 34/21, 실 굵기는 0.27/0.32mm이고 뒤 직물의 밀도는 32/18, 실 굵기 0.23/0.35mm로 거의 같은 직물로 생각된다. 따라서 표지 직물은 원본이나, 보존처리 과정에서 들뜬 상태를 가라앉히려 접착제를 사용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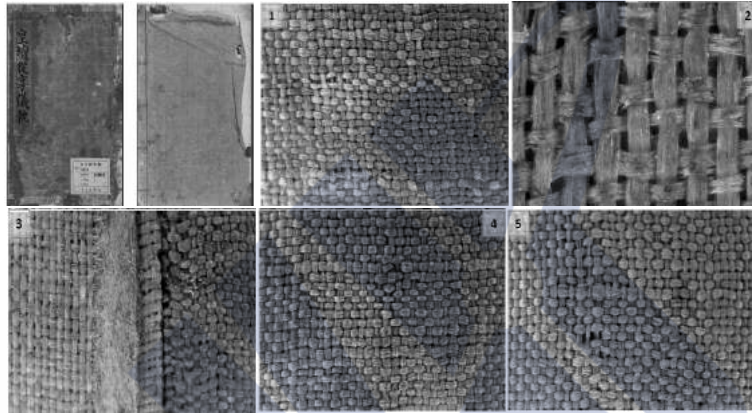


〈그림 13〉 성종태실 비석개수의궤 사진(좌)과 부분확대 이미지

7) 황단종향의궤(皇壇從享儀軌)

푸른색의 평직 견직물로 표지와 뒤를 대었다(그림 14). 표지는 1과 같이 접착제의 과도한 사용과 경화 및 마찰과 오염 등으로 인한 심한 열화 때문에 원래 색을 알아보기 어렵다. 직물의 아래에는 남색의 장지를 대었다. 제목의 경우 흰 평직물을 사용하였으며(2), 홍협은

일부 탈락되었고 남아있는 부분도 심하게 바랜 상태이다(3). 변철은 소실되었고 그 아래 붉은 실로 꿰매어 철장 한 상태로 남아 있다. 뒤 표지는 상대적으로 색이 덜 바래어 쪽 염색한 밝은 푸른색의 직물임을 알 수 있으며(4), 배접이 분리된 부분에서 보이는 직물 안쪽의 색(5)으로 원래 색을 추정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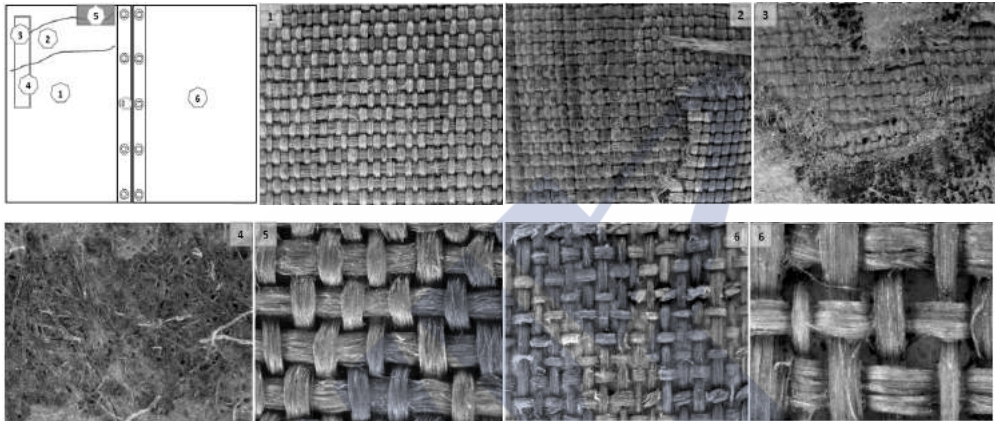
〈그림 14〉 황단종향의게 사진과 부분확대 이미지

8) 종묘의궤속독(宗廟儀軌續錄)

[1권](그림 15)의 원본 직물은 심하게 퇴색되어 일부 붉은 염료의 흔적 만이 보이는 평직의 견직물이다. 표지의 직물은 2점으로 아래쪽에 비쳐 보이는 층은 주홍색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뒷장의 직물을 벗겨 아래에 덧댄 것이다. 1의 원본 직물은 밀도 20/14, 실 굵기는 0.37/0.48mm의 평직물이다. 2는 손상 부위에 직물을 덧대어 보수한 흔적이 보이며, 보수한 직물의 밀도는 22/13, 실 굵기는 0.35/0.51mm로 거의 유사하여 뒤 직물을 사용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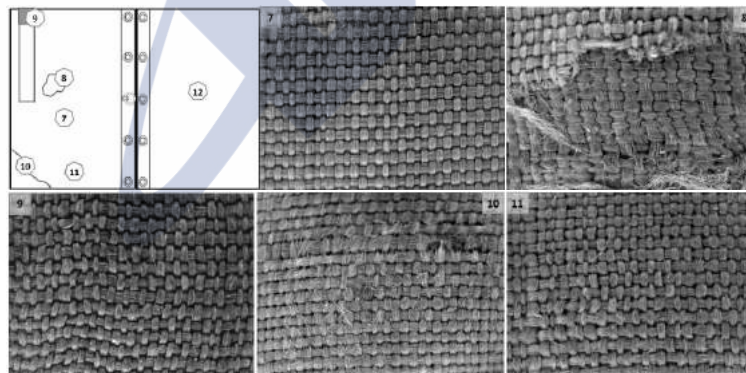
제목의 원본 직물은 소실되었으나 아래에 배어든 묵서(墨書)가 남아 있어 제목을 확인할 수 있다. 3과 같이 일부 종이가 손상된 부분 아래로 원본 표지가 드러나는데 아직 주홍색이 남아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홍협은 남아있지 않고 제목 직물 위에 안료를 사용하여 직접 선을 그려 넣은 것이다(4). 5는 표지 종이와 직물 사이의 접착이 떨어져 시접이 벌어져 있는데 그 사이로 보이는 원래의 색은 선명한 주홍색이며, 그 아래는 소색(素色)의 종이가 배접되어 있고 또 그 아래에 두꺼운 장지를 썼다. 뒷장의 경우 종이가 아니라 팔죽색의 성근

포가 대어져 있는데, 밀도는 11/8, 실 굵기 0.5/0.78mm이며 실을 꼬아서 이어 놓았고 짧은 섬유가 표면에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마섬유로 판단된다(6).



〈그림 15〉 종묘의례속록 1권 부분확대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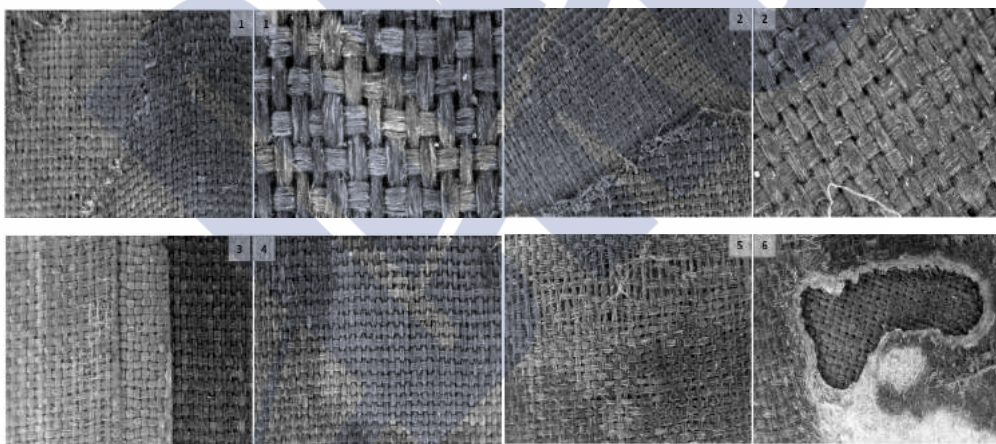
[2권](그림 16)은 1권과 거의 유사한 상태로, 7은 원본 직물이며 8의 손상부위에서 아래에 덧댄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데, 손상부위에 끼워 넣은 직물의 색이 더 진하게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겹이 원본 직물인 것으로 추정된다. 원본 직물의 밀도는 22/14, 실 굵기는 0.41/0.56mm이며 보수용 직물은 밀도 20/13, 실 굵기 0.35/0.51mm로 1권의 보수에 사용된 직물과 유사하다. 9번 및 10번 부위는 접착이 떨어진 상태이므로 안쪽의 시점을 뒤집어 볼 수 있는데 해당 부위에 주홍색이 남아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림 16〉 종묘의례속록 2권 부분확대 이미지(12는 60/160 배율임)

9) 현종효현왕후 부묘도감의궤(憲宗孝顯王后祔廟都監儀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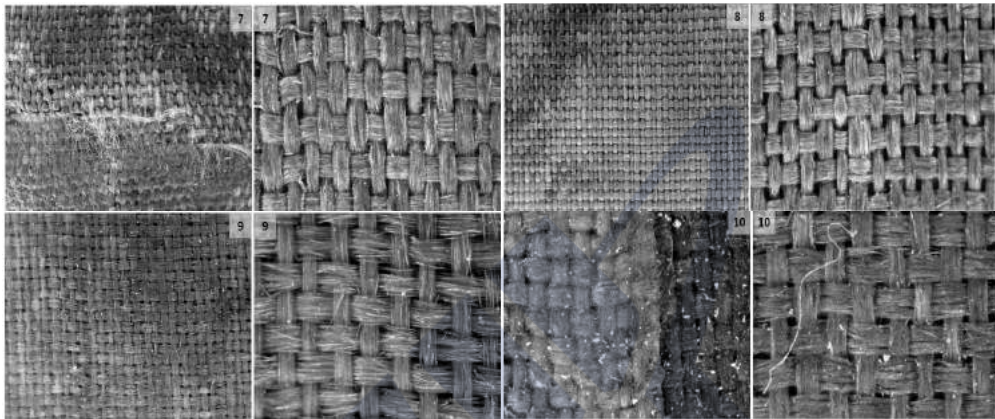
[1권](그림 17)의 표지는 초록색의 평 견직물을 사용하였으며 밀도 22/16, 실 굵기는 0.34/0.51mm이다(1). 일부 보수된 부분이 관찰되는데 보수에 사용한 직물은 밀도 30/17, 실 굵기는 0.29/0.42mm로 원본보다는 좀 더 치밀한 조직의 평직물로 뒤 직물(밀도 30/16, 실 굵기 0.24/0.3mm)(2)과 유사하다. 보수한 부위는 식서방향이 대각선으로 사용되는 등 주의 깊지 못한 처리 및 풀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경화된 것이 눈에 띄며, 헤어진 부분으로 표지 아래 대어진 남색 장지가 드러나 있고 그 아래 직물을 끼워 넣은 것이 보였다(2). 제목은 흰색 평직물로 밀도는 19/19, 실 굵기는 0.3/0.44mm이며, 홍협은 밀도 20/20, 실 굵기 0.26/0.37mm로 역시 같은 직물을 다른 색상으로 염색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3). 원본 직물의 일부분은 변색되어 일부 연둑빛을 띠는데, 표면이 마모되지 않았으므로 습기나 다른 화학적 요인에 의하여 변·퇴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4). 뒤 표지 역시 원본 직물 아래로 남색의 장지가 비쳐 보이며, 헤어진 부분은 그 아래 보수용 직물을 사용한 흔적이 현저하다(5, 6).



〈그림 17〉 현종효현왕후 부묘도감의궤 1권 부분확대 이미지(1, 2는 60/160 배율임)

[2권](그림 18)은 [1권]과 유사한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원본 직물은 앞장 밀도 30/18, 실 굵기는 0.28/0.39mm이며(7), 뒤는 밀도 30/16, 실 굵기 0.26/0.3mm로 거의 동일한 직물로 보인다(8). 보수에 사용한 직물은 밀도 30/17, 실 굵기 0.3/0.41mm로 1권에 사용된 것과 거의 유사하다. 제목의 직물은 밀도 20/20, 실 굵기 0.3/0.43mm이고(9), 홍협의 직물은 밀도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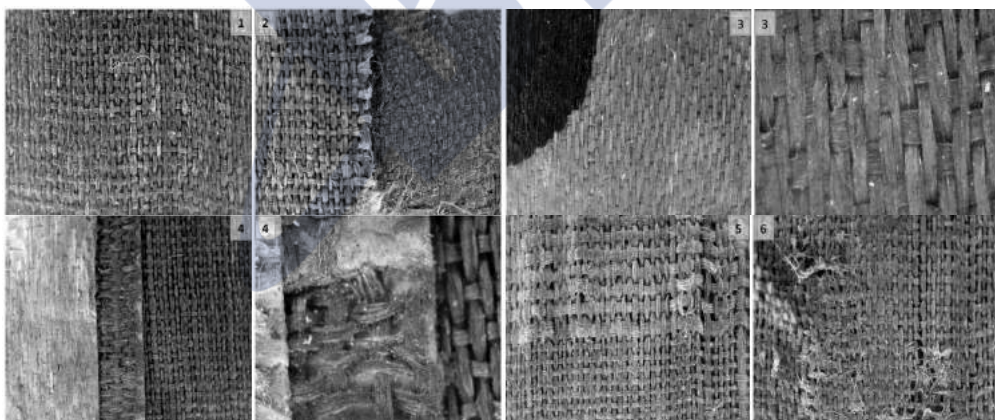
20, 실 굵기 0.37/0.47mm로 1권과 같이 직물을 다른 색상으로 염색하여 사용한 것 같다(10).



〈그림 18〉 현종효현왕후 부모도감의례 2권 부분 확대 이미지(7, 8, 9, 10 각각 60/160 배율임)

10) 순조순원왕후 추상존호도감의례(純祖純元王后追上尊號都監儀軌, 1858년)

평직의 초록색 견직물을 사용하였으며(그림 19) 밀도는 34/16, 실 굵기는 0.25/0.26mm로 경위사에 같은 실을 사용한 직물이다(1). 표지는 보수로 인해 2 겹인 부분이 나타나고 있으며, 보수한 직물은 밀도 28/17, 실 굵기 0.25/0.51mm이다(2). 제목은 5매 경수자 직물(비수 2)에 배접을 하였고 밀도는 42/25, 실 굵기 0.17/0.6mm이다(3). 홍협은 밀도 36/20, 실 굵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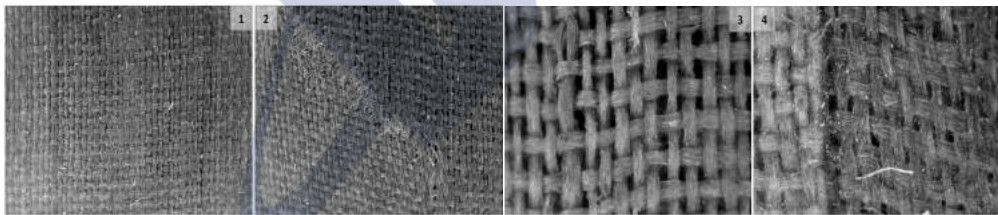
〈그림 19〉 순조순원왕후 추상존호도감의례(1858년 제작) 부분 확대 이미지

0.26/ 0.36mm의 직물을 사용하였다(4). 뒷면 역시 같은 구성을 갖추고 있는데, 단 눈에 띄는 것은 아래에서 10cm 정도 위에 1cm 폭으로 위사가 일부 굵게 사용되어 자칫 줄무늬로 착각할 수 있는 짜임새가 나타나는 것인데 이는 직물 제작시의 오류로 보인다(5). 전반적으로 앞뒤로 마찰에 의한 흔적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수평으로 쌓아 보관하던 중 잡아 빼면서 위의 책 무게 및 위아래의 변철 등 금속제 부속에 의한 쓸림으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6). 뒤 직물의 밀도는 33/15, 실 굵기 0.23/0.33mm로 홍협에 사용된 것과 유사하며 실 굵기의 불규칙함을 고려하면 표지의 원본 직물과도 거의 같다.

11) 순원왕후 부묘도감의궤(純元王后祔廟都監儀軌)

초록색 평 견직물을 사용하였고 장정 원본이며 안의 층이 보수용 직물이다(그림 20-1, 2). 뒤에는 다양한 무늬가 찍힌 남색의 두꺼운 장지만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뒷장의 직물을 떼어 표지를 개장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원본 직물의 밀도는 29/18, 실 굵기는 0.3/0.34mm이고 보수에 사용한 직물은 34/24, 실 굵기 0.31/0.32mm로 약간의 밀도 차이는 있으나 같은 직물로 볼 수 있다.

제목은 흰 평 견직물을 사용하였고 밀도는 31/20, 실 굵기 0.24/0.25mm로 표지에 비해 약간 더 고운 실을 사용하고 조직이 성근 직물이다(3). 홍협의 경우 밀도 30/20, 실 굵기 0.2/0.34mm로 제목과 같은 직물로 생각되나 위사 굵기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현미경 관찰 결과 배접 과정에서 위사가 많이 풀어지며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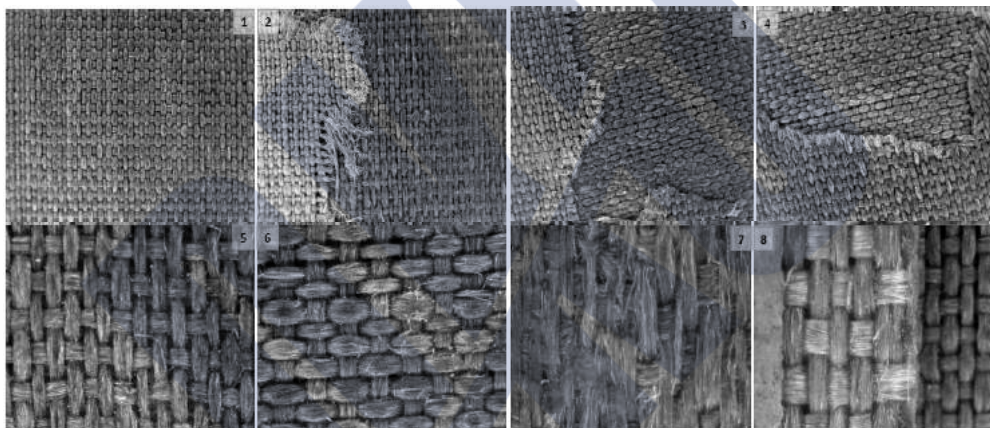


〈그림 20〉 순원왕후 부묘도감의궤 부분확대 이미지

12) 순조순원왕후 추상존호도감의궤(純祖純元王后追上尊號都監儀軌, 1861年)

이 의궤(그림 21)의 표지는 평직의 초록색 견직물이며, 뒤에는 직물이 없고 남색의 장지

만이 남아 있다. 밀도는 33/18, 실 굵기는 0.28/0.29mm로 경위사 굵기가 거의 같다(1). 특이한 점은 왼쪽 및 책 하단의 세 곳의 기운 부분에는 아래 층의 직물도 식서방향을 맞추어 사용하였으나(2), 위쪽의 두 곳 기운 부분은 방향이 다르게 붙여놓은 것이다(3, 4). 2의 직물은 밀도 32/18, 실 굵기 0.27/0.26mm로 구성상의 특징으로 보아 원래 뒤의 직물을 벗겨 수선한 것으로 보인다. 3 및 4의 직물은 각각 밀도 32/16, 실 굵기 0.27/0.26mm, 밀도 34/18, 실 굵기 0.29/0.33mm으로 역시 원본 직물과 유사하여 뒤 직물을 사용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제목은 5매수자 (비수 2)의 흰색 견직물에 묵서로 썼으며 밀도는 46/20, 실 굵기는 0.21/0.55mm이다(7). 홍협은 밀도 24/12, 실 굵기 0.38/0.55mm의 평직물로 겹감과 같은 것으로 추정된다(8).



〈그림 21〉 순조순원왕후 추상존호도감의례(1861년) 부분확대 이미지

13) 순종왕세자 수책시 책례도감의례(純宗王世子受冊時冊禮都監儀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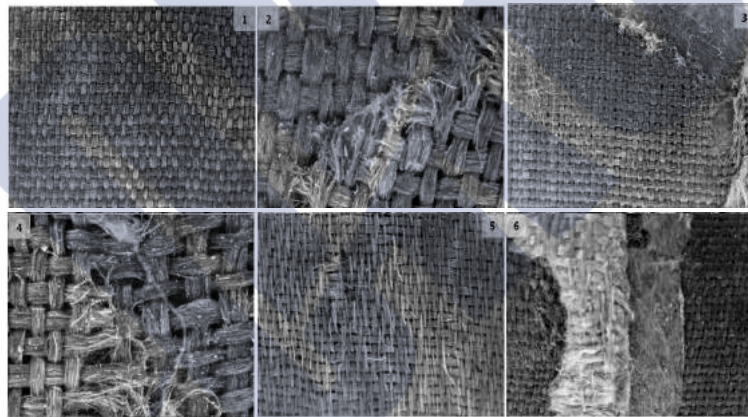
[1권](그림 22)의 앞 뒷면은 모두 평직의 초록색 견직물을 사용하였으며(1) 표지는 밀도 20/21, 실 굵기는 0.31/0.38mm이고, 뒷 직물은 밀도 20/19, 실 굵기 0.3/0.46mm이므로 같은 직물로 생각할 수 있다. 직물은 모두 종이로 배접해 사용하여 직물-종이의 2층 구성이 부분적으로 보이며, 아래쪽의 직물 표면에 접착제 흔적을 여실히 보이고 있어 후에 끼워 넣어 보수한 것임을 알 수 있다(2). 뒷장은 2층으로 되어 있지 않은 곳은 직물 아래로 남색(藍色)의 장지(壯紙)가 드러나 있어, 두꺼운 문양지로 먼저 표지를 만들고 그 위에 얇은 종이를

배접한 직물로 겉 표지를 장정한 것이 확인되었다(3). 뒷면 오른쪽 맨 아래 변철로 고정된 아래로 겉 직물의 식서부분이 일부 노출되어 있어, 원본 장정시에는 의복구성에서와 유사하게 식서 방향을 세로로 하여 사용하였으나 보수과정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을 나타내고 있다(4). 제목은 흰색의 5매 경수자직물(비수 2)을 사용하였고 밀도는 44/20, 실 굵기는 0.27/0.37mm이다(5). 홍협직물은 남아있지 않고 배접에 사용된 종이만 남아 있다(6).

의례사목이 남아 있어 원래 장황에 사용된 품목은 초록색 화화주, 백색 능직, 그리고 홍화화주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목록의 내용과 실제 측정된 결과와의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儀軌」(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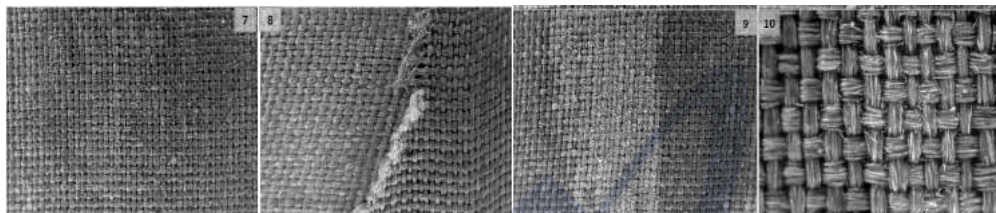
… 御覽儀軌一件內入草注紙 四卷十張 衣次草綠禾花紬二尺四寸 後背靑染紙一張 楮注紙二張 題目次 白綾 長七寸橫一寸一片 紅頰次 紅禾花紬 長七寸 橫五分一片 …



〈그림 22〉 순종왕세자 수책시 책례도감의례 1권 부분확대 이미지

[2권](그림 23)의 앞면은 밀도 32/25, 실 굵기 0.26/0.33mm의 초록색 평직물이다(7). 안쪽에 덧씌운 흔적이 보이며 같은 직물을 사용하였으나 식서 방향이 다르게 사용되었다(8). 손상부를 통해 관찰한 결과 직물-종이, 직물-종이의 2층 구성으로 후에 끼워 넣은 것을 알 수 있다. 변철로 누른 부분은 세로방향으로 밝은 색으로 바래어 일종의 블록을 형성하고 있다(9, 10). 뒷면은 무늬가 찍힌 두꺼운 남색 장지만이 남아 있어 아마도 뒤를 벗겨내어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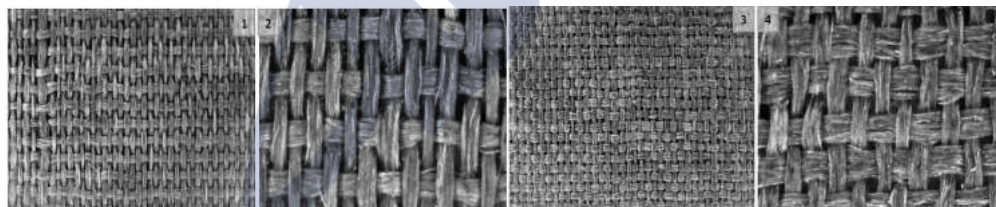
의 수리에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하며, 경위사 방향을 미처 고려하지 못하고 찢어진 자리를 메우는 정도의 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23〉 순증왕세자 수책시 책례도감의케 2권 부분확대 이미지

14) 보인소의케(寶印所儀軌)

표지는 초록색의 평직 견직물이다(그림 24). 표지는 밀도 30/15, 실 굵기 0.33/0.44mm(1, 2), 뒤는 밀도 30/22, 실 굵기 0.26/0.4mm로 뒤 직물의 위사 간격이 경사 간격보다 치밀한 것이 특징이다(3, 4). 직물 제작시의 다양한 변인을 고려하더라도 뒤 직물만 후에 교체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장자리에 일부 접착제가 떨어지거나 찢어진 부분이 발견되었으며 표면에는 상당한 마찰흔이 있다. 특히 뒷면의 경우 변철을 물린 쪽으로 심하게 쓸려 직물의 층이 닳아 없어지고 안에 댄 남색의 장지가 드러나있다. 제목은 밀도 32/22, 실 굵기 0.26/0.4mm의 1/2능직을 사용하였으며 홍협은 밀도 30/20, 실 굵기 0.26/0.24mm의 평직 물로 표지와 유사하지만 실이 보다 가늘고 조직이 치밀한 것이 특징이다.



〈그림 24〉 보인소의케 부분확대 이미지

15) 명성황후 국장도감의케(明成皇后國葬都監儀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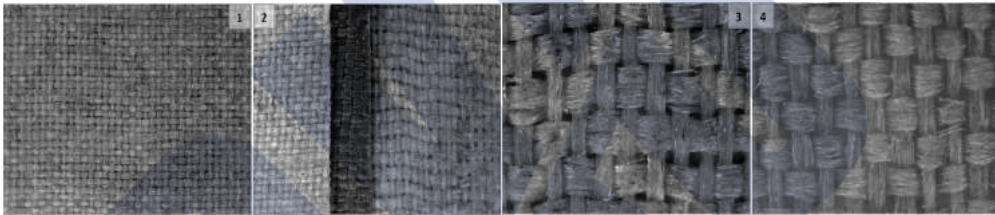
총 5권으로 되어 있으며 황색의 평직 견직물을 사용하였다. [1권](그림 25)의 표지 직물은

밑도 22/14, 실 굵기 0.26/0.58mm로 위사가 훨씬 굵은 평직물이다(1). 제목은 밑도 24/26, 실 굵기 0.25/0.32mm, 홍협은 밑도 25/15, 실 굵기 0.3/0.53mm으로 제목의 것은 다른 직물이고 표지와 홍협은 같은 직물이다(2, 3). 앞장의 흠이 패인 부분 또는 시접의 안쪽에서는 아직 황색이 남아 있었다(4). 뒤는 종이만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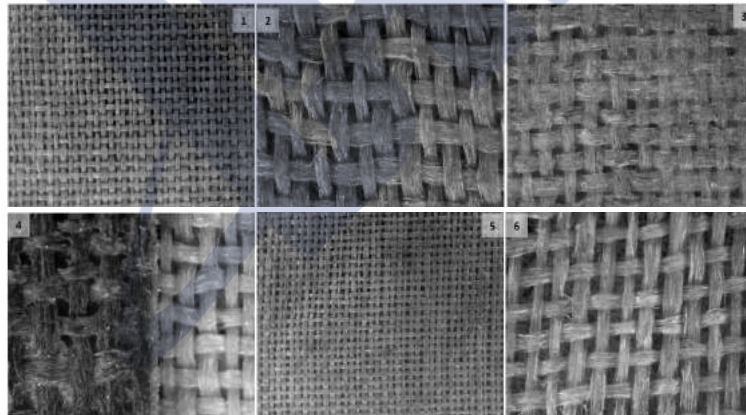
다음은 권말에 「儀軌部」에 실린 내용으로 원본의 장황에 사용된 재료가 나타나 있다.

… 黃禾花紬八尺八寸紅木花紬八尺八寸白禾花紬長八寸廣六寸八片紅禾花紬長八寸廣二寸四片黃禾花紬長八寸廣二寸四片 …

위와 같이 황화화주 8척 8촌, 홍목화주 8척 8촌, 백화화주 길이 8촌 너비 6촌8푼, 홍화화주 길이 8촌 너비 2촌4푼, 황화화주 길이 8촌 폭 2촌4푼을 사용하였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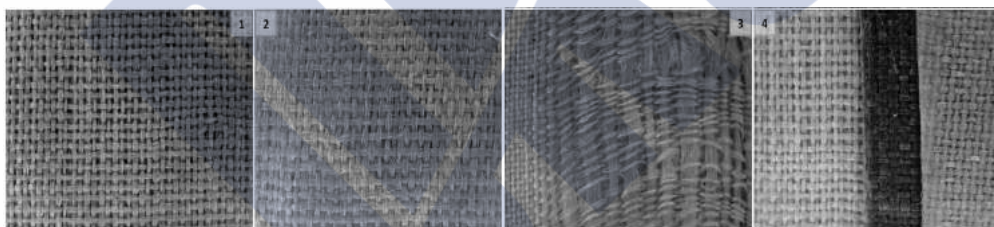
〈그림 25〉 명성황후 국장도감의례 1권 부분확대 이미지



〈그림 26〉 명성황후 국장도감의례 2권 부분확대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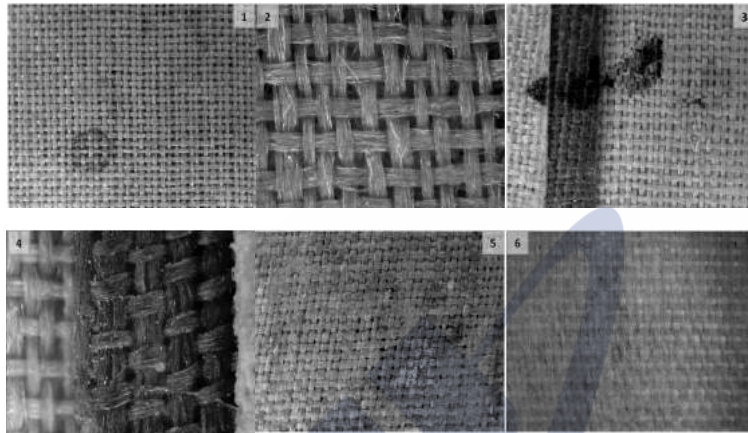
[2권](그림 26)의 앞 뒤 표지 모두 상태가 양호한 편이며 원본 직물이 남아있다. 앞 표지는 밀도 25/23, 실 굵기 0.25/0.26mm이며(1, 2), 제목은 밀도 25/23, 실 굵기 0.22/0.29mm로 유사하여 같은 직물로 생각된다(3). 홍협(紅協)의 직물은 밀도 25/15, 실 굵기 0.24/0.45mm로 위사가 더 굵은 다른 직물이며 1권의 표지 및 홍협에 사용된 것과 같은 종류이다(4). 뒤 표지는 밀도 25/23, 실 굵기 0.25/0.27mm로 표지와 같으며 상대적으로 노란빛이 남아있다(5, 6).

[3권](그림 27)의 표지와 뒤 모두 원본 직물이 남아있다. 표지는 밀도 27/20, 실 굵기 0.27/0.29mm이고(1) 뒤는 밀도 26/20, 실 굵기 0.25/0.3mm로 같은 직물이다. 뒤 직물과 종이를 배접한 접착제가 역할을 다 하여 거의 분리되었으나 대신 표지에 비해 색상은 더 잘 남아 있고(2), 표지의 종이는 장지가 아닌 내부와 같은 초주지를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표지의 경우 종이 배접이 분리된 부분 안쪽으로 직물의 식서 부위를 발견 할 수 있는데, 빛이 차단되어 있었던 만큼 원래의 선명한 노란색이 잘 남아 있어 원래의 색을 추정하는데 도움이 되었다(3). 제목의 흰 비단과 홍협(紅協)의 비단은 각각 밀도 21/26, 실 굵기 0.28/0.3mm, 밀도 25/15, 실 굵기 0.28/0.48mm로 제목의 것은 표지와, 홍협의 것은 2권에 사용된 것과 같은 직물이다(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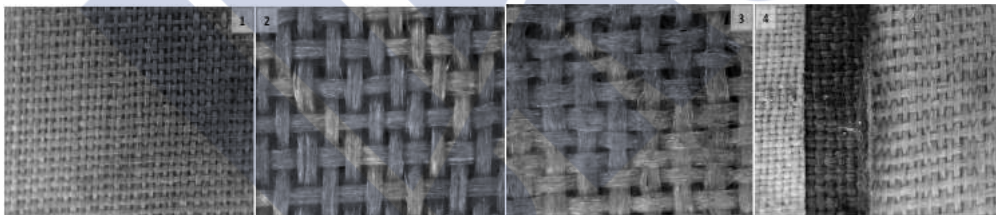
〈그림 27〉 명성황후 국장도감의례 3권 부분확대 이미지

[4권](그림 28)의 표지와 뒤 모두 원본 직물이 남아있으며 앞보다는 뒤 표지의 상태가 더 양호하다. 앞 표지는 밀도 24/24, 실 굵기 0.25/0.31mm이며 뒤 표지는 밀도 25/19, 실 굵기 0.25/0.3으로 1, 2, 3권의 표지와 같은 직물이다(1, 2). 제목은 밀도 23/22, 실 굵기 0.27/0.39mm로 이와 유사하며(3), 홍협(紅協)은 밀도 24/16, 실 굵기 0.31/0.5mm로 다른 권의 홍협과 같은 직물이다(4). 뒤 표지는 대체적으로 앞에 비해 상태가 양호하나 일부 오염으로 인해 얼룩진 부분이 눈에 띄었다(5). 배접이 분리된 틈으로 안쪽 시접을 관찰한 결과 훨씬 선명한 노란색이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6).



〈그림 28〉 명성황후 국장도감의례 4권 부분확대 이미지

[5권](그림 29)의 표지는 원본 직물이 남아 있으나 뒤는 탈락되고 종이만 남아 있다. 표지는 밀도 24/18, 실 굵기 0.25/0.27mm로 다른 권의 표지와 동일한 직물이다(1). 제목의 직물은 밀도 24/23, 실 굵기 0.3/0.3mm로 표지와 같은 것으로 생각되며(3), 홍협은 밀도 25/15, 실 굵기 0.27/0.38mm로 다른 권의 홍협과 같이 위사가 좀 더 굵은 평직물이다(4).



〈그림 29〉 명성황후 국장도감의례 5권 부분확대 이미지

16) 효정왕후 부모도감의례(孝定王后附廟都監儀軌)

황색의 평직 견직물을 사용하였다(그림 31-1). 밀도는 21/22, 실 굵기는 0.24/0.45mm로 위사가 더 굵은 평직물이다. 앞 표지는 일부 보수한 흔적이 역력하며, 맨 위의 직물이 원본표지, 그 아래 황색의 장지, 그 아래 보수용 직물이 사용되었다. 보수에 사용한 직물은 밀도 20/22, 실 굵기 0.33/0.42mm로 유사하며, 뒤 표지는 황색의 종이만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뒤 직물을 벗겨 보수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수한 부위의 식서방향을 맞추지 못한

것은 아쉽다(2). 제목은 흰 비단에 먹으로 쓰고 홍협으로 마감하였다(3). 제목은 밀도 20/22, 실 굵기 0.32/0.43mm이며 홍협은 밀도 20/16, 실 굵기 0.31/0.38mm로 유사하여 표지 직물, 제목과 홍협의 직물은 같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30〉 효정왕후 부묘도감의례 표지 사진(앞/뒤)

본문 중에 「의례」 사목이 들어 있어 그 내용을 살펴 보면 종이로는 황홍염지 각 2장, 유 지 2장을 구입하였고, 직물로는 황홍화화주 각 2척4촌, 백화화주 길이 7촌 폭 1촌2푼, 홍화 화주 길이 7촌 폭 5분2편을 어람용 의례의 장황에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實入(143)

… 一月乃黃紅禾花紬各兩尺四寸白禾花紬長七寸廣一寸二片紅禾花紬長七寸廣五分
二片紅染布十六尺寸 …

홍협의 직물은 ‘紅’이라 한데 비하여 표지 직물은 ‘黃’이라 하지 않고 ‘黃紅’이라 한 것이 의문점인데, 13879의 명성황후 국장도감의례의 경우 황색은 ‘黃’으로 표기하고 있다. 따라서 황홍색은 황색과는 다른 색이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은 홍화의 황홍즙 염색이다. 단, 황홍즙 염색은 비단에 할 경우 주홍색으로 보이게 되므로 현재 직물의 황색과는 차이가 있다. ‘黃紅’이라 한 뒤 장지 또한 현재는 황색으로밖에 보이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색명 체계에 관한 정보 또는 실제 직물의 염료 분석 결과가 뒷받침 되어야 홍화의 붉은 카타민 색소가 먼저 퇴화되어 노란색만이 남았는지, 아니면 이러한 황색을 황홍이라 칭한 것인지를 가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1〉 효정왕후 부모도감의례 부분확대 이미지

〈표 3〉 표지 장황의 색도 분석 결과 (CIE L*a*b*)

No.	Vol.	part	L*	a*	b*
14220	1	표지바탕	39.02	-4.92	-2.58
		무늬	37.07	-3.61	-1.38
		제목	53.49	1.48	12.88
		장제목	56.29	1.76	13.44
	2	표지 바탕	42.99	-6.04	-11.05
		무늬	46.06	-5.9	-9.43
		제목	69.8	0.5	12.16
		장제목	71.66	0.7	11.8
	3	홍협	40.13	19.18	17.33
		표지바탕	44.62	-5.98	-7.99
		무늬	41.56	-5.27	-7.25
		제목	64.05	0.89	11.63
	4	장제목	67.1	1.06	12.36
		홍협	38.7	17.3	15.82
		표지바탕	40.66	-5.56	-8.15
		무늬	44.46	-7.07	-6.43
14237		제목	66.77	0.13	10.8
		장제목	69.66	0.87	13.05
		홍협	39.14	16.75	14.14
14237		표지	43.53	-5.91	12.47
		보수부분	41.13	-4.09	12.93
		제목	53.54	3.1	16.84
13296	1	표지	31.72	-5.33	5.11
		보수부분	31.73	-5.19	6.04
		제목	52.69	2.45	15.14
		뒤	33.83	-5.28	6.61
		뒤 변색	45.11	-3.43	19.9

No.	Vol.	part	L*	a*	b*
	2	표지	31.56	-4.30	6.51
		제목	62.11	1.58	15.37
		뒤	39.23	-9.91	9.28
		뒤 변색	31.43	-6.27	6.91
		뒤 보수	36.59	-7.08	12.44
13632	1	표지 바탕	49.11	-8.82	22.86
		무늬	42.68	-10.55	11.05
		제목	68.06	1.43	13.2
		홍첩	44.87	35.59	27.73
		표지	50.85	22.58	19.87
		제목	71.94	2.47	18.47
	2	표지 바탕	52.65	-9.26	16.75
		무늬	44.38	-8.86	5.58
		제목	69.54	1.17	10.7
	3	표지 바탕	49.18	-11.33	23.24
		표지 무늬	40.68	-10.73	10.47
		제목	71.42	1.23	12.71
		홍첩	42.64	33.93	19.44
		제목 뒤 표지	45.4	-12.75	26.33
		뒤 무늬	40.15	-11.26	13.7
13968		표지	32.47	12.72	15.57
		표지 안쪽 시접	29.43	17.9	15.37
		뒤	44.68	14.15	20.29
13964		표지	40.15	-5.33	6.81
		뒤	42.77	-11.57	11.12
14316		앞	46.27	-1.76	9.8
		표제	44.38	2.98	12.74
		뒤	57.68	-6.59	3.76
		뒤 안	60.64	-6.84	1.61
14223	1	표지	54.09	7.69	20.83
		보수부분	44.4	23.84	22.96
		뒤	54.8	13.34	23.91
	2	표지	37.36	9.66	17.52
		보수부분	49.41	30.7	24.24
		시접 안쪽	44.25	38.46	28.2
		뒤	48.77	7.87	8.85

No.	Vol.	part	L*	a*	b*
13796	1	표지	37.41	-5.41	8.51
		보수부분	38.36	-5.88	11.4
		제목	56.3	1.86	14.02
		뒤	51.54	2.08	13.68
	2	표지	37.97	-3.93	9.39
		보수부분	36.71	-4.5	8.93
		제목	51.72	2.4	14.79
		뒤	38.17	-7.83	10.99
	3	뒤 보수부분	42.01	-7.93	16.02
		표지	37.33	-5.57	8.28
		보수부분	40.52	-6.24	12.48
		제목	55.01	1.83	14.09
13359		변색부분	35.97	-8.38	8.85
		표지	36.11	-5.33	11.48
		보수부분	35.81	-5.49	11.32
		제목	51.34	2.21	13.68
13703		뒤	34.41	-8.73	11.96
		표지	41.67	-5.48	12.5
		보수부분	36.76	-3.43	10.48
		제목	50.61	2.42	14.2
13365		표지	42.43	-5.56	12.87
		보수부분	38.16	-5.1	11.95
		변색부분	39.91	-4.94	12.17
		제목	62.51	1.6	13.69
13168	1	표지	37.21	-7.51	13.5
		보수부분	37.15	-9.35	13.38
		제목	48.66	2.24	13.47
		뒤	35.68	-5.21	9.74
	2	표지	36.16	-5.36	10.79
		보수부분	42.83	-6.72	17.46
		제목	48.08	2.51	14.97
		뒤	41.49	-3.7	15.51
14217		표지	44.93	-4.68	16.39
		보수부분	37.8	-4.9	12.05
		제목	56.14	2.36	14.45
		뒤	35.8	-8.55	11.38

No.	Vol.	part	L*	a*	b*
13879	1	표지	56.53	3.05	17.43
		제목	53.82	3.93	16.89
		뒤	73.16	2.27	28.27
		뒤 안쪽 시접	73.03	1.77	53.02
	2	표지	49.47	3.81	18.78
		제목	54.02	4.3	18.51
		표지 안쪽 시접	69.02	3.88	41.26
		뒤	64.72	3.5	29.28
	3	3. 안쪽원본	69.32	7.62	56.77
		3-뒤안쪽	65.5	3.38	41.15
		3-뒤겉	67.2	4.59	41.59
		표지	59.59	3.96	23.7
	4	제목	57.57	3.76	17.76
		보수부분	58.22	3.66	23.4
		표지	58.48	3.56	22.58
		제목	56.48	4.01	16.85
	5	뒤	64.08	3.74	34.9
		표지	61.39	3.78	25.58
		제목	60.65	3	17.23
13835		표지	56.22	6.23	26.71
		보수부분	58.62	2.35	18.68
		표지 안쪽 시접	68.35	10.52	32.31
		제목	57.03	2.86	13.61

IV. 맺음말

규장각 소장의 어람용 의례의 표지 상황의 현 상태를 조사하고 사용된 직물소재의 구성 특성을 분석하였다.

어람용 의례의 직물 표지는 대부분 초록색 평직 비단(禾花紬)을 사용하고, 평직 또는 능직의 흰색 비단으로 제목을 하였으며, 이를 붉은색으로 염색한 홍협을 둘러 마감하는 구성

을 취하고 있다. 무늬가 있는 견직물 표지를 사용한 종묘의례와 경모궁 의례를 제외하면 19세기 후반 대한제국 이전까지의 어람용 의례는 이러한 장황 형식을 취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자료목록의 어람용 의례 가운데에는 의례사목이 수록되어 있는 경우가 드물어 각 책의 정확한 제작 지침 및 귀중본에 한하여 문직물을 사용한 경위를 자세히 파악할 수 없는 것이 아쉽다. 프랑스에서 반환된 자료 가운데 많은 어람용 의례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장서각 및 중앙박물관 소장의 다른 어람용 의례를 아우르는 실물조사 및 의례사목의 연구가 이루어져 조선시대 의례 장정의 전반적인 내용과 사용한 직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파악하여 추후 자료의 보존 관리에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일부는 이미 복제를 마친 경우도 있으나 그 과정에서 표지 장정에 관해서 어느 정도의 조사가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었다. 어람용 의례의 경우 그 제작 전반에 대한 지침 중 표지 직물 역시 중요한 구성 요소의 하나임을 상기하고 직조와 염색에 관한 부분까지 상세하게 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문헌

- 김문식(2010). 『儀軌事目』에 나타나는 의례의 제작 과정. 규장각 37.
- 조계영(2006). 조선왕실 봉안서책의 장황과 보존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경기도, 대한민국.
- 홍종진(2006). 전통 책 장정. 청주기록유산보호훈련워크숍(편집자), “The 3rd Regional Training Workshop on Documentary Heritage”, 청주:UNESCO.

Analyses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ver-Fabrics of the Book(Uigwe) for the King(Eoramyong), Collected in the Kyujanggak

Ryu, HyoSeon · Lee, BoYoung* · Hur, HyunJoo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Laboratory of Archaeology and History of Art, University of Oxford, U.K.

Abstract

Among the book of paintings of royal ceremonial rites(uigwe), collected in the Kyujanggak(an imperial library), the book cover decorated with silk fabrics were selecte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fabrics and present condition. These results can be utilized to establish the data base for the conservation of the book, the selection of the materials for the copy works, and care and redecoration process of the book.

The plain greenish silk fabric(whawhaju) was used as a book cover, plain or twill white silk fabric was used as base for the title of the book and this white title base were surrounded with narrow red silk fabrics. Jacquard silk fabrics were used for the cover of JongMyo uigwe and KyungMo Palace uigwe. Except these two books, the others showed similar cover format.

As the production process of the books are very rarely informed, especially on the usage of silk fabrics as a book cover, it's almost impossible to figure out out how the fabrics are used to make the cover of the book.

Key Words : uigwe, silk, book cover, Kyujanggak



천의(薦衣 · 襦衣) 용도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이명은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논문요약

이 연구는 조선시대의 다양한 복식 중 하나인 천의에 대하여 문헌을 살펴 올바른 정의를 내리고 관련 유물을 조사하여 용도의 다양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천의는 한자어 ‘薦衣’ ‘襦衣’로 기록되어 조선 후기부터 나타나는 복식 용어로 속음으로 ‘처네’라고도 불리었다. 용도가 다양하여 간편한 이불 대용, 어린이의 포대기, 여성의 머리쓰개로 사용되었다. 유물을 통해본 천의의 기본 형태는 치마와 모양이 비슷하면서 윗부분에 저고리 모양과 같은 깃과 흰색 동정이 달려 있으며 중심부에는 주름이 몇 가닥씩 잡혀있다.

이불 대용 천의는 이불 보다는 크기가 작으며 추운 날 방 안에서 책을 읽는 등 소일할 때 이불 대신에 간편하게 사용하였다. 머리 천의는 기본 형태는 같으나 깃의 양쪽에 고름을 달아 여밈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쓰개치마와 유사하나 조금 작은 편이다. 조선 말기에 여성들이 외출할 때 얼굴을 가리기 위한 쓰개로 사용하였다. 포대기용 천의는 아기를 업을 때 두르는 것으로 기본 형태에 좌우 측에 끈이 달린 것이 특징이다.

주제어 : 천의(薦衣 · 襦衣), 처네, 포대기, 머리천의

* Corresponding author : Lee, MyungEun, E-mail : joohee320@naver.com

투고일 : 2016.11.15 심사개시일 : 2016.11.21 심사완료일 : 2016.12.07 게재확정일 : 2016.12.11

I. 서 론

조선시대 복식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많은 변화를 가져와 액주름과 같이 17세기 이후 소멸된 복식이 있는가 하면 중치막, 창의, 도포와 같이 17세기 이후 새로이 나타나거나 급속하게 유행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장옷(長衣)과 같이 입는 옷에서 쓰개로 용도가 변화된 복식도 있으며 답회(搭護)와 같이 조선 중기 까지 반소매(伴袖) 형태의 옷이 후대에 소매 없는 긴 조끼로 형태가 변한 것도 있다. 천의도 시대 변화의 중심에 있는 복식이라 할 수 있다. 천의는 한자어 ‘薦衣’ ‘襦衣’로 기록되어 조선 후기부터 나타나는 복식 용어로 속음으로 ‘처네’라고도 불리었다. 하나의 용어에 쓰임이 다양하여 ‘조선시대 서민층 부녀자들이 방한을 겸해 착용한 내외용 쓰개’ 또는 ‘아기를 업을 때 두르는 끈 달린 이불’¹⁾로 정의되고 있으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여 정의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연구자는 이에 주목하여 역사 자료에서 천의 관련 용어를 중심으로 본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를 찾아보려 한다. 그리고 천의 유물을 조사하여 적합한 용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문헌을 통해 본 천의 명칭과 용도

1. 천의와 처네 명칭

천의는 한자어 ‘薦衣’ ‘襦衣’, 한글은 ‘천의’로 표기되며 속음으로 ‘처네’라고 불리운다. 한

1) 강순제 외(2015). 한국복식사전. 서울:민속원. p.681, p.685.

처네 : 자료검색일 2016. 11. 10, from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15692&cid=42407&categoryId=42407>

http://www.culturecontent.com/content/contentView.do?content_id=cp021310100001

차어와 한글로 된 천의의 명칭은 19세기 이후 문헌에서 볼 수 있다. 뒤에서 소개될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를 비롯한 한문 역사자료에는 ‘薦衣’로 표기되며 『宗妃慶嬪金氏順和宮嘉禮時節次』, 한문본 궁중발기류 등에는 ‘衣’가 추가되어 ‘襦衣’로 표기되어 있다. 그리고 『규합총서(閨閣叢書)』, 『연행가』, 궁중발기 등 한글 자료에는 한자어 독음을 그대로 표기하여 ‘천의’로 표기되어 있으며 현대에 ‘천의’로 음운 변화하였다.

천의는 현대에서 ‘처네’라고도 불리우지만 역사자료에서 상관성을 찾기는 어렵다. 근세 기록인 『수정증보조선어사전(修正增補朝鮮語辭典)』(1942)²⁾에서 천의 항목을 찾았을 때 ‘처네를 찾아보라’는 지시어가 있어, ‘천의=처네’라는 사전적 의미만이 확인된다. 이 외의 기록은 밝혀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천의를 처네라고 한 것은 구전으로 퍼진 속음으로 보여진다. 한가지 예로, 어린아이들의 놀잇감인 그네가 ‘그녀→그네’로 변화된 것과 같이 ‘천의→처네’ 또한 음운변화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민속조사³⁾에서 흔히 처네로 칭한 것이 확인된다.

2. 천의의 형태와 용도

역사 자료에서 천의와 관련한 기록은 19세기부터 보이기 시작하며 하나의 용어에 여러 가지의 쓰임으로 표현되어 있다.

조선후기 시문집인 『정암집(貞菴集)』(1799)⁴⁾에서 화염 속에서도 천의(薦衣)를 덮고 있었던 덕분에 가족을 구하였다는 기록에서 천의가 이불처럼 덮는 물품임을 짐작할 수 있다. 천의가 어떤 형태인지, 용도는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1820년경)에 좀 더 상세히 밝히고 있다. 섬용지(贍用志) 편에서 횡답(橫搭)을 세속에서 ‘薦衣’라고 한다 하였다. 횡답은 중국 송나라의 운서(韻書)인 『광운(廣韻)』에 ‘小被也’라 하여 작은 이불로

2) 文世榮(1942). 『修正增補朝鮮語辭典』. 朝鮮語辭典刊行會.

【천의】名 「처네」에 보라

【처:네】名 ① 어린애를 업을 때에 두르는 끈이 달린 작은 이불 橫搭

② 시골 부녀가 머리에 쓰는 방한구의 한 가지

3) 홍나영(1995). 女性 쓰개의 歷史. 서울:학연문화사, p.181.

4) 閔遇洙(1799). 貞菴集, 卷之十 次子進士墓誌(차자진사묘지) 附行蹟略.

船中失火. 火焰焱發於其母所在草蓆上. 兒自船之南躍入其母之側. 引其母出置船之廚間. 又旋入火焰中. 引出幼妹. 則火已始然於所覆薦衣之一邊矣. 遂皆得生. 其母後又語余曰吾每憂吾兒之弱. 向於舟中火發時. 既出其母. 又引其妹. 勇銳無比. 絕不類弱男子也.

소개되었다.

광운(廣韻)에서 횡답은 작은 덮개이다. 지금 세속에서 소위 **천의(薦衣)**라고 하는 것인데 옛날 횡답의 유제이다. 색주(色紬)를 사용하고 [겉은 자색, 녹색, 금향색 등을 사용하고 안감은 청색이나 녹색 등 마음대로 한다, 솜을 넣어 활행선[너른누비]으로 누빈다. 몸체는 이불 보다 작고 위는 둥글고 아래는 직선으로 되어, 앉아서 덮으면 허리와 무릎을 덮을 수 있다. 누워서 덮으면 따뜻해서 노인이나 병자에게 더욱 편하다. <임원경제지>⁵⁾

이 기록에서 천의는 상부는 둥글고 작으며, 하부는 직선형태이다. 색상은 겉감은 자색, 녹색, 금향색 등으로 다양하다. 안감으로 소색이 아닌 색주를 사용한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귀한 물건임을 짐작케 한다. 솜을 두어 누빔하였으며, 크기가 이불 보다 작고 앉아서 덮을 수도 있다고 하였다. 내용으로 보아 천의가 이불의 일종으로 책을 읽거나 하는 소일거리를 할 때 이불 대신 보온용으로 간편하게 사용되었을 것이다.

천의가 보온용이며 이불의 한 종류라는 사실은 가정 살림에 관한 내용의 책인 『규합총서(閨閣叢書)』⁶⁾(1809)에도 보인다. 천의를 한글 ‘천의’로 표기하였으며, 솜이 5근(斤)일 때 9줄이 된다고 하였다. 이불과 요 사이에 천의가 기록되어 있으므로 침구류에 속하며, 솜이 사용되었으므로 보온용으로 볼 수 있다. 또한 9줄이라는 것은 5근의 솜을 사용하여 9줄 누빔을 하였다는 의미로 보여진다.

19세기 문헌인 『광재물보(廣才物譜)』⁷⁾에는 한자어 ‘寢衣⁸⁾’를 ‘천의’로 표기하였다. 함께 기록된 여타 명칭이 이불, 이불깃, 홋이불 등인 것으로 보아 침구류의 하나로 해석이 가능하다.

5) 徐有渠(1820년경). 林園經濟志. 贍用志 卷3 “襦”

廣韻橫襦小被也 今俗所謂薦衣 卽古橫襦之遺制也 用色紬[表用紫綠錦香等色, 裏用青或綠隨意 裝綿絮 潤行線縷 體小於被 而上圓下方 坐可以擁護腰膝 臥可以加被取溫 老病者 尤所便也]金華耕讀記.

6) 憑虛閣(1809). 閨閣叢書 卷之二 ○ 천의

흔 거죽 이십오척이 들고 솜을 다섯근이면 아홉줄이되느니라. → 천의에 소요된 옷감 25척은 2자 5치의 오기로 보여진다.

7) 廣才物譜(19세기). 卷2 衣服部

衾 이불 / 被巾 이불깃 / 襖 홋이불 / 寢衣 천의 / 被褥子 이불깃 / 錢襦子 글냥 / 褥 요 / 枕 버기 / 木枕 목침 / 長枕 장침 / 摺枕 접침 / 四方枕 스방침

8) 침의(寢衣)는 徐兢(1123)이 지은 『고려도경(高麗圖經)』 제29에도 ‘수침(繡枕)’과 함께 기록되어 있어 이불의 한 종류임을 알 수 있다.

조선 말기 궁중 기록의 하나인 발기⁹⁾에도 ‘천의’ ‘襦衣’¹⁰⁾의 표기로 이불과 함께 기록되어 있다. 주로 금침 관련 발기에서 침枕 : 베개, 금衾 : 이불, 천의[襦衣], 노[褥 : 요]의 순으로 표기된 것으로 보아 이불과는 다른 용도임을 알수 있다. 앞서의 기록에서 일반 이불 보다는 간편한 이불임을 알수 있다. <Table 1>¹¹⁾에서 천의는 초록색, 자색, 남색, 금향색, 분홍색, 두록색으로 색상이 다양하고 구성은 겹 천의, 쟁친 겹 천의, 남작누비 천의, 겹누비 천의, 오목누비 천의, 잔누비 천의, 솜 천의 등의 형태이다. 천의감으로는 수화주, 왜주, 왜중, 정주, 화사주, 갑사, 은조사 옷감¹²⁾을 사용하는 등 주로 무늬 없는 평견 직물을 많이 사용하였다. 특히 돌 이전의 어린이는 초록색 계통이 많이 사용되었고 분홍색 천의는 혼례를 앞둔 처자의 것이다. 금향색은 현종이 경빈김씨와의 혼례 시기에 옷전에서 내려보낸 깃동도의서호오신의덕의복기소 중에서 현종의 의대에 포함되어 있다.¹³⁾ 금향색은 『임원경제지』에 기록된 천의 색상과 시기적으로 일치성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1> 장서각 소장 궁중 발기 중 ‘천의’ 기록

행사 명	색상	옷감	구성
당미가례시일기(1847)	초록, 자색, 분홍, 남색, 금향색	수화주, 문주, 은조사	누비, 오목누비, 잔누비
계수(1883)십월길례시의화군의복불기	초록, 남	수화주, 왜주, 은조사	솜, 남작누비, 겹누비, 쟁친 겹
계수(1883)십월길례시불기	분홍	왜중	솜
길례시금침의복불기	분홍, 남, 자색, 초록	왜주, 수화주, 은조사	솜, 남작누비 잔누비 쟁친 겹, 겹

- 9) 韓國精神文化研究員(1994). 古文書集成 十二 - 藏書閣篇 III.
- 10) 『당미시가례일기』에는 ‘천의’와 동일한 내용이 규장각 소장의 한자본 『宗妃慶嬪金氏順和宮嘉禮時節次』(1848)에는 ‘衣薦衣’로 표기되어 있다.
- 11) 이명은(2003). 궁중발기에 나타난 행사 및 복식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재구성.
- 12) 이은진(2004). 19~20세기 초 견직물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참조.
수화주 : 중국과 조선의 성천(成川)에서 생산한 평견 직물. 예복용 보다는 두루마기나 저고리 소재로 사용되었다.
왜주(倭紬) : 수화주와 같이 평상복 옷감으로 널리 사용된 평견 직물.
왜중(倭繒) : 울이 치밀하게 짜여진 평견직물.
화사주(花紗紬) : 명주보다 울이 고운 평견 직물.
정주(鼎紬) : 평상복 소재의 평견 직물, 주머니 철릭의 안감, 속옷의 소재로 사용되었다.
은조사(銀條紗) : 2울씩 교차된 2경교(二經絞)의 의직물(摺織物). 무늬가 없는 매우 얇아 비쳐 보이는 견직물.

13) 이명은(2003). *op. cit.* pp.64-65.

행사 명	색상	옷감	구성
금침 불기	초록, 자색 분홍 남색	왜주, 화방주, 수화주 은조사	납작누비, 누비, 오목누비, 쟁친 겹, 겹
당희(1827)칠월원손아기시삼일뷰터삼 칠일그디힐호야보내오시니	초록	광주, 정주, 수화주	오목누비, 누비
무술(1898)스월아기시빅일의복불기	두록	수화주	누비
무술(1898)구월아기시돌싱신의복불기	적적	수화주	누비
당유(1897)십월십오일황조아기시삼칠 일의복호온불기	초록	수화주	누비
임조(1912)칠월추(秋)역만세 휴갑 탄일의티불기	초록, 남, 보라, 초록	수화주, 화사주, 갑사	오목누비, 잔누비, 솜, 겹
당스(1917)추(秋) 정화당 의복츠불기	초록	삼팔	솜

〈Fig. 1〉는 신윤복의 〈기방무사(妓房無事)〉의 한 부분이다. 기녀와 함께 있는 양반네가 누비이불을 덮고 있다. 장면이 대낮이고 방문이 열린 상태로 보아 덮고 있는 이불은 잠잘 때 덮는 일반 이불보다는 좀 더 간단한 침구류로 보여진다. 이러한 모습이 이불 대용으로 사용한 천의로 추정된다.



〈Fig. 1〉 신윤복의 妓房無事 부분, 간송미술관 소장
From 韓國의 美19—風俗畫(1985), p.152.



〈Fig. 2〉 부분 확대

천의는 간편한 이불로 사용된 사례 외에도 쓰개용으로 사용된 기록이 확인된다.

『당미가례시일기』(1847)¹⁴⁾는 정미년(丁未年) 10월에 행한 헌종과 경빈김씨의 가례를 위

해 마련된 복식류를 기록한 책이다. 이 가운데 하나인 〈동도의서호오신의의복기소〉¹⁵⁾는 신정왕후 조씨가 헌종과 경빈김씨에게 내린 물목으로, ‘머리천의’가 기록되어 있다. 초록색 수화주 누비 천의, 자적 문주 오목누비 천의와 함께 ‘자적 수화주 누비 머리천의[마리천의]’가 별도로 마련된 것이다.¹⁶⁾ 이불 대용 천의 기록과는 차별되는 것으로 수식어 ‘머리’가 있는 것을 볼 때 쓰개 용도임을 알 수 있다. 조선 말기 홍순학(洪淳學)이 서장관으로 청나라에 다녀와서 쓴 기행가사(紀行歌辭)인 『연행가(燕行歌)』(1866)¹⁷⁾에서도 머리천의가 확인된다.

기집년들 불작시면 더고나 흥괴코나, 통통호고 크다호연 살갈이 푸르죽죽, **머리천의** 갓
튼 거슨 뒤로 길게 느려쓰고, 스미좁은 저구리의 주름업는 긴스미를 엉벗티여 휘두르고
훼적훼적 곤고나 〈연행가〉

여자들이 머리천의를 쓰고 있는데 길게 뒤쪽으로 늘어트린다고 하여 머리천의가 여성의 쓰개의 하나이고 착장하였을 때 길이가 길고 뒤쪽으로 늘어진 형태라는 것이다. 『조선여속고(朝鮮女俗考)』(1927)에는 천의가 함흥 북청 등지의 기생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장옷 보다 짧으며 백양목으로 짓는다¹⁸⁾고 하였다. 쓰개용 천의는 장옷 보다 짧고 간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홍나영¹⁹⁾은 민속 조사를 통해 천의가 쓰개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치네는 착용시 전면의 모습이 장옷과 비슷하나 장옷 보다 길이가 짧으며 소매가 달려 있지 않고 머리 부분에 주름을 마주 보게 잡아 이마에 오게 하였으며 이마 부분에 동정이 있고 복건과 같이 고름을 달아서 뒤로 잡아맸다. 하층 계급에서 숨을 두어 방한용으로 사

14) 황문환 외(2011). 정미가례시일기 주해. 경기:한국학중앙연구원. 참조.

15) 동조(東朝)란 거쳐하는 궁궐이 왕의 법궁(法宮)의 동쪽에 위치한 대비(大妃)를 뜻하는 것으로 정미년 시기의 대비는 효명세자비 신정왕후 조씨이다.

16) 이명은(2003). *op. cit.* p.165.

초록	수화두	누비	천의
즈덕	문두	오목누비	천의
즈덕	수화두	누비	*마리천의

17) 홍중선, 백순철 공저(2005). 연행가. 서울:신구문화사. p.137.

18) 李能和(1927). 朝鮮女俗考. 翰南書林. 제20장.

屋橋 長衣・藏衣조 ○婦女蔽面制度：~咸興北靑等處 則妓用**薦衣**호니 較短於藏衣 而以白洋木爲之호고~

19) 홍나영(1995). *op. cit.* p.181.

용하였고 서울에서는 왕십리 밖에 사는 서민들이 이를 착용하였다고 한다. <홍금순(92세), 홍봉순(86세)의 증언, 1994년 11월 12일 단국대학교 민속박물관 녹취>

설명에서 머리천의를 일반적으로 ‘처네’로 불렀음을 알 수 있으며 『연행가』의 머리천의와 비슷한 형태를 떠올리게 한다.



<Fig. 3> 머리천의를 쓴 여인들
부산시 동래구 촬영, 1914년
From, 개인 소장, 유리원판 인화.



<Fig. 4> 머리천의를 쓴 여인들, 부분 확대



<Fig. 5> 장무릎을 쓴 여인
From, 부산박물관(2009) .p.120.



<Fig. 6> 쓰개치마를 쓴 여인
From, 부산박물관(2009) .p.121.

〈Fig. 3〉은 1914년 부산시 동래구의 여인들 모습이다. 대부분이 흰색 저고리와 치마를 입고 머리에는 천의를 쓰고있다. 중앙의 여인이 긴 토수를 착용한 모습으로 보아 계절이 겨울로 보여진다. 정면의 모습은 백색 동정이 달려 있고 정수리 부분에 주름을 잡아주었다. 상부에 달린 좌우의 끈을 뒤로 넘겨 동여맨 모습이다.

또한 민속조사에서 머리천의는 장옷 보다는 짧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사진 속의 머리천의는 〈Fig. 5〉의 장옷, 〈Fig. 6〉의 쓰개치마 보다는 길이가 짧은 편임이 확인된다.

천의는 간편 이불이나 머리천의 외에 아기를 업을 때도 사용하였다. 『조선재봉전서(朝鮮裁縫全書)』²⁰⁾에는 천의 쓰임과 제작 방법이 기록되어 있다.

천의 짓는법 -아해 업을때에 쓰는 천의는 광 二尺三寸 길이 十一尺되는 감으로 안팎을 마르되 길에서는 깃을 내고 무에서는 끈을 내서 무를 부쳐서 안팎을 맞춰 뒤집어서 주름을 가운데다가 대판으로 접어서 거죽으로 달어가지고 안으로 감쳐서 두고 동정을 안팎을 갖치달고 끈은 그림과 갖치 낭옆에 다나니라. 이것은 겹천의 짓는법인데 여기에 솜도 두고 누비기도 하는데 겹이 나 솜천의에는 시침을 늦는법이니라. 〈조선재봉전서〉

설명에서 아기를 업을 때 쓰는 천의라고 하였다. 형태는 길, 무, 깃, 동정, 끈으로 구성되어 가운데 주름을 잡아주었다. 종류는 겹, 솜, 솜누비 천의가 있다. 『임원경제지』의 간편 이불용 천의가 집안에서 간편하게 사용하는 것이라면 『조선재봉전서』의 천의는 어린 아이를 업을 때 덮는 이불 정도로 아기를 업을 때 사용하는 포대기가 이에 해당된다. 〈Table 1〉의 『뮤술구월아기시돌싱신의복불고』와 같이 1800년대 말과 1900년대 초반기의 아기와 관련된 말기 중의 천의가 포대기용 천의로 추정된다.

〈Fig. 7〉은 포대기용 천의의 구조와 명칭이다. 형태는 치마와 비슷하면서 하부는 넓고 상부는 좁다. 몸판인 길 좌우에는 사다리꼴형 무가 부착되어 있으며 상부에는 길 중심을 기준으로 주름이 좌우 1개씩 잡아준 후 저고리처럼 깃과 동정을 달았다. 그리고 깃 양 끝에는 끈을 부착하였다. 조선 말기의 유물인 쓰개 치마(〈Fig. 8〉)와 비슷해 보이나 주름이 적고 상부에는 허리 말기 대신에 저고리 깃 모양의 깃을 달고 동정을 달았다. 이 모양은 조선 말기 유물로 처녀로 널리 불리는 쓰개용 머리천의의 형태와 흡사하다(〈Fig. 17〉 참조).

20) 金淑堂(1925). 朝鮮裁縫全書. 京城 活文社 發兌. p.97.



〈Fig. 7〉 천의 부분 명칭
From: 金淑堂(1925), p.97.



〈Fig. 8〉 쓰개치마
From: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이상으로 천의 관련 역사 자료를 살펴본 결과 천의는 이불 대용의 간편 이불용 천의, 쓰개용 머리천의, 포대기용 천의의 3가지 용도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간편 이불용 천의는 침구류의 일종이지만 잠 잘 때 사용하는 이불의 용도와는 다르게 사용되었다. 이불 보다는 크기가 작고 양반들이 추운 날 방안에서 책을 읽는 등 소일할 때 천의를 이불 대신에 간편하게 사용하였는데, 머리 또는 어깨까지 치켜올려 덮어 쓰고 추위를 이겨냈을 것이다. 이불 대용 천의는 19세기에 성행하였으며 조선 말기에는 궁중 발기의 왕실 기록에서 확인될 뿐 1900년에 접어들면서 사용 빈도가 줄어들었다. 쓰개용 천의는 ‘머리천의’라는 단독 명칭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여성이 외출할 때 머리부터 얼굴까지 가려 방한용과 내외용으로 사용되어 간편 이불과 함께 보이고 있다. 포대기용 천의는 1900년에 접어들면서 보이기 시작한다. 머리천의와 거의 형태는 같으나 어린이를 업을 때 사용하였다.

III. 용도별 천의 유물

천의는 한 가지 용어에 여러 가지 쓰임이 있어, 간편 이불용 천의, 쓰개용 머리천의, 포대

기용 머리천의로 나눌 수 있다. 이와 연관된 유물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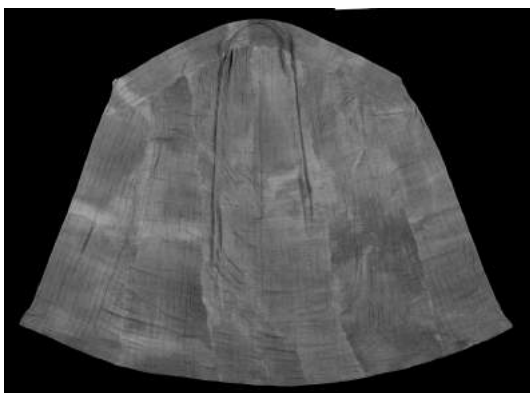
1. 이불 대용 천의

추운 겨울이나 쌀쌀한 날씨에 방한용으로 집안에서 간편하게 덮는 천의는 출토유물에서 확인되며 시기적으로 조선후기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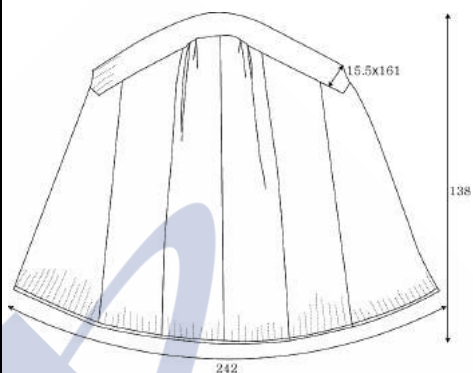
〈Fig. 9〉는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누비 천의이다.²¹⁾ 경기도 별내면에 소재한 평산신씨(平山申氏) 광헌(光憲 : 1731~1784)의 묘에서 출토된 것으로 관의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하여 보공품으로 넣어주었다. 유물은 겹감과 안감을 명주로 만들고 2~2.5cm 너비로 줄줄이 누벼주었다. 총길이 138cm, 상부너비 161cm, 하부 도련 242cm로 넓게 되었으며 상부에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측에 주름을 2개씩 잡아주고 저고리 모양과 같은 목판 당코깃을 달았다. 동정을 달았던 흔적이 남아있으며 고름이나 단추의 흔적은 없다. 현재는 누빔의 상태가 겹누비 상태로 남아있으나 함께 출토된 다른 유물들이 동물성 재질만 남아있는 것으로 볼 때 실제로는 속에 넣어주었던 면 솜이 삭아 없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초기에는 두텁게 솜을 둔 누비 천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Fig. 13〉은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의 누비 천의이다. 진주류씨(晉州柳氏) 문성공파(文成公波) 20세(世) 참판공 류정(綏 : 1684~1753)의 후 배위 경주이씨(18세기 중후반 추정)의 묘에서 출토 되었다. 2003년 10월 29일에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에서 흩어진 조상 분묘를 합치고자 이장하는 과정에서 출토되었다. 유물은 길이 159cm, 너비 260cm의 크기로 이불 보다는 작은 편이다. 직사각형 몸판의 좌우에 사다리꼴형 무가 달렸다. 상부 중심을 기준하여 좌우측에 주름을 3개씩 잡아준 후 목판 깃을 부착하였으며 동정을 달았던 흔적이 남아있다. 현재는 하부의 반 정도가 반파된 상태로 전해진다. 함께 출토된 유물이 동물성 재질만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원래는 솜누비의 상태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깃 모양만 다를 뿐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누비 천의의 형태와 시기가 흡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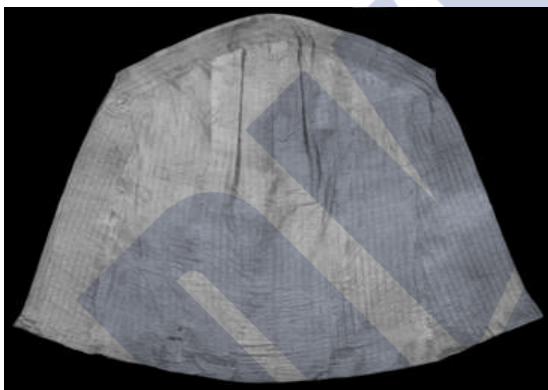
21) 이명은(2011). 엽습의를 통해 본 별내유적 회묘 출토 복식연구. 남양주 별내 조선시대 회묘 발굴성과 학술대회. p.114, pp.149-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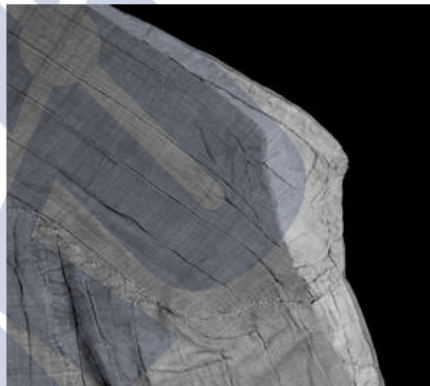
〈Fig. 9〉 신광현 묘 출토 천의
From.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Fig. 10〉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천의의 도식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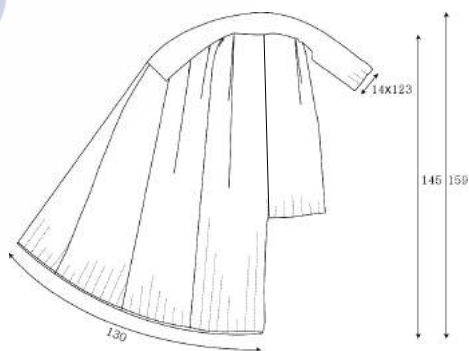
〈Fig. 11〉 신광현 묘 출토 천의 뒷면
From.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Fig. 12〉 신광현 묘 출토 천의 깃 부분 확대



〈Fig. 13〉 경주이씨 묘 출토 천의
From.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Fig. 14〉 경주이씨 묘 출토 천의 도식화



〈Fig. 15〉 경주이씨 묘 출토 천의 깃 부분 확대
From.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Fig. 16〉 두루퐁, 두봉(斗篷)
From. 中華服飾五千年文物集刊
編輯委員會(1987) p.410.

위의 두 유물은 크기로 보아 이불 보다는 작은 크기로 『임원경제지』의 천의 설명에 상응하는 유물이어서 주목된다. 이불 보다 크기가 작으며 아래가 넓고 직선형이며 위는 아래보다 좁고 둥글다. 기록에서 덮는 것이라 하였고 실내에서만 사용한 기록이므로 외출용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깃 부분에 주름 잡힌 형태로 보아 어깨까지 치켜 올려 덮는 형식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모습의 유물은 중국의 유물인 〈Fig. 16〉의 두봉(斗篷)에서도 볼 수 있다. 청대의 유물로 모양은 맞襟(對襟)에 소매가 없는 형태이며, 금선(金線)이 섞인 실로 수를 놓았으며, 가장자리는 화려한 자수로 장식된 것이다. 두봉은 두루퐁이라고도 하여 우리나라에도 기록에 있어 『조선어사전(朝鮮語辭典)』에는 ‘겨울에 입던 옷옷의 한 가지. 모양이 만포 같은 것’으로 설명되며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주로 노인들이 방 안에서 추위를 막기 위하여 어깨에 둘러 입는 옷옷’²²⁾으로 설명되고 있다. 두봉은 한족(漢族)의 복식으로 소매가 없고 트임[攢]이 없는 긴 외의(外衣)인데 청대(淸代)에 와서 널리 유행되었다. 형태는 옷깃이 낮고, 목도리(圍巾)를 더했으며, 길복(吉服)으로 쓰일 때는 천청색(天靑色)을 옷감으로 하였고 소복

22) 김춘월(2012). 낙선재본 『홍루몽』의 중국어 어휘 차용에 대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국어학전공. pp.19-21.

(素服)으로 쓰일 때는 원청색(元靑色)을 옷감으로 하였다. 남녀노소가 모두 착용하였는데, 이를 착용함으로써 바람을 차단하고 추위를 막는 효과를 누렸다.²³⁾

천의와 두봉은 기본 구성이 같고 방한용으로 사용되는 등 유사점이 있으나 이 글이 천의의 용도를 알아보는 연구이므로 후속 연구를 기대해 본다.

2. 머리천의

쓰개용 천의는 머리천의라는 별도의 명칭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조선 말기의 것이 대부분이다. 온양민속박물관과 오륜대순교자박물관 소장의 머리천의가 대표적이다.

〈Fig. 17〉은 온양민속박물관 소장의 머리천의이다.²⁴⁾ 겉감은 자주색 명주이고 안감은 북청색 용문단이며 겉감과 안감 사이에 솜을 두었다. 깃에 달린 끈은 자주색으로 겉감과 같은 소재이고 아래에 달린 끈은 북청색으로 안감과 같은 소재이다. 현재 유물명이 처네로 되어 있으며 길이 74.5cm, 밑도련 너비 74.5cm의 크기이다.



〈Fig. 17〉 머리천의
From, 온양박물관(1988), p.43.



〈Fig. 18〉 머리천의 뒷면
온양민속박물관 · 원광디지털대학교(2010), p.31.

23) 徐海榮 主編(2000). 中國服飾大典. 중국:華夏出版社. p.7.

24) 온양민속박물관, 원광디지털대학교(2010). 소곤소곤. pp.30-31.

〈Fig. 19〉는 오륜대순교자박물관 소장의 머리천의이다. 붉은 자주색 세주(細紬)를 풀먹여 다듬이한 도련주(搗鍊紬)를 사용하여 겹감과 안감사이에 두텁게 솜을 두어 만들었다. 쓰개치마와 유사하나 길이 109cm 진동 176cm로 크기가 조금 작으며, 상부에서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에 주름을 잡아준 후 깃을 달았다. 깃에는 동정이 달렸으며 깃 좌우로 긴 끈을 달았다. 아래로 내려와 중심부에 다시 단추를 부착하였다. 머리가 닿은 안쪽 상부에는 안감과 같은 옷감을 덧대어 오염을 방지하도록 배려하였다.



〈Fig. 19〉 머리천의
From. 오륜대순교자박물관 소장.



〈Fig. 20〉 머리천의 깃 부분 겉면



〈Fig. 21〉 머리 천의 착용 모습



〈Fig. 22〉 머리천의 깃 부분 안쪽 면

위의 두 유물은 모두 자주색상으로 경빈김씨의 머리천의 색상과 동일하다. 이 외에 남색 머리천의(Fig. 23)와 분홍색 머리천의(Fig. 24)도 전해진다. <Fig. 26>의 머리천의²⁵⁾는 겉감은 소색 모시이고 안감은 소색 갑사로 된 겹 옷이다. 여름용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기생들이 백양복으로 천의를 지었다는 기록²⁶⁾과 색상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기녀의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



〈Fig. 23〉 머리천의
From. 국립민속박물관.



〈Fig. 24〉 머리천의
From.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Fig. 25〉 머리천의 펼친 모습
From.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Fig. 26〉 머리천의
From. 경기여고 경운박물관.

25) 경운박물관(2003). 근세복식과 우리문화. p.38.

26) 李能和(1927). *op. cit.*

머리천의 유물의 공통점은 치마와 형태가 비슷하면서 크기가 작고 머리에 쓰기 좋게 주름을 잡고 깃과 동정을 달았다. 그리고 깃머리 좌우측에 고름을 달고 아래에 작은 끈이나 단추를 더하여 여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형태는 『조선재봉전서』의 천의 도식과 거의 흡사하다. 천의를 착용할 때는 양쪽 고름을 뒤로 넘겨 뒤통수에서 매도록 하였다. 유물은 숨을 두텁게 둔 방한용 머리천의가 대부분이며 경운박물관 소장 머리천의와 같이 겹옷으로 된 것도 있다.

3. 포대기용 천의

천의의 또 다른 용도는 아기를 업을 때 사용하는 포대기이다. 대표적인 유물로 국립고궁박물관 왕자 처네²⁷⁾가 있다. 〈Fig. 27〉은 왕가(王家)의 것으로, 왕자 처네라는 유물명으로 불리고 있다. 양옆에 넓은 무를 달고 안에는 숨을 넣어 정교하게 누벼서 만들었다. 크기는 길이 95.5cm, 밑 도련 둘레 175cm, 깃너비 15cm이다. 겉은 홍색 포도문주(葡萄紋紬)이고, 안은 연두색 포도문주로 장수(長壽)·다남(多男)·다복(多福)의 의미를 담은 것이다. 세로로 촘촘히 일정하게 누벼 만든 숨누비로, 길 좌우에는 무가 달리고 상부에 허리말기와 같은 깃을 달았다. 깃에는 양쪽 끝에서 8cm되는 부분부터 8.2cm 너비의 백색 삼팔주(三八紬) 동정이 달려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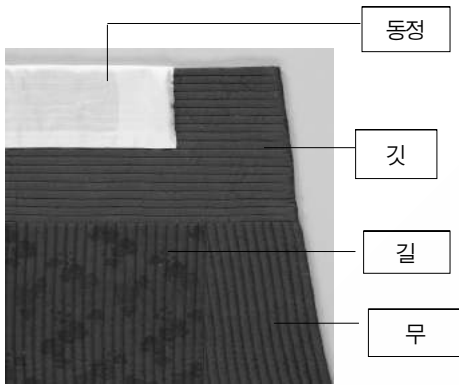


〈Fig. 27〉 왕자 처네 겉면
From. 국립고궁박물관(2010), p.5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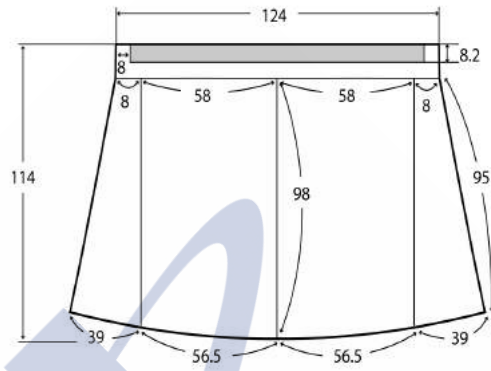


〈Fig. 28〉 왕자 처네 뒷면

27) 文化財廳 宮中遺物展示館(1999), 朝鮮朝後期宮中服飾, p.273.



〈Fig. 29〉 왕자 처네 부분 확대



〈Fig. 30〉 왕자 처네 도식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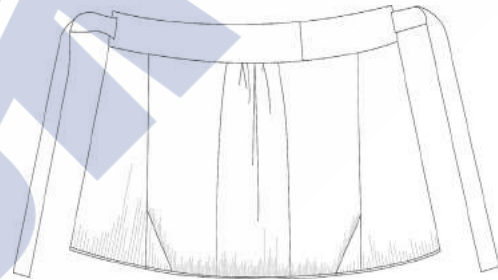
From 文化財廳 宮中遺物展示館(1999), p.273.

〈Fig. 31〉은 아기를 업을 때 사용한 누비 포대기이다. 이 유물은 특이하게 여성의 누비 바지를 뜯어서 만든 것으로 길 아래쪽의 부족한 부분에는 조각을 덧대어 정교하게 이어 주었다. 길이 75cm, 도련 162cm의 크기이다. 깃, 무, 끈의 구성으로 볼 때 포대기용 천의에 해당한다.



〈Fig. 31〉 포대기용 천의

From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Fig. 32〉 포대기용 천의 도식화

IV. 결 론

이 연구는 조선시대의 다양한 복식 중 하나인 천의에 대하여 문헌을 살펴 올바른 정의를 내리고 관련 유물을 조사하여 용도의 다양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천의는 한자어 ‘薦衣’ ‘襦衣’로 기록되어 조선 후기부터 나타나는 복식 용어로 속음으로 ‘치네’라고도 불리었다. 용도가 다양하여 이불 대용의 간편 천의, 머리천의, 포대기용 천의의 3가지 용도로 사용되었다.

기본 형태는 치마와 모양이 비슷하면서 윗부분에 저고리 모양과 같은 깃과 흰색 동정이 달려 있으며 중심부에는 주름이 몇 가닥씩 잡혀있다.

간편 이불용 천의는 출토 유물로 전해지는 신광현 묘 출토 천의와 경주이씨 묘 출토 천의가 대표적으로 19세기에 성행하였다가 1900년에 접어들면서 사용 빈도가 줄어들었다. 침구류의 일종이지만 이불 보다는 크기가 작으며 추운 날 방안에서 책을 읽는 등 소일할 때 천의를 이불 대신에 간편하게 사용하였다. 조선 말기에 여성들이 외출할 때 얼굴을 가리기 위한 쓰개로 사용하였던 주름 잡힌 쓰개는 ‘머리천의’라는 단독 용어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오륜대순교자박물관 소장의 머리천의, 온양민속박물관 소장의 머리천의가 대표적으로 천의 기본형에 깃 부분 양쪽에 고름과 보조 단추가 달려 있어 여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쓰개치마와 유사하나 조금 작은 편이다. 포대기용 천의는 아기를 업을 때 두르는 것으로 기본형에 좌우 측에 끈이 달린 것이 특징이다.

참고문헌

『廣才物譜』

『뎡미시가레일기』

『宗妃慶嬪金氏順和宮嘉禮時節次』

강순제 외(2015). 한국복식사전. 서울:민속원.

경기여고 경운박물관(2003). 근세복식과 우리문화. 서울:경운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2010). 영친왕 일가 복식.

金淑堂(1925). 朝鮮裁縫全書. 京城 活文社 發兌.

김춘월(2012). 낙산재본 『홍루몽』의 중국어 어휘 차용에 대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국어학전공.

憑虛閣(1809). 閨閣叢書.

文世榮(1942). 修正增補朝鮮語辭典. 朝鮮語辭典刊行會.

文化財廳 宮中遺物展示館(1999). 朝鮮朝後期宮中服飾.

閔遇洙(1799). 貞菴集.

부산박물관(2009). 사진으로 보는 근대풍경 8. 서울:민속원

徐有槩(1820년경). 林園經濟志.

徐海榮 主編(2000). 中國服飾大典. 中國:華夏出版社.

李能和(1927). 朝鮮女俗考. 翰南書林.

온양박물관(1988). 朝鮮時代의 冠帽.

온양민속박물관, 원광디지털대학교(2010). 소곤소곤.

이명은(2003). 궁중발기에 나타난 행사 및 복식 연구. 단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_____(2011). 염습의를 통해 본 별내유적 회묘 출토 복식연구. 남양주 별내 조선시대 회묘 발굴성과 학술대회.

이은진(2004). 19~20세기 초 견직물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중앙일보(1985). 韓國의 美 19-風俗畫. 중앙일보 季刊美術.

中華服飾五千年文物集刊 編輯委員會(1987). 中華服飾五千年文物集刊 服飾編 下. 民國75.

韓國精神文化研究員(1994). 古文書集成 十二 - 藏書閣篇 III.

황문환 외(2011). 정미가례시일기 주해. 경기:한국학중앙연구원.

홍나영(1995). 女性 쓰개의 歷史. 서울:학연문화사.

홍중선, 백순철 공저(2005). 연행가. 서울:신구문화사.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15692&cid=42407&categoryId=42407>

(자료검색일 2016. 11. 10)

http://www.culturecontent.com/content/contentView.do?content_id=cp021310100001

(자료검색일 2016. 11. 10)

A study on the diversity of *Cheo-nui*

Lee, MyungEun

Seok Ju-Seon Memorial Museum, Dankook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done by researching related references and examining relics, proved that the *Cheo-nui*, a type of costume from the Joseon dynasty, was diverse in its uses. *Cheo-nui* is known as "*Cheo-ne*" in its slang usage.

The basic shape of the *Cheo-nui*, is similar to *Chi-ma*(Skirt). In addition, the *Cheo-nui*, has deep wrinkles at each ends and has a *Git*(Collar band) and white *Dongjeong*(White strip of cloth) wrapped around it.

It was used for various purposes such as being used as a blanket, a Baby Wrapper or Woman's Veil.

The *Cheo-nui*, when it was used as a simple blanket, was smaller in size than a typical duvet, and therefore was sometimes used in place of a blanket when people had to take a rest in rooms that were cold. The *Cheo-nui* was used as a veil for woman during the late Joseon dynasty. The basic structure was similar yet the *Go-reum*(Fastening ribbons) was placed on both sides of the *Git*(collar) and a button placed in the middle was used to open and close the flaps. Another use of the *Cheo-nui* was as a *Podeagi*(Cloth with straps used to carry a baby on one's back). Its specific characteristic is the basic form of a typical *Podeagi* and two ropes hanging on each of its sides.

Key Words : *Cheo-nui*(A type of Blanket or Baby Wrapper or Women's veil), *Cheo-ne*('Cheo-nui' in slang form) *Podaegi*(Baby Wrapper), *Munry-cheo-nui*(Woman's veil), *Sseu-gae*(a face protector of women)

| 조사보고

남이흥장군 답호(중요민속문화재 제21호)의 소재분석

채정민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I. 서론

남이흥장군 답호¹⁾는 중요민속문화재 제21호로 지정된 남이흥장군 일가 유품 중 1차로 지정된 문화재 중 하나이다. 남이흥(1576~1627)은 임진왜란 때 노랑해전에서 이순신과 함께 전사한 남유의 아들로, 선조 35년(1602)에 무과에 급제하고, 이후 이괄의 난을 평정하는 등 많은 공을 세웠다. 본 답호는 이괄의 난을 평정하고 돌아온 장군에게 인조(仁祖)가 입었던 것을 직접 벗어 준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지정 당시에는 '대례복(團領)'이라고 명명하였으나 1991년에 '답호'로 명칭을 변경하였다.²⁾ 현재의 상태는 수습 당시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훼손되었던 것을 현재는 보수직물을 대어 보존처리한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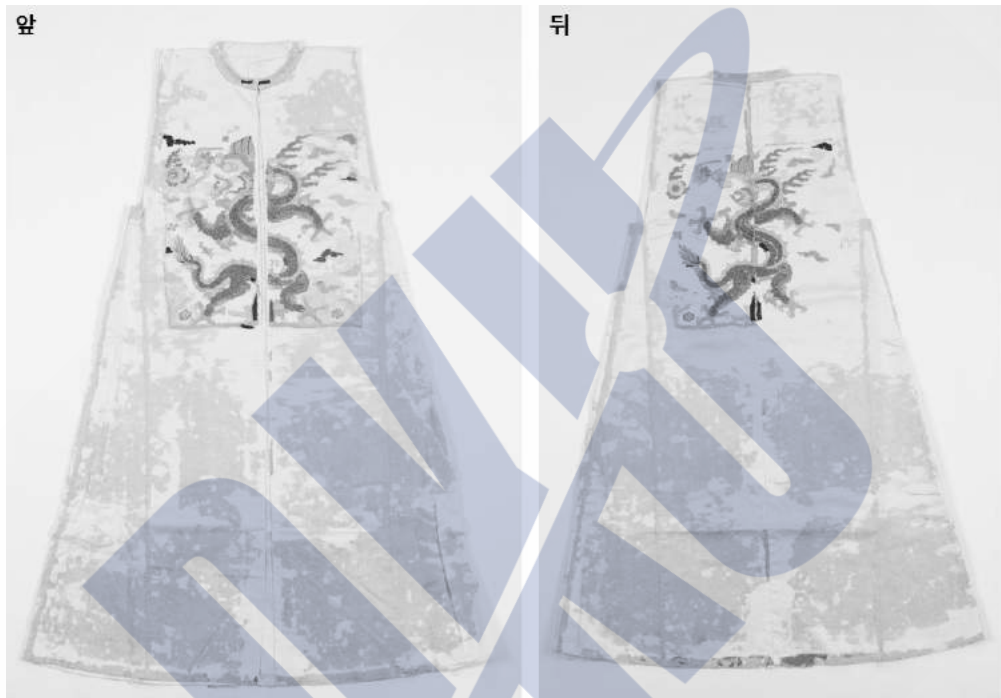
남이흥장군의 의복유물은 착장자가 명확하고 완성도가 높아 매우 귀중한 복식자료이다.

1) 1차 지정 유물은 구의(시습가죽으로 만든 옷) 1벌(포와 바지)과 운문단답호 1점, 그리고 상아·나무·녹각 등으로 만든 장군과 가족들의 호패 7점이다. 이후 2004년에 고문서 13점, 영정 1점, 생활자료 10점, 복식 6점 등 총 30점의 유물이 추가로 지정되었다.

출처 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NS_04_03_01&VdkVgwKey=18,00210000,34&flag=Y

2)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12111

이 유물 중 답호는 역사적 유래와 더불어 아름다운 자수 등으로 그 가치가 매우 크다. 보수를 포함한 보존처리가 이루어진 후 구성 소재에 대한 자료가 많지 않으므로 구성 소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복식유물의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한다.



〈그림 1〉 남이흥장군 답호

II. 조사방법

1. 식물 조사

Videdo Microscope(ICS-P302B, SOMETEC, Korea)와 portable microscope(AM4815ZT, Dino Lite)를 이용해 조사하였다. 구성 식물의 직조 방법과 현재 상태에 대한 조사-식물의 밀도, 섬유 상태 등을 조사하였다.

2. 섬유 분석 및 금속 성분 분석

유물의 구성 소재인 식물 소재의 판별을 위해 섬유 형태 분석을 위해 투과전자현미경(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Anaysis, HITACHI S-4300, JAPAN)- EDX(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 분석을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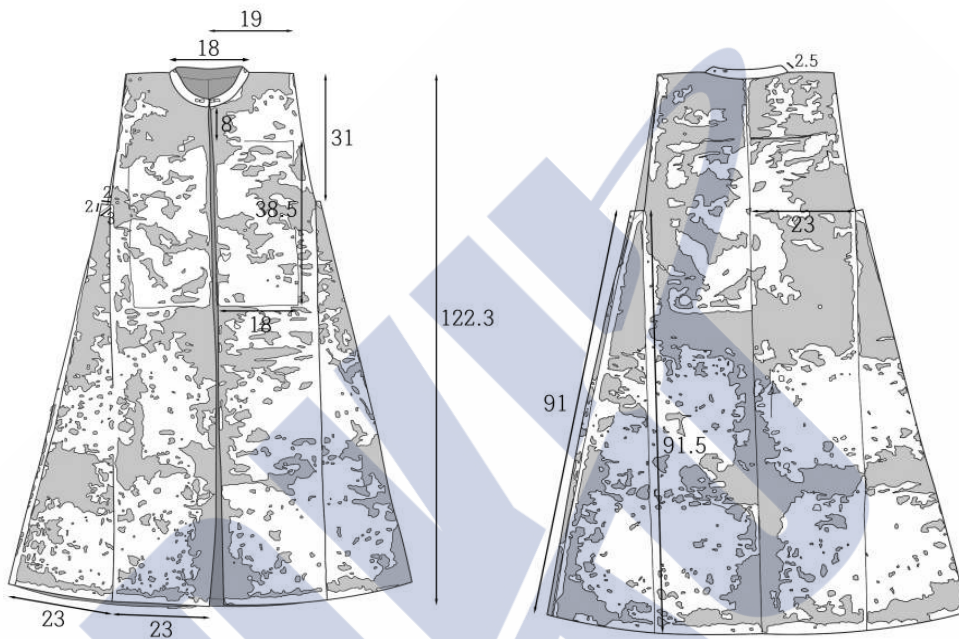
III. 결과 및 고찰

1. 유물의 외관 및 상태

현재 유물은 이전에 실시된 보존처리를 통해 잔존 부분을 보수용 식물 위에 바느질을 이용해 부착한 상태이다.

본 유물은 손상되어 남은 부분을 황색계열의 격자문직 보강천으로 사용해 형태를 복원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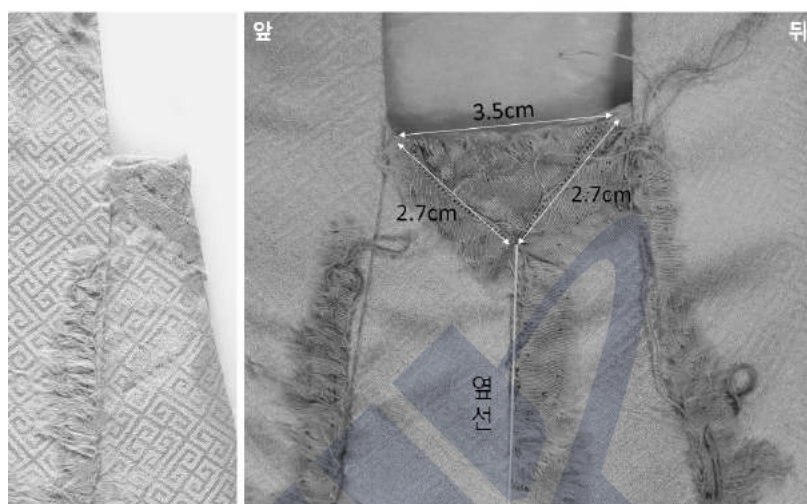
여 보수한 상태이다(그림 2).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아 있는 직물의 퇴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이고 원래의 색상이 변퇴색되어 옅은 갈색계열로 남아있는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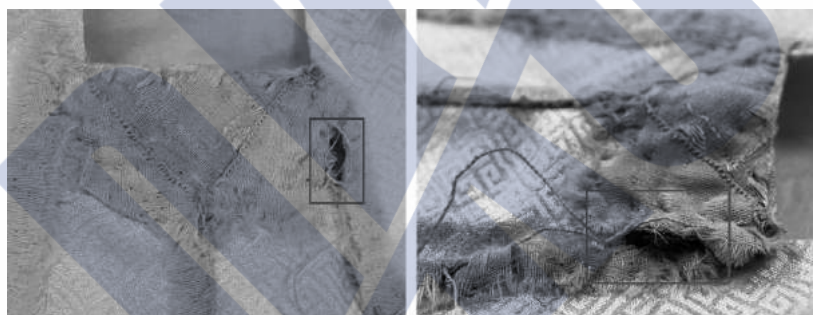
〈그림 2〉 답호의 실측 및 손상도(흰부분 : 유물, 회색부 : 보수직물)

옷의 기본적인 형태는 보수된 현상태를 기준으로 파악하면 소매와 섶이 없는 대금형 맞깃이고 가슴과 등의 중앙에 흉배가 있다. 양옆과 뒤는 트임이 없이 막혀있으며 길의 좌우에는 사다리꼴 형태의 무가 부착되어 있고 진동아래 무의 상단에 삼각형의 당이 양쪽 모두 남아있었다(그림 3). 다른 부분에 비해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편이며 오른쪽 당은 짙은 갈색의 직물이 일부 확인되었다(그림 4).

앞 목둘레에는 등근 깃이 달려 있고 앞에 자주색의 매듭단추가 달려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매듭단추는 깃과 흉배 하단에 달렸던 단추의 일부가 남아 있다(그림 5).



〈그림 3〉 답호의 삼각형 당의 크기와 모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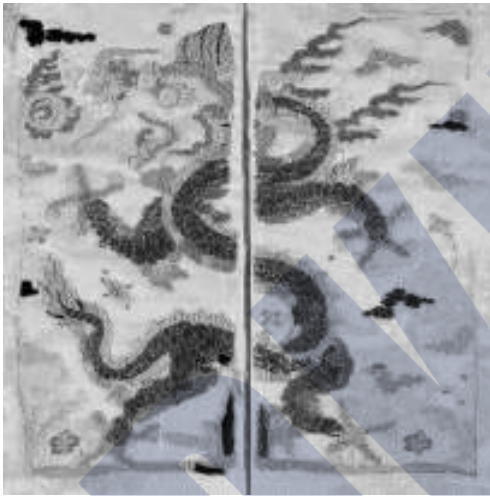


〈그림 4〉 오른쪽 당의 크기와 모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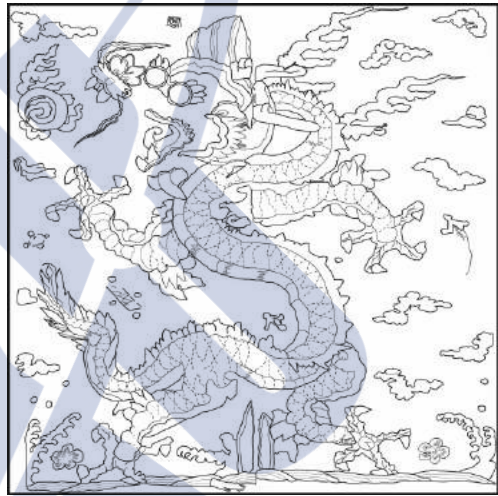


〈그림 5〉 답호에 남아있는 매듭단추(왼쪽 : 깃부분, 오른쪽 : 흉배하단)

담호의 가슴과 등에 부착된 홍배는 4조룡(四爪龍)과 구름 등을 자수한 것으로 크기는 약 가로 36cm, 세로 38.5cm이다(그림 6, 7). 홍배의 자수 중 일부는 탈락 소실된 상태이며 잔존하는 자수 부분의 상태도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파란색과 같이 일부 색상이 선명하게 남아 있는 부분이 있으나 대부분은 탈변색된 상태이며 일부 색상계열을 추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잔존한다.



〈그림 6〉 홍배(앞)



〈그림 7〉 홍배(앞)의 도식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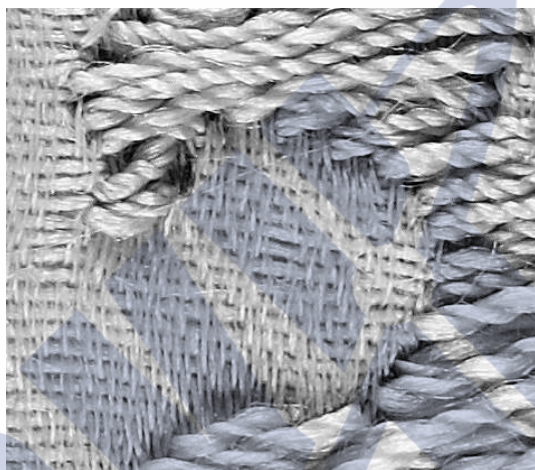


〈그림 8〉 홍배(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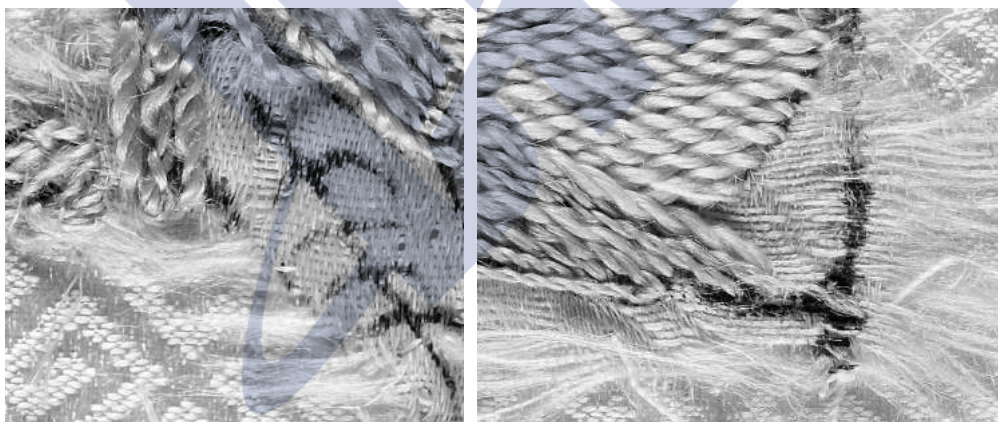


〈그림 9〉 홍배(뒤)의 도식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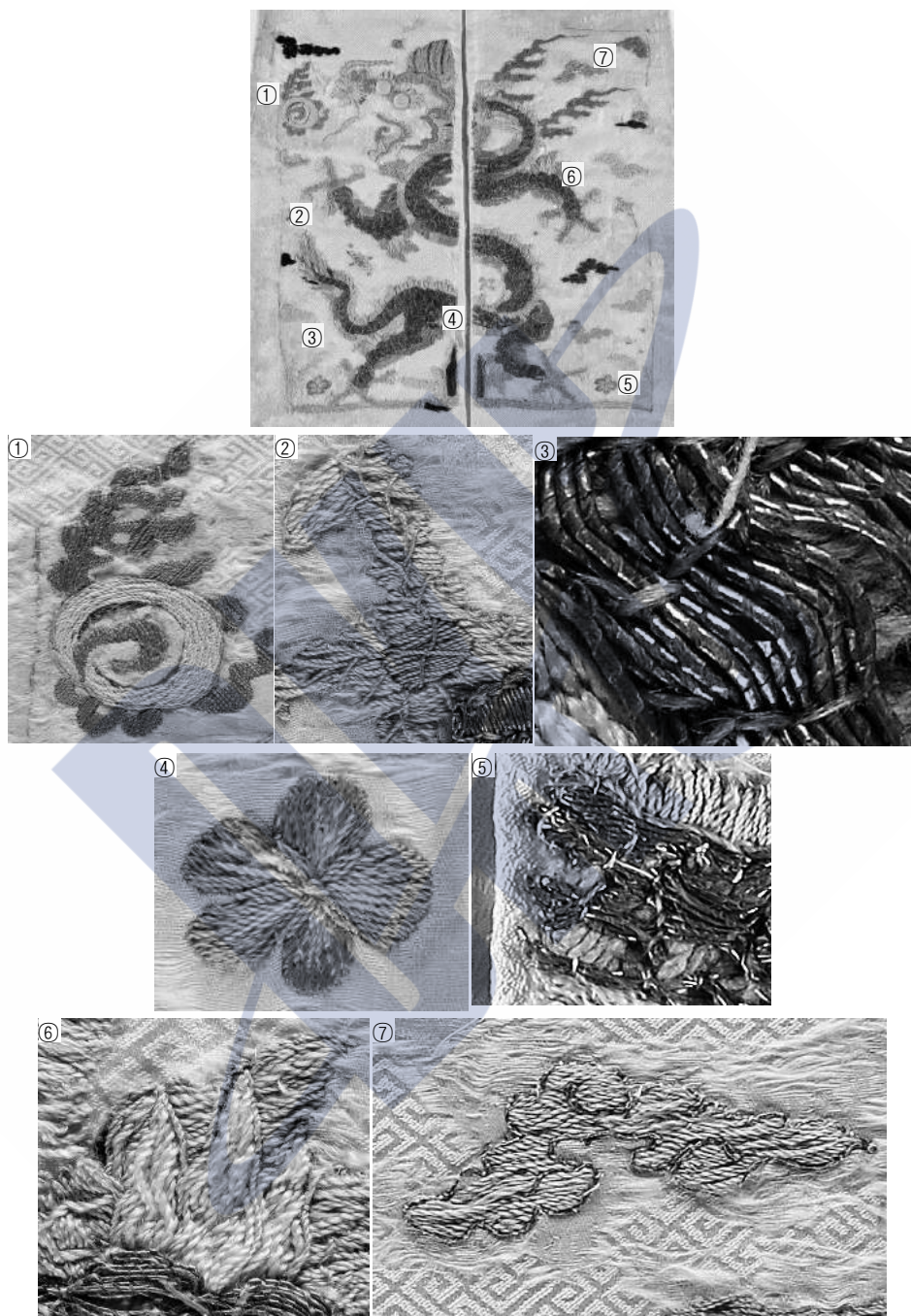
흉배의 바탕직물은 대부분 소실되고 자수와 함께 일부 남아있다(그림 10). 이 직물은 답호의 겉감과 같은 조직인 5매 수자직의 지조직에 능직으로 문양을 표현한 직물로 조사되었으며 답호직물에 직접 자수를 놓은 것으로 추정된다. 흉배의 자수 일부에서 자수를 놓기 위한 문양의 먹선을 확인하였다(그림 11).



〈그림 10〉 자수 바탕 직물



〈그림 11〉 자수의 먹선



〈그림 12〉 흥배 자수의 세부

흥배의 지수에 사용된 실은 대부분 끈사(Z연사)이며 용의 몸통 부분은 전체를 연금사를 사용해 지수하였다. 흥배의 지수는 대부분 전통지수기법인 평수, 자련수, 징금수 등의 기법이 사용되었다(그림 12). 특히 용의 몸통부분은 입체감을 나타내기 위해 겉수의 아래에 수를 놓거나 심을 넣어 양감을 표현하는 속수기법³⁾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2-③,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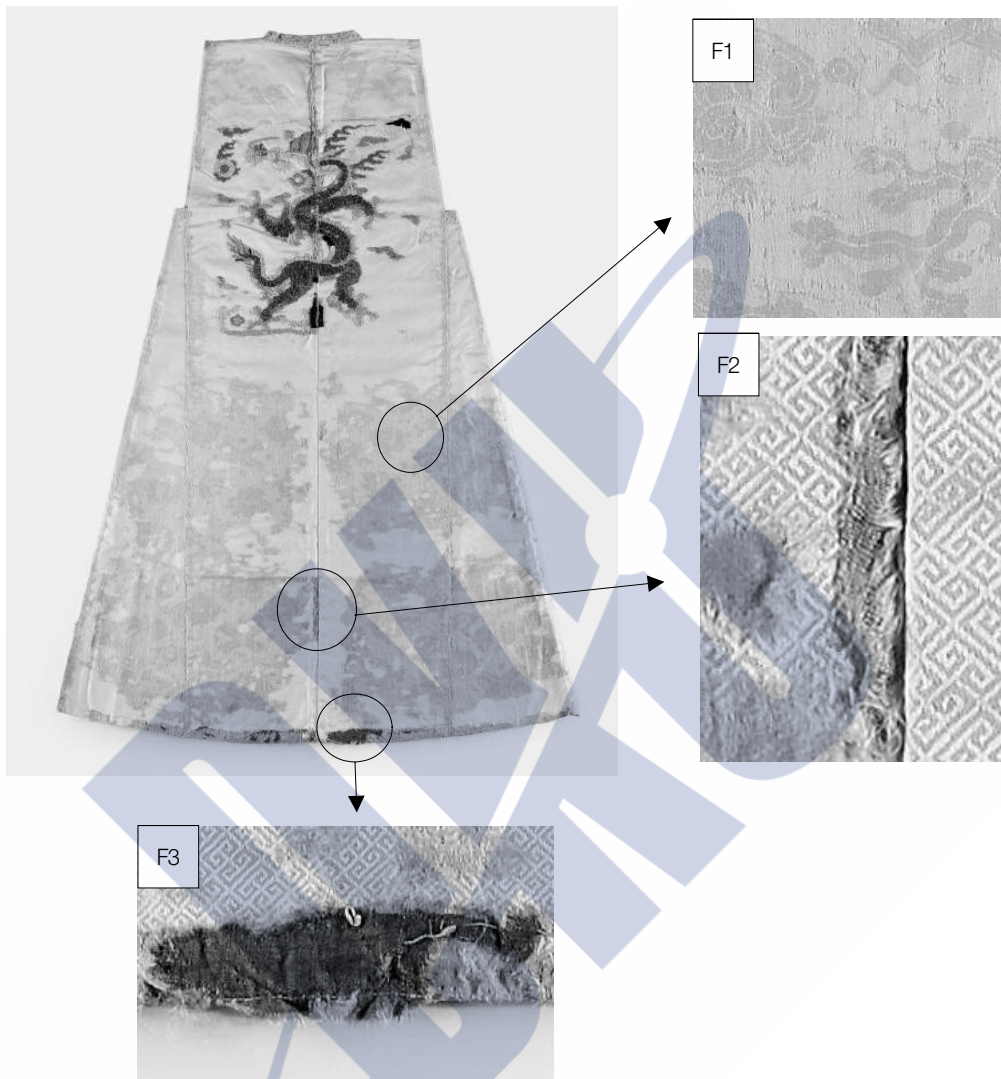
2. 구성 직물

이 답호를 구성하는 직물은 겉감과 안감 그리고 선단 직물로 제작된 것으로 관찰된다. 현재 가장 많이 남아있는 부분은 겉감이며 이를 통해 유물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안감은 거의 소실되었지만 깃 아래와 등솔에서 겉감과 다른 색의 직물 일부가 남아 있으며 이것으로 이 답호가 겹옷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과 뒤의 깃 아래에 남아있는 겉감과 다른 직물은 안감의 잔존물로 추정되며 도련의 안쪽 부분에 남아있는 직물은 도련의 선단으로 사용된 직물로 추정된다(그림 13).

1) 겉감

겉감(〈그림 13〉 중 F1 표기 직물)은 색상이 탈변색되어 원래의 색을 알 수 없으며 앞과 뒤의 길 부분에 남아있는 것으로 그 문양과 조직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겉감에 남아 있는 부분을 종합해 조사한 결과 여덟가지 보문으로 구성된 직물로 그 문양을 도식화하여 그 종류와 형태를 확인하였다(그림 14, 15). 이 직물 문양의 단위문양(일완전문양)의 크기는 약 32*15cm(정*위)로 산호(珊瑚), 화염보주(火焰寶珠), 서각(犀角), 금정(金鉦), 전보(錢寶), 은정(銀錠), 방승(方勝), 여의(如意) 등 8가지 문양이 엇갈리며 일렬로 배치되어 있다(표 1). 이와 유사한 팔보문양의 직물은 17세기 출토복식 유물인 배자(단국대학교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의 직물이 매우 유사하다(그림 16). 이 직물은 구성 문양의 배치는 다르지만 문양의 종류와 단위문양의 크기가 거의 같다. 겉감은 5매 수자직(비수 3)을 지조직으로 직조하고 1/2 능직으로 문양을 나타낸 문단이다(그림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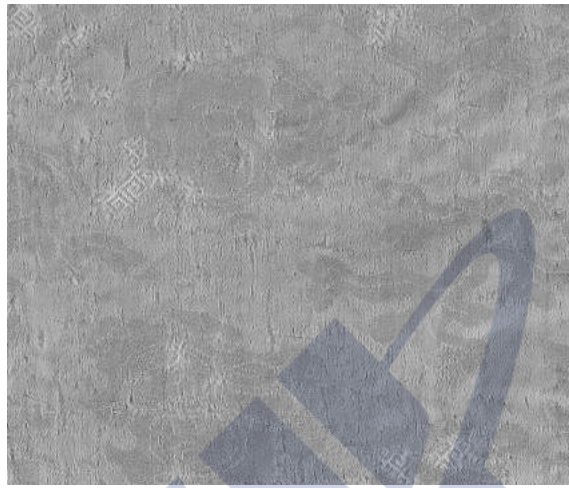
3) 국립고궁박물관(2013), 아름다운 궁중지수, pp.228-2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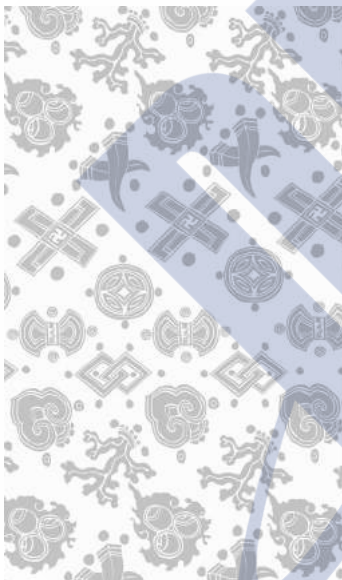
〈그림 13〉 답호의 구성 직물

〈표 1〉 답호 직물의 보문

금정	산호	서각	전보	은정	방승	화염보주	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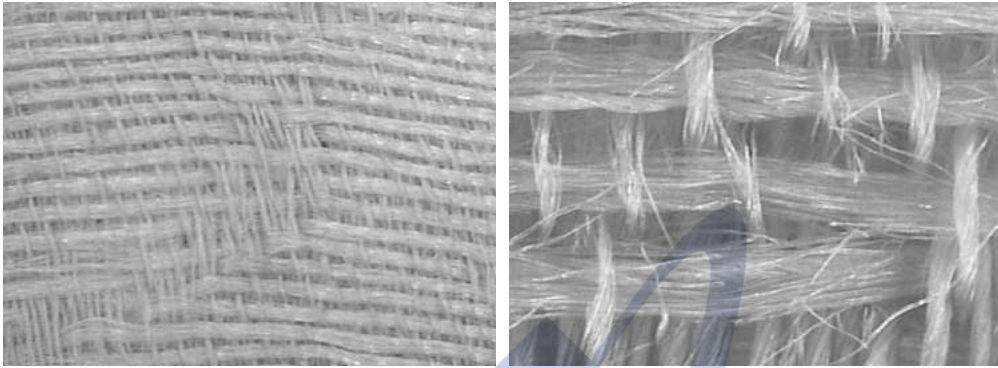
〈그림 14〉 답호의 결감(F2)



〈그림 15〉 답호 결감의 문양 배치(왼쪽)와 단위문양(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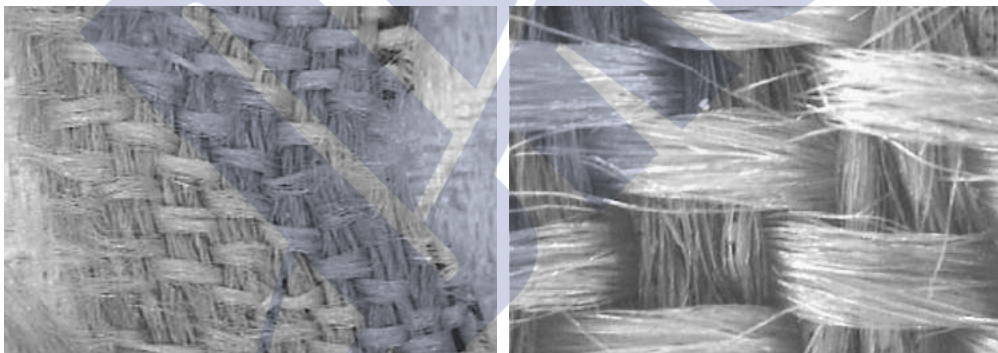
〈그림 16〉 동래정씨묘 출토 배자직물



〈그림 17〉 답호의 겉감 직물(왼쪽 : x10, 오른쪽 : x50)

2) 안감(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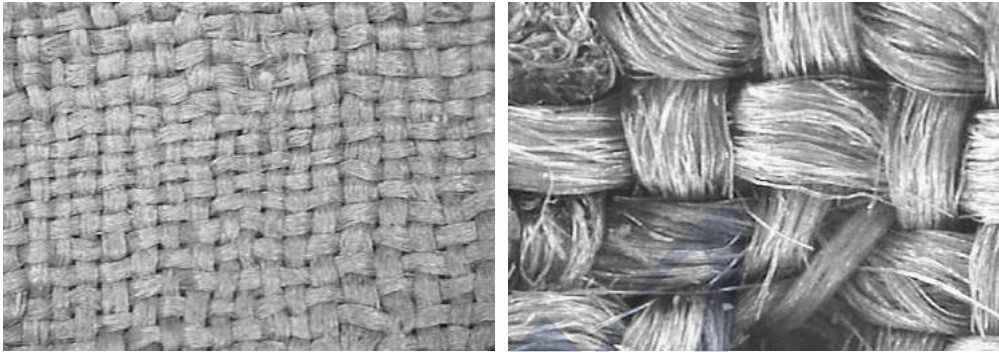
답호의 앞길과 뒤 중심선 부근의 작은 직물 조각이며 조직과 색상이 겉감과는 상이함으로 안감으로 추정하였다. 이 안감으로 추정되는 직물(〈그림 13〉 중 F2 표기 직물)은 1/2 능직물이며 경위사 모두 꼬임이 없고 직물편이 작아 다른 특성 조사는 실시하지 못하였다(그림 18).



〈그림 18〉 안감(앞길 부착 직물, 왼쪽 : x10, 오른쪽 : x50)

3) 선단직물

옷의 앞뒤의 도련 일부에서 관찰되는 짙은 갈색의 직물(〈그림 13〉 중 F3 표기 직물)은 평직물로 밀도가 약 26×26 (경 $\times$ 위/cm²)이다(그림 19). 이 직물은 답호의 도련에서만 관찰되는 것으로 미루어 옷의 도련의 안쪽에 선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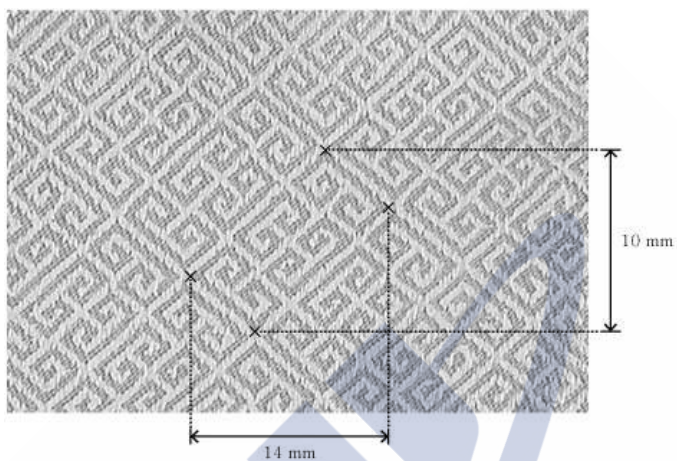
〈그림 19〉 선단(도련) 직물의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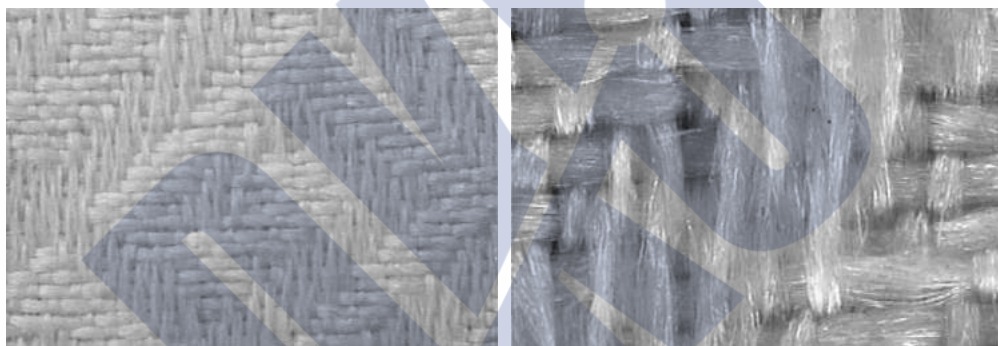
〈그림 20〉 뒷도련에 잔존 직물

4) 보수직물

답호의 보수에 사용된 직물은 색상이 유사한 격자문양의 직물로 유물의 겉감과는 문양이나 직조 등의 유사점이 거의 없다(그림 21, 22). 변형능적으로 문양을 표현한 직물이다. 이러한 격자문의 직물은 유물의 문양이 육안으로 명확히 보이지 않는 상태임을 고려할 때 관람자 또는 연구자로 하여금 본래의 유물 문양에 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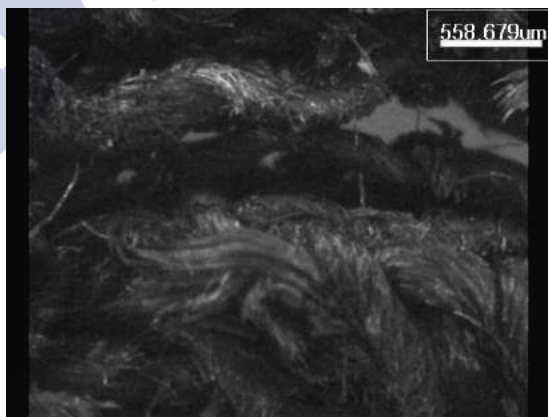


〈그림 21〉 보수에 사용된 직물



〈그림 22〉 보수 직물

이외에 유물에 남아있는 직물은 매듭단추에 사용된 것이 있으나 직조 등을 알아볼 수는 없는 상태이다 (그림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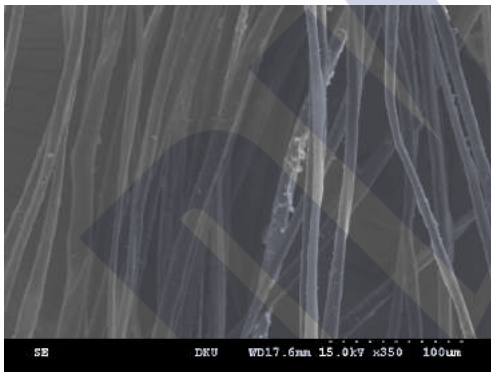


〈그림 23〉 매듭단추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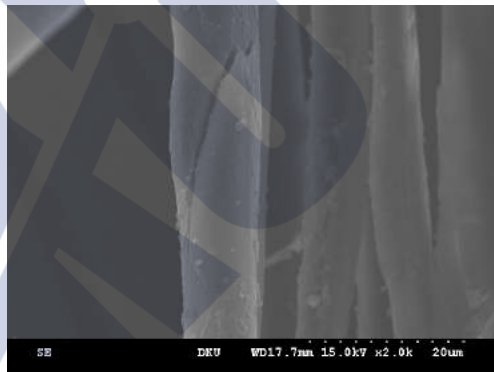
3. 소재 감별 및 성분 분석

1) 겉감직물

답호에 사용된 겉감직물을 감별하기 위해 투과전자현미경(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으로 관찰하였다. 그 결과 섬유의 측면 형태가 다발이나 꼬임, 마디 등이 없이 매끈한 모양으로 이러한 형태적 특징은 견섬유의 전형적인 것이다(그림 24). 이 섬유는 측면상에서 절단과 같은 손상이 많아 본 섬유의 퇴화가 심화된 상태임을 알 수 있다(그림 25). 이러한 손상의 양상은 섬유가 더 이상의 스트레스를 견딜 수 없을 때까지 섬유 표면을 마모시키는 마찰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⁴⁾



〈그림 24〉 겉감 섬유의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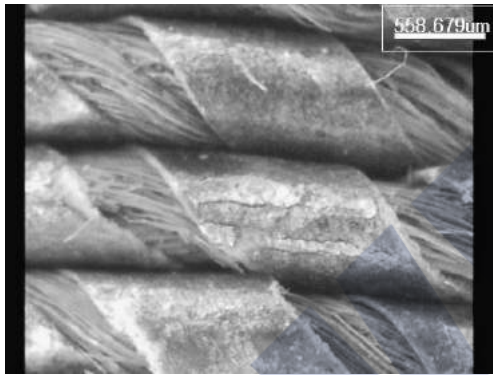
〈그림 25〉 겉감 섬유의 손상

2) 흉배 금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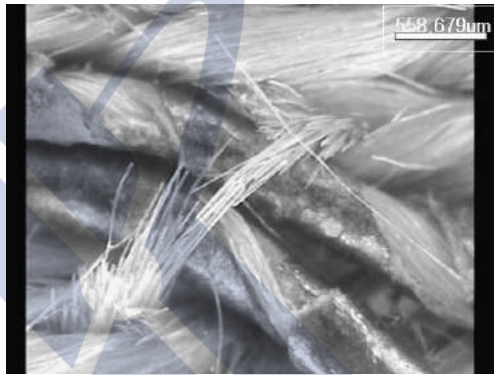
흉배의 용문 자수에서 자연 탈락된 금사를 수거해 조사하였다. 사용된 금속사는 심사로 사용된 섬유를 편금사로 감싼 형태인 연금사로 조사되었다. 이런 형태의 금사는 주로 자수에 사용되었으며 문양을 직성한 금직단에서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 유물에 사용된 금속사

4) Zeronian, S. H., Alger, K. W., and Al-Khayat, S. M. (1986), Studying the cause and type of fiber damage in textile materials by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In H. L. Needles, & S.H. Zeronian(Eds.), Historic textile and paper materials: Conservation and characterization ,ACS 212 pp.77-94. Washington DC: American Chemical Society.

는 용의 몸통 자수에 쓰인 연금사는 전체적으로 붉은 색을 띠고 있는데 이는 심사로 사용된 섬유가 붉은색이며 이와 함께 사용된 편금사의 배지가 붉은색을 띠기 때문이다(그림 26). 반면 흉배 자수의 나머지 문양의 테두리장식에 사용된 금사는 소색의 심사가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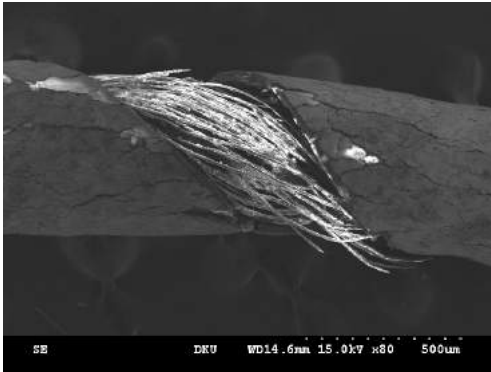


〈그림 26〉 용 문양 자수에 사용된 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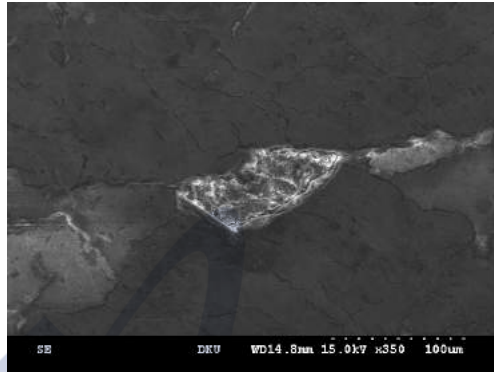


〈그림 27〉 구름 문양의 테두리장식 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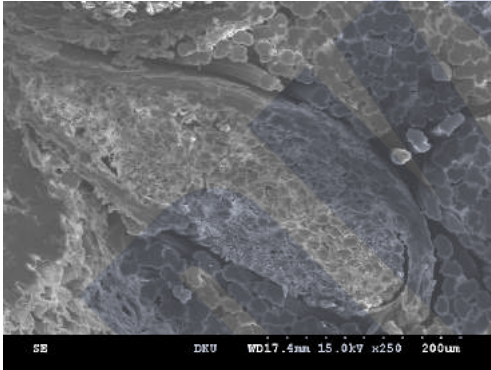
연금사는 편금사로 심사를 나선으로 감아 제작한 것으로 굴곡에 의한 금박 표면에 결절과 박락 등이 확인되었으나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다(그림 28, 29). 사용된 심사는 측면상 매끄러운 형태이며 삼각형의 단면 등의 형태적 특성으로 견사로 판명되었다(그림 30, 31). 삼사에는 견섬유 외에 다른 물질이 채워져 있는데 생사에서 박락된 세리신인 것으로 생각된다. 심사를 감싸고 있는 편금사는 배지와 금속박으로 구성되었으며 배지의 섬유는 제작 공정과 섬유의 형태적 특성으로 납작하게 눌러져있으며 그 단면의 형태로 종이섬유의 단면으로 확인되었다(그림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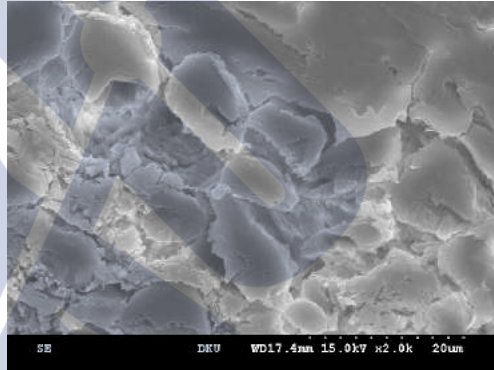
〈그림 28〉 연금사의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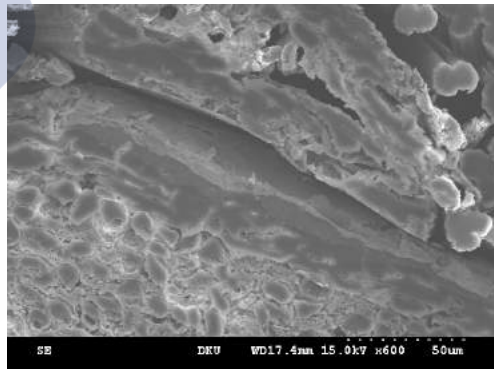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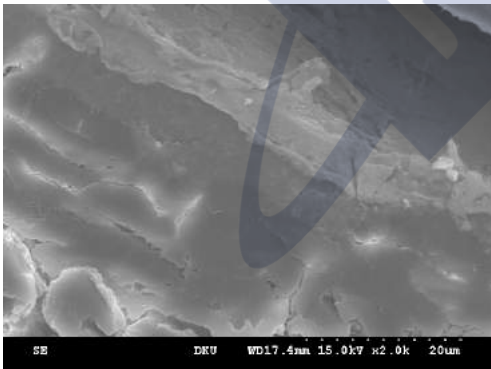
〈그림 29〉 편금사 표면의 금박 박락 손상



〈그림 30〉 연금사의 단면



〈그림 31〉 연금사 중 심사의 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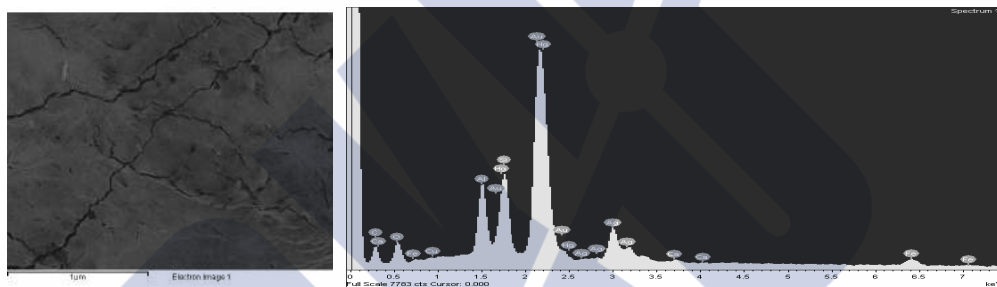


〈그림 32〉 연금사 중 편금사의 단면

3) 금속사의 성분분석

연금사중 편금사에 사용된 금박의 구성 성분을 조사하기 위해 에너지분산형분산분석(EDX,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금(Au)이 주성분이고 은(Ag)이 함께 검출되었다(그림 32, 표 2). 금과 은 외에 철과 알루미늄 등이 일부 검출되었는데 이것은 대기나 토양에서 유래한 것이거나 혹은 직물의 제직이나 염색 과정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결과로 이 금속사는 금과 은의 합금으로 된 금지를 한지에 접착해 일정한 굵기로 잘라 견사를 감싸 만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2〉 금속사에 사용된 금속박의 SEM-EDS 검출곡선

〈표 2〉 SEM-EDX 검출 결과

Element	Weight%	Atomic%
C K	9.31	35.34
O K	9.25	26.35
Al K	5.16	8.71
Si K	5.51	8.94
Ca K	0.44	0.50
Fe K	2.88	2.35
Cu L	0.12	0.09
Ag L	11.17	4.72
Au M	54.04	12.51
Hg M	2.11	0.48
Totals	100.00	

IV. 맺음말

남이흥장군의 의복유물은 착장자가 명확하고 완성도가 높아 매우 귀중한 복식자료이다. 이 유물 중 답호는 역사적 유래와 더불어 아름다운 자수 등으로 그 가치가 매우 크다. 보수를 포함한 보존처리가 전후 구성 소재에 대한 자료가 많지 않으므로 복식유물의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조사 결과 유물은 3종류의 직물, 겹감과 안감, 선단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겹감은 팔보문단이며 섬유 및 직물의 퇴화가 매우 심한 상태였다. 안감으로 추정되는 직물은 매우 작은 편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능직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선단에 사용된 직물은 평견직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보수에 사용된 직물은 변화능직물로 문양과 직조가 유물과 상이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흉배의 자수에 사용된 자수사는 Z연의 끈사를 사용하였고 용의 몸통 등에 사용된 금속사는 심사인 생견사를 편금사로 감아 만든 연금사이며 편금사의 금속박을 분석한 결과 금을 주성분으로하며 은이 일부 검출되었다.

남이흥장군의 답호의 구성과 소재에 대한 본 조사는 보존처리가 완료된 현재 유물의 상태를 근거로 한 것이라는 제한점과 한계를 밝혀두는 바 이다. 또한 현재 답호 직물의 퇴화로 인해 보수바느질 부분에 보수천과 보수실 만이 남아있는 부분이 여러 부분에서 발견되었다. 이후 대안과 대책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국립문화재연구소(2006), 우리나라 전통무늬, 1. 직물, 서울: 놀와.
- 심연옥(2006), 한국직물문양 이천년.
- 문화재청(2006), 문화재대관 : 중요민속자료, 2. 복식 지수편, 대전: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1990), 한국복식 제8호.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2002), 조선시대 피륙의 무늬.
- 국립고궁박물관(2013), 아름다운 궁중지수.
- 이주영, 장현주, 도주연, 장정아(2004), 보문의 유형과 조형성 연구, 복식 54(2).
- Zeronian, S. H., Alger. K. W., and Al-Khayatt, S. M.(1986), Studying the cause and type of fiber damage in textile materials by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In H. L. Needles, & S. H. Zeronian(Eds.), Historic textile and paper materials: Conservation and characterization, ACS 21. Washington DC: American Chemical Society.
- 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 문화재청 <http://www.cha.go.kr>

간행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복식』에 투고한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간행횟수) 『한국복식』은 매년 5월과 12월 총 2회 간행한다.

제3조(논문투고)

- ① 제출된 원고는 심사 후 게재여부를 결정하고, 게재 순서는 접수 순서를 기준으로 하고 심사가 완료된 원고만 게재한다.
- ② 공동 필자일 경우, 제1필자와 구분해서 표기해야 한다.

제4조(편집위원회 구성 및 기능)

- ① 『한국복식』의 편집과 투고 논문 심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 ② 편집인은 박물관장이 임명하고 편집위원회는 편집인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고 그 자격은 전문연구자로 한다.
- ③ 편집위원회는 편집인이 소집하며 재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편집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투고 논문 심사 및 게재에 관한 사항과 기타 편집에 관한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제5조(논문심사)

심사에 통과된 논문에 한해 발행인은 『한국복식』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심사
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편집규정을 따른다.

제6조(지적소유권)

투고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박물관에 귀속된다. 단, 필자의 사용권은 허락한다.

제7조 본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편집규정

제1조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고 약함)의 학술지인 『한국복식』의 편집과 투고 논문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투고 논문은 다음의 심사 과정을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① 분야, 분량, 형식 등의 적합성 여부 검토.
- ② 내용의 학문성을 종합하여 게재 여부 평가.

제3조 편집위원회는 심사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① 투고논문에 대한심사
- ② 심사를 맡을 심사위원의 선정.
- ③ 심사를 거친 논문에 대한 최종 판정.

제4조 편집위원회를 통과한 논문은 심사위원을 별도로 위촉하여 심사를 받는다.

- ① 심사위원진은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해당 분야의 전문연구자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 ② 심사 과정과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 ③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심사위원은 다음 절차와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1) 절차

- ① 심사위원은 논문의 학문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4등급으로 판정하고 그 결과를 소정양식에 기재한다.
- ② ‘게재불가(D)의 판정을 내렸을 경우,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③ 심사위원은 2주 이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재심사는 1회로 한정한다.

(2) 평가기준

- ① 논지의 명료성과 논리성
- ② 내용의 충실성과 독창성

- ③ 학계 기여도
- ④ 형식의 적절성 및 표현의 정확성
- ⑤ ‘원고작성지침’의 준수 여부

제6조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 처리한다.

- ① $A \cdot A \cdot A / A \cdot A \cdot B$: 게재
- ② $A \cdot A \cdot C / A \cdot B \cdot B / A \cdot B \cdot / B \cdot B \cdot B / B \cdot B \cdot C$: 수정 후 게재
- ③ $A \cdot A \cdot D / A \cdot B \cdot D / A \cdot C \cdot C / A \cdot C \cdot D / A \cdot D \cdot D / B \cdot B \cdot D / B \cdot C \cdot C /$
 $B \cdot C \cdot D / C \cdot C \cdot C / C \cdot C \cdot D$: 수정 후 재심사
- ④ $B \cdot D \cdot D / C \cdot D \cdot D / D \cdot D \cdot D$: 게재불가

제7조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 ① 편집위원회는 논문 투고자에게 논문 게재의可否를 통보한다.
- ② 편집위원회의 수정 및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논문 투고자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기존의 게재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9조 본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투고규정

1. 투고대상

투고할 수 있는 원고의 종류에는 연구 논문, 자료 및 연구동향 소개 등이 포함 된다. 박물관 소장 자료에 대한 연구결과도 게재될 수 있다.

2. 투고 요령

- ① 투고논문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정한 원칙대로 작성된 원고를 다음 주소로 발송한다
(접수 : ckafka@dankook.ac.kr).
- ② 원고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고, 논문의 제목과 투고자 인적사항(이름, 학교, 학과, 직위)은 국·영문으로 병기한다. 공동연구인 경우 주저자는 맨 앞에 넣고, 교신저자는 기호(*)로 표시한다.
- ③ 논문을 투고할 때는 통용 가능한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줄 간격 160, 글자크기 11, 신명조, 편집용지는 한글 2007 이상 기본꼴). 이때 논문의 저자명은 기재하지 않는다.
- ④ 각주·참고문헌·기타 자료 인용과 표 작성을 비롯한 자세한 원고작성 요령은 『한국복식』 원고 작성 지침을 참조한다.

3. 원고채택 및 영문초록 작성

- ① 매호 간행 2개월 전에 도착한 원고에 한하여 소정의 심사 절차(편집규정 참조)를 거친 뒤 게재여부를 본인에게 통보한다.
- ② 심사가 완료된 논문에 국문 및 영문 저자명(교신저자 표시)과 소속을 기재하고 워드 프로그램 파일로 제출한다. 논문이 영문인 경우에는 영문 저자명과 소속만 기재한다.
- ③ 게재가 결정된 논문의 경우, 필자는 국문 초록과 200 단어 이내의 영문 초록, 5개 이상의 국·영문 핵심어, 참고문헌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4. 기타

- ①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한국복식』 해당호 3부를 필자에게 제공한다.
- ② 문의 및 연락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한국복식』 편집위원회
전화 : (031) 8005-2393 전자우편 : ckafka@dankook.ac.kr

참고문헌 작성규정

1. 본문에서의 인용 방법

- 1) 본문에 인용되는 자료는 한글로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용문의 출처는 각주에서 밝힌다.
- 2) 인용되는 그림과 표 등의 시각적 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밝힌다. 출처는 본문 속에서 표시된 그림(Fig.)제목 밑에 「From. 저자.(연도).p.-.http://www.costumeculture.or.kr」로 표기하고 참고문헌에는 참고문헌 정리양식에 따라 출처를 표기한다.

[예] Fig. 그림제목

From. 저자.(연도).p.10.http://www.costumeculture.or.kr

2. 참고문헌 정리양식

(1) 학회지

① 저자가 두 명 이하인 경우

[예] Pavio, A., & Chun, J.(1994). Perceptual comparisons. Journal of Social Issues, 72(3), 524-536.

② 저자가 3명 이상인 경우

[예] Horowitz, L. M., Post, D. L., French, R. S., Wallis, R. D., & Siegelman, E. Y.(2003). The Prototype in Abnormal Psychology. Memory & Cognition, 42(1), 62-75.

(2) 신문, 잡지 기사

① 저자가 있는 경우

[예] Gardner, H.(2006, 12. 11.). Do babies sing a universal song? Psychology Today, pp.70-76.

② 저자가 없는 경우

[예] Study finds free care used more.(2007, April). APA Monitor, p.15.

(3) 서적

① 저자가 개인인 경우 : 저자(연도). 책 제목. 출판도시: 출판사.

[예] Frings, G. S.(2008). Fashion from concept consumer(9th ed.). Seoul: Sigmapress.

- ② 저자가 기관인 경우 : 기관명(연도). 책 제목. 출판도시: 출판사.

[예] Korean Psychiatric Association(200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Seoul: Suhaksa.

- ③ 저자가 없는 경우 : 책 제목(연도). 출판도시: 출판사.

[예] College bound seniors(1979). Princeton, NJ: College Board.

- ④ 번역서인 경우 : 원저자명이 표제면에 기재된 경우에는 원저자명과 발행연도를 먼저 기재하고, 역자명은 책 제목 다음 괄호()안에 적는다.

[예] Cowell, A. R.(1986). The fashion theory(J. Yoon, Trans.). Seoul: Sigma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73)

- (4) 편저에 포함된 인용문인 경우

[예] Letheridge, S., & Cannon, C. R.(Eds.)(2004). Bilingual education: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New York: Praeger.

- (5) 영어가 아닌 책: 저자(연도). 책 제목[영어번역]. 출판도시: 출판사.

[예] Praget, J., & Inhelder, B.(2006). La genèse de l'idée de hasard chez l'enfant [The Origin of the idea of danger in the child].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Hong, N. Y., Shin, H. S., & Choi, J. H.(2008). 아시아 전통복식 [Traditional Costumes of Asia]. Paju: Kyomunsa

- (6) 학술대회 발표논문

- ① 발표논문집이 발간되는 경우 : 저자(연도). 논문제목. 책 제목, 권, 페이지.

[예] Thumin, F. J., Craddick, R. A., & Birclay, A. G.(2010). Meaning and compatibility of a proposed corporate name and symbol. Proceeding of the 81st Annual Convention of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8, 835-836.

- ② 발표논문집이 발간되지 않은 경우 : 저자(발표연월). 논문제목. 행사명, 도시.

[예] Brener, J.(2005, October). Energy, information, and the control of heart rate.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Society for Psychophysiological Research, Madison, WI.

(7) 학위논문

① 박사학위논문

[예] Choi, G. M.(2004). Helplessness, depression, and mood in endstate renal diseas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② 석사학위논문

[예] Peterson, J. F.(2009). Effective management train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8) 재인용하는 경우, 참고문헌에는 본인이 참고한 재인용 문헌을 기재한다.

(9) 인터넷 자료는 URL전체를 기재한다.

[예] Hiltz, P. J.(1999, February 16). In forecasting their emotions, most people flunk out. New York Times. Retrieved November 21, 2000, from <http://www.nytimes.com>.

(10) 법조항

① 판례인용

[예] Lessard v. Schmidt, 349 F. Supp. 1078 (E. D. Wis. 1972).
Durflinger v. Artiles, 563 F. Supp. 322 (D. Kan. 1981). aff'd, 727 F.2d 888 (10th Cir. 1984).

② 법령명은 띄어쓰기를 하며 「」안에 표시한다.

[예] 「Mental Health Systems Act」. (1988). 42 U.S.C. § 9401.

(11) 특허

특허를 받은 발명가의 이름, 특허 정보를 검색한 공식출처를 기재한다.

[예] Smith, I. M.(1988). U.S. Patent No. 123,445. Washington, DC: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12) 비디오/ 필름

[예] Mass, J. B.(Producer), & Gluck, D. H.(Director).(1979). Deeper into hypnosis [film].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3. 이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구윤리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한국복식』 연구윤리 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복식』 간행규정 및 편집규정에 따른 연구윤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논문의 신규성 및 작성원칙

제3조(논문의 신규성) 투고되는 논문은 다른 학술지와 저서 등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단, 기존의 논문을 확대발전시킨 것은 그 사실을 병기하여야 한다.

제4조(인용방법) ① 논문과 저서 등을 인용할 때에는 “원고 작성 지침”에 따라 정확하게 인용하여야 한다.

② 전자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학술적인 권위가 인정된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것만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전자 자료를 제공하는 기관과 자료명칭 등을 병기하고, 가급적 URL과 접속일자를 표기해야 한다.

제5조(제재) ① 투고논문이 제3조, 제4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는 개별적인 심사 없이 게재를 거절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경우, 편집위원회는 서면으로 투고자에게 그 사실과 이유 등을 7일 이내에 통고하여야 한다.

③ 투고자는 통지를 받은 후 15일 내에 서면으로 편집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단, 이의가 없으면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하는 것으로 본다.

④ 이의를 받은 편집위원회는 15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투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3 장 게재 논문의 사후심사

제6조(사후심사) 『한국복식』에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사후 심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사후심사의 요건) 편집위원회의 자체 판단 또는 접수된 사후심사요청서를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후심사를 하여야 한다.

- ① 대상 논문이 그 논문이 수록된 본 『한국복식』 발행일자 이전의 간행물에 게재된 경우
- ② 타인의 저작권에 귀속될 만한 내용을 현저한 정도로 표절 또는 중복 게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제8조(사후심사요청서의 접수) ① 게재 논문의 표절 또는 중복게재와 관련하여 사후 심사를 요청하는 사후심사요청서를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회에 접수할 수 있다.

- ② 이 경우 사후심사요청서는 밀봉하고 겉봉에 '사후심사요청'임을 명기하되, 발신자의 신원을 겉봉에 노출시키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사후심사요청서의 개봉) 사후심사요청서는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장이 위촉 한 편집위원이 개봉한다.

제10조(사후심사요청서의 요건) 사후심사요청서는 표절 또는 중복게재로 의심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 4 장 사후심사의 절차와 방법

제11조(사후심사를 위한 편집위원회 소집) 게재 논문의 표절 또는 중복게재에 관한 사실 여부를 심의하고 사후심사자의 선정을 비롯한 제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질의서의 우송) 편집위원회의 심의 결과 표절이나 중복게재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 논문에 대해서는 그 진위 여부에 대해 편집위원장 명의로 해당 논문의 필자에게 질의서를 우송한다.

제13조(답변서의 제출) 위 제12조의 질의서에 대해 해당 논문 필자는 질의서 수령 후 30일

이내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기한 내에 답변서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엔 당사자가 질의서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제 5 장 사후심사 결과의 조치

제14조(사후심사 확정을 위한 편집위원회 소집) 편집위원장은 답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후심사 결과를 확정하기 위한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5조(사후심사 결과의 통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서 확정된 사후심사 결과를 7일 이내에 사후심사를 요청한 이 및 관련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표절 및 중복게재에 대한 조치) 편집위원회에서 표절 또는 중복게재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집행할 수 있다.

- ① 연구원 홈페이지 및 차호 『한국복식』에 그 사실 관계 및 조치 사항들을 기록한다.
『한국복식』 전자판에서 해당 논문을 삭제한다.
- ② 해당 논문 필자는 향후 5년간 본지에 원고 등을 투고할 수 없다.

제 6 장 제보자의 보호

제17조(제보자의 보호) 표절 및 중복게재에 관한 이의 및 논의를 제기하거나 사후심사를 요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원을 절대 밝히지 않고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제보자 보호 규정의 위배에 대한 조치) 위 제17조의 규정을 위배한 자는 향후 5년간 본지에 원고 등을 투고할 수 없다.

제 7 장 이의 절차

제19조(이의당사자) ① 표절 또는 중복게재 등에 대해 편집위원회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투고자 및 게재자와 신청자는 한국복식한국학연구원 원장에게 각각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이 경우 신청자는 그 사유를 분명히 제시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20조(위원의 위촉) 원장은 이를 심의하기 위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단 판정을 내린

편집위원 등은 위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21조(절차) ① 편집위원장은 판정과 관련된 자료를 원장에게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의절차는 제4장과 제5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확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8 장 보 칙

제23조(규정의 개정) ①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 3인 이상이 규정의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재적 편집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하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24조(보칙) 이 규정이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이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국복식』 논문 투고 신청서

투고권호	제 집	접수번호		접수일	
논문종류	일반논문() 설림() 답사 및 참가기() 기타()				
제목	국문				
	영문				
Keywords (5개 이내)	국문				
	영문				
제1저자 (주저자)	이름(한글)			이름(영어)	
	소 속				
	전화번호			휴대폰	
	e-mail				
	주 소				
공동저자1	이름(한글)			이름(영어)	
	소 속				
	전화번호			휴대폰	
	e-mail				
	주 소				
공동저자2 성명, 소속 전화번호					
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지에 게재될 경우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이 가지게 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대표저자 : (인 또는 서명)					
기타 통신란					

* 짧은선 안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e-mail 접수 시 원고 접수 때 저작권란에 서명하시어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곳 : (1689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Tel : 031)8005-2389, Fax : 031)8021- 7157 E-mail : ckafka@dankook.ac.kr

투고관련 사항

주소 및 연락처

우편번호 : 16890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석주석기념박물관

전화번호 : 031-8002-2393

F a x : 031-8021-7157

E - m a i l : ckafka@dankook.ac.kr (채정민)

韓國服飾

第36號

찍은 날 2016年 12月 25日 印刷

펴낸 날 2016年 12月 30日 發行

發 行 檀國大學校 石洞善紀念博物館
TEL : (031) 8005-2389, 2390
FAX : (031) 8021-7157

登 錄 1968年 2月 27日 NO. 가 제3-95
印 刷 新 陽 社
TEL : (02)2275-0834 · 4585 · 4566
FAX : (02)2275-4589

